차　　례

1. 우리 꽃망울

귀여운 소년단원동무들!

사랑하는 소년단원동무들!

다정한 이 부름을 들을 때면 마냥 가슴이 부풀어오릅니다.

동무들은 빨간별로 자랑스러웠던 유년시절을 보내고 기발처럼 펄럭이는 붉은넥타이를 맨 소년단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반듯하게 다려놓은 누나의 붉은넥타이를 몰래 매고 으쓱해서 동무들앞에 나서고 아직은 자격이 없다는 형님에게 겨우 졸라 삐뚤써하니 소년단휘장을 달고 누워자던 그때는 지나가고 이제는 조선소년단원이 되였습니다.

조선소년단원!

얼마나 마음속으로부터 지니고싶었던 부름이였으며 얼마나 그려보던 소년단원 자기들이였습니까.

이 부름속에 온 나라가 우리 소년단원들을 고와합니다.

마치도 방금 피여나는 꽃망울을 애지중지 돌보며 보살피는것처럼.

우리들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한품에 안아 가장 크나큰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이으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을 꽃망울이라 부르시며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십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 교복에 학용품,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고 그 무엇이든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은 우리들에게 돌려주고계십니다.

하기에 조선소년단원이 된 오늘도 우리는 꽃봉오리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나는야 꽃봉오리

1. 나는야 꽃봉오리 꽃망울 꽃망울
   봄바람 불어와 날 피워줄가
   꿀벌나비 날아와 날 피워줄가
   아니예요 아니 원수님사랑
   나를 방긋방긋 피워주어요
   아 나는야 조선의 꽃봉오리

2. 꽃망울 그속에 감춰둔 꽃향기
   꽃필 때 그 향기 누구를 줄가
   꿀벌나비 너에게 안기여줄가
   아니예요 아니 원수님께
   향기 가득가득 안겨드릴래
   아 나는야 조선의 꽃봉오리

소년단시절은 꽃망울시절입니다.

꽃망울은 함뿍 생기를 머금고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면, 혹시 보살펴주지 않

으면 피여나던 꽃망울은 시들수 있습니다.

하나의 꽃망울도 빠짐없이 모두다 곱게 활짝 피여나라고 우리들을 품에 안아 보호해주고 억세게 키워주는것이 우리 소년단조직입니다.

이 소년단조직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무어주시고 아버지장군님께서 이끌어주고계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앞날의 주인으로서 대를 이어 우리 혁명위업을 완성하여나갈 혁명의 후비대입니다.》

소년단조직에서 우리들은 부러운것없이 방긋방긋 웃으며 네가 곱니 내가 곱지 하며 승벽내기로 피여납니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모두가 한덩어리가 되여 곱게 피여납니다.

아직은 모르는것이 많은 시절입니다.

둥근달이 환한 얼굴을 내민지도 오래지만 끝없이 웃고 뛰여놀다 흙투성이가 되여 응석을 부리기도 하고 어른스럽게 놀겠다고 저혼자 마음속맹세를 열번도 더 다지였지만 장난궂은 제 버릇을 버리기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하지만 우리 소년단원동무들은 결코 응석받이들, 장난꾸러기들만이 아닙니다.

함께 뛰여놀던 동무가 넘어지면 일으켜세워 흙먼지도 털어주고 아파서 우는 동무를 울지 말라며 따뜻이 위로도 해주고 비바람에 휘여든 나무를 보면 버팀대도 세워주며 지우개가 없는 동무를 위해 아버지가 생일날에 사다준 지우

개를 선뜻 내주기도 하는것이 우리 소년단원동무들입니다.

소년단원동무들속에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아버지장군님의 초상화를 보위하기 위해 삼단같은 불길속에 서슴없이 뛰여들고 어린 동생들이 뜻하지 않은 정황에 빠졌을 때에도 주저없이 뛰여들어 구원해주는 아름다운 소행이 수없이 꽃펴나고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단시절은 동무를 알게 하고 조직과 집단을 알게 하고 당과 수령, 인민을 알게 하는 시절, 조국과 혁명앞에 자기들이 지닌 사명과 임무를 자각하게 하는 시절이라고 합니다.

이 시절에 우리는 정치적조직생활의 첫걸음을 떼고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으며 아름다운 꽃망울로 피여납니다.

맑고 아름답게 피여날 래일, 열매로 주렁질 휘황한 앞날을 안은 꽃망울로 온 나라의 관심속에 배우며 자라는 우리들입니다.

오늘의 봉긋한 꽃망울이 래일은 활짝 핀 꽃송이로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낼것이며 그 꽃은 알찬 열매로 주렁질것입니다.

그 꽃은 아버지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이는 믿음직한 소년근위대, 강성대국의 역군으로 자라날 우리들의 모습이며 그 열매는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에서 우리가 빛나게 떨치여나갈 위훈들입니다.

참되고 아름다운 삶을 꽃피워갈 인생의 첫 시절, 꽃망울시절인 우리 소년단시절은 참으로 귀중한 시절입니다.

소년단시절을 보람있게 보낼 때 우리는 선군조선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억세게 자라날수 있습니다.

조국의 품

모란봉에 붉게 타는 노을인가요
대동강에 곱게 비낀 무지갠가요
노을처럼 아름다운 조국의 품은
내가 자란 정든 집 고향입니다

진달래꽃 방긋 웃는 새봄인가요
종달새가 지저귀는 하늘인가요
봄날처럼 따사로운 조국의 품은
나를 안아 키워준 어머닙니다

바다우에 둥실 솟는 아침핸가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인가요
해빛처럼 밝고밝은 조국의 품은
아버지장군님 품이랍니다

2. 붉은넥타이 휘날려라

첫걸음, 붉은넥타이

척 척 척 —

발걸음 맞춰 소년단대오가 나갑니다.

너랑나랑 모두가 발맞춰 나갑니다.

앞가슴에 붉은넥타이 펄펄 날리며…

척 척 척 —

우리 소년단원들의 발걸음, 그것은 혁명의 첫걸음을 내디디는 힘찬 발걸음입니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품속에서 자란 나어린 혁명가들의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혁명가가 되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을 따라 선군혁명의 길을 다그쳐나가는 장엄한 혁명대오의 한 성원이 되였습니다.

우리들의 이 높은 긍지와 영예를 담아 소년단행진곡이 울립니다.

유치원때부터 부르던 꽃봉오리노래도 좋지만 소년단에 입단할 때 부르는 소년단행진곡은 더 좋습니다.

밝아오는 조국땅에 노을빛으로
붉게 타는 넥타이를 펄펄 날려라
우리들은 공화국의 나어린 영웅들
사회주의후비대로 배워나간다
후렴: 소년단동무들아 기발을 높여라
대원수님 뒤를 따라 힘차게 나가자

백두에서 솟아오른 해발을 따라
걸음마다 더운 심장 높이 뛰누나
우리들은 **김일성**대원수님 아들딸
빛나는 혁명전통 이어나간다
후렴:

앞가슴을 헤치고서 발을 구르면
푸른 산 황금벌이 안겨오누나
우리들은 대원수님 높은 뜻을 받들고
조국통일 한길에서 싸워나간다
후렴:

우리가 소년단행진곡에 발맞춰 대렬을 짓고갈 때면 유치원꼬마들, 1학년동생들도 따라섭니다.

야, 저기 좀 봐, ○○형님이야, ○○누나도 있어 하며 대렬속에서 우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말입니다.

소년단에 입단하기 전 그때 우리들도 그랬지요.

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으쓱합니까. 그처럼 부럽던 소년단대오에 척 들어섰으니.

그애들이 우리 대렬을 따라올 때면 저도모르게 발걸음은 더 씩씩해지고 얼굴은 더 환해지며 노래소리는 더 높아집니다.

내 나라의 푸른 하늘아래, 맑고 푸른 하늘아래 우리 소년단대오가 행진해가니 거리는 더 환해지고 사람들의 얼굴은 더 밝아집니다.

꼬마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 소년단대오를 행복넘친 눈길로 바라봅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나어린 우리 소년단원들의 행진대오를 그처럼 부러워하고 대견해하는것은 무엇때문일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하기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한 일을 한것도 없는데 대렬짓고가는 우리를 다 기특히 여기는것은 무엇때문일가요.

옳습니다.

우리가 혁명가의 첫걸음을 뗐기때문입니다.

우리 소년단대오는 나어린 혁명가들의 대오, 선군시대의 소년근위대입니다.

나무도 어려서부터 모양을 바로잡아야 멋있게 자라는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혁명에 참가해야 억센 기둥으로 자랄수 있습니다.

선군시대에 나서자란 선군동이 우리들은 선군혁명의 진군가가 높이 울리는,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승전고가 높이 울리는 거창한 혁명의 폭풍우속에 막 뛰여들고싶어합니다.

혁명에 참가하고싶어하는 우리 아이들을 받아들인 조직이 바로 소년단조직입니다. 나어린 혁명가들의 조직입니다.

소년단조직에는 저만 저라고 하면서 저 혼자 꿀꿀이처럼 먹고 자고 노는 그런 동무들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제 한몸을 내대며 혁명에 참가하고싶어합니다. 오늘의 강성대국건설대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싶어합니다.

붉은기 높이 강성대국건설대전에 떨쳐나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과 함께 발맞춰나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내짚는 보폭보다 아이들이 내짚는 보폭은 비록 작아도 그래도 혁명대오를 따라섭니다.

혁명에 참가하겠다는 마음, 혁명대오를 따라서 가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면 되는것입니다.

혁명하겠다는 그 마음을 입단할 때 입단선서에서, 소년단기발앞에서 다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소년단시절은 이렇게 혁명을 하겠다는 맹세속에 시작되고 그 맹세속에 흘러갑니다.

소년단시절!

소년단시절은 혁명을 하고싶어하는 우리 아이들의 소원이 풀리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소년단원이 되는것을 그처럼 기뻐하는것입니다.

력사에 이름을 남기는 훌륭한 혁명가가 될수 있는 길이 이제야 열리였습니다. 드디여 혁명가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소년단시절의 귀중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먼길도 첫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먼길, 혁명가의 한생이 바로 우리 붉은넥타이 펄펄 휘날리는 소년단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동무들, 생각해보세요.

인생의 첫걸음, 이 첫걸음을 혼자서 뗄수 있을가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으앙— 하고 고고성을 울리며 세상에 태여나 첫걸음마를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한걸음 한걸음 뗐습니다.

좀 비틀하긴 해도 엄마손을 놓고 제힘으로 첫걸음을 뗐을 때 어머니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인생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디디라고 용타! 또 한발자국 용타! 하며 얼마나 용기를 북돋아주었습니까.

이렇게 어머니의 손에서 첫걸음을 뗐기에 인간은 세상을 제발로 마음껏 걸어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먼길을 내달려 위훈의 탑을 높이 쌓은 후에도 아이적 첫걸음을 떼여준 어머니를 잊지 못해하는것입니다.

소년단원동무들!

사람은 자기 집 식구끼리만 집안에 꼭 박혀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회라는 넓고넓은 사람들의 바다속에서 삽니다.

한가정에는 웃어른이 있고 아래사람이 있고 서로가 자기 할바를 하면서 질서있게 살아갑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사회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혼란속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사회에는 제각기인 사람들을 사회공동의 리익에 맞게 활동해나가도록 조절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는 조직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하나의 목적, 한결같은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이와 계층별에 따라 정치조직을 이루고있습니다.

청년들의 조직인 청년동맹도 있고 소년들의 조직인 소년단도 있습니다.

청년동맹에는 젊고 씩씩한 청년들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습니다.

또 우리 소년단조직에는 다 큰 어른은 없고 소년, 소녀들만 있습니다.

사회에는 최고의 조직, 이 모든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최고의 령도적정치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입니다.

당!

당이란 부름만 들어도 마음이 숭엄해집니다.

당은 사회의 모든 조직을 다 이끌어주는 어머니입니다.

당의 사랑이 너무도 뜨겁고 다심해서 우리들만이 아닌 사회의 모든 성원들, 우리를 낳은 어머니들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당에 대한 부름은 많습니다.

거대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당은 너무도 위대해서 당을 칭송하는 말이 많습니다.

당은 혁명을 령도합니다.

그래서 당을 혁명의 기관차라고 합니다.

당은 사회의 심장입니다.

당은 사회의 모든 조직, 사람들에게 생의 활력을 줍니다.

사람몸의 각 부분은 심장과 련결되여있습니다. 심장이 뿜어주는 피를 받아야 사람의 몸은 자기의 기능을 수

행합니다.

당은 심장과 같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정치적생명을 유지할수 있게 피를 줍니다.

육체적생명은 어머니가 주지만 정치적생명은 당이 줍니다.

당은 정치적생명의 보호자입니다.

소년단원들의 정치적생명은 당의 령도를 받는 소년단조직이 주고 보호해줍니다.

당은 우리 소년단조직이 옳은 길로 나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 새 세대들을 나쁜 구렁텅이에 꾀여들이려고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제국주의반동들이 음흉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우리 소년단조직은 당의 령도를 받기에 철없는 아이들이 나쁜 길에 들어서지 않고 곧바른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도록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조직을 통하여 당의 사상과 숨결을 받아안습니다.

소년단조직에 망라되여 우리는 당의 빛발을 받아안으며 당과 숨결을 같이하는 혁명가로 자라납니다.

우리 당은 아버지장군님이십니다.

소년단시절은 소년단원동무들이 아버지장군님과 심장의 박동을 맞추는 시절,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빛내여나가는 시절입니다.

우리의 소년단조직은 아버지장군님의 따사로운 사랑이 우리들의 생활에 속속들이 닿게 해줍니다.

첫걸음마를 뗄 때 좀 비틀해도 욕하지 않고 밝게 웃으며 용타고 용기를 주어 제힘으로 힘차게 걸을수 있게 떠

밀어준 다심한 어머니처럼 소년단조직은 혹시 잘못을 저질러도 자기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훌륭한 행동만 하도록 차근차근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소년단원들은 이 시절에 오로지 아버지장군님만을 따를 한마음으로 가슴 불태우고있습니다.

우리 앞가슴에 날리는 붉은넥타이에 그 불타는 열망이 담겨있습니다.

우리들의 붉은넥타이에는 소년단원이 청년동맹생활을 거쳐 성스러운 당원증을 가슴에 지닌 조선로동당원이 되겠다는 굳은 결의가 넘쳐흐르고있습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소년단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 표현되겠습니까.

그것은 조직의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데서 표현됩니다.

난생처음으로 조직생활, 규률생활을 하는 소년단원들에게 있어서 규률은 조직의 생명입니다. 다시말하여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 아버지장군님의 어린시절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만경대혁명학원에 다니실 때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조직에서 진행하는 모임에 늘 빠짐없이 참가하시여 조직규률을 모범적으로 지켜나가시였습니다.

주체42(1953)년 1월 어느날이였습니다.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함박눈은 아침에도 멎지 않고 펑펑 쏟아져내렸습니다.

눈은 산과 들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길이란 길은 죄다 막히고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몇십년만에 처음 보는 눈이라고들 말했습니다.

아버지장군님을 모신 학급에서는 이날 분단모임을 가지기로 되여있었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전날에 급히 보실 일이 생겨 외출하시였는데 오지 않으시였습니다.

《무릎을 치는 숫눈길을 헤쳐야 하는데 못오실거야.》

《아니야. 어떤 일이 있어도 오실거야.》

앞을 볼수 없게 눈이 쏟아져내리는 밖을 내다보며 동무들이 하는 말들이였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문여는 소리가 나더니 온몸이 그대로 눈사람처럼 되신 아버지장군님께서 교실에 들어서시였습니다.

동무들은 너무도 반가와서 막 달려나가 눈을 털어드리며 아버지장군님을 마중하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동무들을 정겹게 둘러보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모임을 시작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동무들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모임에 늦을가봐 급히 서두르기는 했지만 눈이 어찌나 많이 오는지 길을 찾지 못해 혼이 났다고 하시며 소리내여 웃으시였습니다.

생눈길을 헤치시기에 옷이 온통 땀과 눈에 젖으신 아버지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분단동무들의 가슴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이때 한 동무가 아버지장군님께 눈에 길이 막히고 다니

기도 위험한데 소년단모임에 좀 늦어지면 뭐라는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웃음어린 눈길로 동무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소년단원이 분단모임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야 되겠니. 소년단선서를 하고 조직에 든 이상 언제 어디서나 조직규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 순간 동무들은 말할수 없는 격정에 휩싸여 아버지장군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아버지장군님을 모시고 학급에서는 곧 분단모임을 가지였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동무들은 아버지장군님께 분단총회도 아닌데 눈이 멎은 다음 와도 될걸 그랬다고 다시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환경에 따라 조직규률을 어겨서는 안된다, 물론 소년단생활을 하는 과정에 불리한 환경과 조건에 부닥칠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조직규률을 어기거나 에누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소년단조직에서 조직되는 사업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무조건 제때에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소년단원들은 아동단원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조직규률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분단동무들은 저절로 고개가 숙어졌습니다.

바로 조직에 대한 그러한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계시기에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길을 메운 생눈길을 헤치시고 먼

길을 걸어오신것이였습니다.

동무들은 자기들의 소년단조직생활을 곰곰히 돌이켜보게 되였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조직생활의 첫걸음을 뗀데 불과한 동무들속에는 소년단조직생활을 중히 여기지 않는 현상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부할 나이가 되면 학교에 들어가듯이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소년단에 입단하여 생활하기마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년단조직이 그렇게 귀중하다는것도, 조직생활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것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있었습니다.

더구나 회의나 모임에 지각하고 빠지는것쯤은 례사로운 일로 여기며 별로 큰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았던것입니다.

이러한 동무들에게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소년단조직생활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던것입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보여주신 조직생활의 참다운 모범은 소년단조직생활에서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분단동무들은 자기를 조직의 몸으로 생각하고 소년단조직생활을 더 잘해나갔습니다.

우리 조용히 되새겨봅시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아버지장군님 하신 말씀을.

우리 청년들은 청년동맹이라는 조직을 통하여 투사로, 영웅으로, 혁명가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고, 조직이야말로 영웅을 낳는 집이며 대학이라고 하신 그 뜨거운 말씀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장군님을 따르는 길에서 언제나 조직과 함께 서있습니다. 붉은넥타이와 함께 서있습니다.

조직을 사랑하듯이 붉은넥타이를 사랑합시다.

자기와 같이 귀중히 여깁시다.

그러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찢기우지 않고 하나의 기폭으로 펄펄 휘날릴것입니다.

정신적량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여기고 여기에 모든 정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소년시기는 세계관의 골격이 서는 시기입니다.

아직 옳고그른것을 정확히 모르고 헤덤비는 그 나이에 있기에 이끌면 이끄는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시절입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이 시기에 자기들의 정신적량식을 마련하여놓아야 합니다.

밥을 먹지 못하면 생계를 이어나갈수 없듯이 정신적량식이 없으면 자기자신을 지켜내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에 다니실 때 몸소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를 무으시고 그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

명사상과 혁명업적, 고매한 덕성을 따라배우기 위한 첫 혁명력사연구소조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략전연구소조를 내올것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결성사업을 지도하시였으며 이 사업에 모든 학생들이 잘 참가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략전학습의 중요성과 소조결성의 목적, 소조의 임무와 활동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시고나서 소조계획을 읽은책발표모임, 시읊기모임,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이야기모임, 혁명가요배우기, 글짓기발표모임 등 여러가지 재미있는 사업으로 조직하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략전학습을 지도하시면서 읽은책발표모임을 자주 조직하시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활동과 관련한 사진첩도 만들어 학습을 생동하게 하도록 하시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속에서 략전학습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활동년대나 력사적사실을 몇가지 외우는 식으로 하는 편향을 없애고 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깊이 체득하여 그이의 위대성을 심장에 새기도록 하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만 아니라 소조원들을 데리고 어른들을 찾아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활동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벌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영상을 모신 사진첩을 펼쳐들고 어른들앞에 출연한 소조원들은 대원수님의 혁명활동로정에 대한 해설을 열성적으로 하였으며 중요한 대목들에서는 혁명가요를 부르고 시도 읊으면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어나갔습니다.

그들의 해설선전을 커다란 감동속에 들은 한 로인은 아버지장군님의 두손을 부여잡고 이 어려운 때 **김일성**장군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니 새힘이 솟는다, 학생들이야말로 과시 **김일성**장군님의 참된 아들딸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소조는 더욱 활기있게 움직이고 소조의 활동범위는 더욱 확대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아버지장군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 이것이 우리의 정신적량식을 마련하는것으로 됩니다.

정신적량식을 더 많이 장만하여놓읍시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아버지장군님의 로작원문학습을 더 잘해나갑시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로 됩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있다 해도 아버지장군님의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조국과 인민을 위한 참된 사람이 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앞장섭시다.

그러면 자기도모르게 키가 한뽐이나 커질것입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쓰신 일기

1956년 12월 28일

내리던 함박눈이 멎었다. 어쩐지 더없이 마음이 상쾌하다. 오늘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로작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를 다시 학습했다.

몇차례 읽으면서 발취하였으나 오늘 또다시 읽으니 새로운 느낌을 주는 철학적진리와 위대성으로 하여 생각은 깊어만진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탐구하고 사색하고 학습해야 할것인가를 명백하게 밝혀주는 참된 생활의 교과서이다.

가장 가까운데서부터 살펴보자.

우선 나의 학습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는 없었는가?

나는 생각해본다. 나의 학습에서도 필요없는것을 가려보지 못하고 리해가 없이 덮어놓고 암기하는 편향이 있었다.

황진이, 림제의 시조를 잘 외워서 《5점》을 받았지만 무엇때문에 이 시조를 잘 외워야 하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학습의 목적과 필요를 모르고 한것이 교조주의, 형식주의학습이 아니고 무엇인가?

생각해볼수록 웃음밖에 남지 않는 노릇이다.

좀 자각하자. 주체있게 학습도 생활도 해야겠다. 그리고 동무들에게도 일깨워주자. 《우리는 앵무새가 아니다.》라고.

원수님의 로작은 날이 갈수록 위대한 진리를 더 깊이 깨

우쳐준다.
기분이 대단히 상쾌하다. 명절처럼 기쁜 날이다.
오늘은 유난히 날씨도 맑다.

늘 분공속에 살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분공수행과정은 곧 조직생활과정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분공수행과정은 곧 조직생활과정입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소년단에 입단하면서, 붉은넥타이를 휘날리면서 맹세를 다집니다.
소년단생활을 잘하자고 말입니다.
그 맹세대로 소년단생활의 첫걸음을 잘 떼자고 조직에선 소년단원들의 정치사상적수양을 쌓기 위한 내용을 위주로 하면서 지덕체과업수행과 사회정치활동, 좋은일하기운동에 앞장설데 대한 내용의 분공을 모든 동무들에게 준답니다.
분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옳습니다.
분공이란 소년단조직앞에 나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년단원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과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조직이 매 소년단원들에게 안겨주는 믿음입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조직으로부터 빠짐없이 정상적으로 분공을 받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을 단련해야 합니다.
아직 소년단조직생활에 대한 의무감이 어리고 뛰놀기만 좋아하면서, 분공을 주지 않으면 더 좋다고 하면서 스

스로 분공을 받아 수행하려 하지 않는 현상은 없는지.

분공을 주기만을 앉아서 바랄것이 아니라 조직을 찾아가 분공을 받아 수행하는 버릇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 이런 동무들을 위해 아버지장군님의 어린시절이야기를 되새겨봅시다.

그때는 아버지장군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하신지 얼마 되지 않는 12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 분단위원장을 찾아오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자신에게도 분공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시였습니다.

순간 분단위원장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분단에는 자진하여 분공을 받는 동무들이 단 한명도 없었기때문입니다.

분단위원장은 아버지장군님께 분공을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도 분단에 속한 소년단원인데 분공을 받아야 한다.

소년단원은 응당 소년단조직으로부터 분공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

소년단원은 분공을 받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더 단련하게 되고 수양하게 된다.

그러시면서 소년단조직생활에는 2중규률이 있을수 없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분단위원장은 자기 사업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앞으로는 이런 현상을 없애야겠다고 하시면서 분단에서는 소년단원들이 누구라 없이 분공을 받고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분공은 매개 소

년단원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주어야 한다고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잠시후 장군님께서는 지금 동무들이 신문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라지오도 제대로 듣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전선소식과 세계정세 같은것을 제때에 알아서 동무들에게 알려주는 분공을 맡아하면 어떤가고 물으시였습니다.

분단위원장은 아버지장군님의 말씀에 후더워오르는 마음을 안고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앞으로 분공을 자주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분공을 자진하여 받으시면서 소년단조직생활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습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분공을 받은데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분공을 제 날자에 제때에 어김없이 집행하며 분공집행정형을 스스로 조직에 솔직히 보고하는 버릇도 붙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할수 있고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속에는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조직의 위임분공수행에서 모범을 보이는 동무들이 많답니다.

여기에 소년단조직에서 준 첫 분공을 자기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하고 조직에 솔직히 보고한 해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년단조직에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입단한 해별이, 찬성이를 비롯한 소년단원들에게 해님만을 따라서 피는 해바라기씨를 주어 그들이 마음을 합쳐 해바라기를 활짝 피울데 대한 첫 분공을 주었답니다.

꽃잎같은 두손을 한데 모아 오동통한 씨앗 열알을 받아든 해별이의 작은 가슴은 첫 분공을 받은것으로 하여 고무공처럼 팽팽 불어났습니다.
어서 빨리 씨앗을 심고 가꾸어 쟁반같은 해바라기열매를 따고싶은 충동과 매일 자기보고《애기별, 애기별》하고 부르는 마을 아버지, 어머니들앞에서 한바탕 뻐기고싶은 생각도 불쑥 들었기때문입니다.
그래 그달음으로 뛰여가 봄철이면 어머니가 완두콩을 심던 그자리에 한알, 두알, … 열알을 제손으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뒤울안으로 달려가보군 했습니다.
오늘은 싹이 텄나? 래일이면 나올가?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보드라운 흙이불을 헤치고 파란 싹이 나왔습니다.
세여보니 틀림없이 꼭 열대였습니다.
해별이는 조직에 보고하고싶은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허나 그날은 일요일이여서…
일은 다음날인 월요일에 벌어졌습니다.
뾰족뾰족 움튼 해바라기에 줄 물을 길으려 수도가로 뛰여간 사이에 열려진 바자문으로 뽀르르 달려들어간 복슬강아지가 머리를 내민 한포기 싹의 허리를 뚝 부러뜨렸던것입니다.
순간 해별이는 무엇이 무너지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이 분공을 중간총화하는 날이기때문입니다. 한포기의 싹을 부러뜨렸으니 조직에 어떻게 보고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 일을 안 찬성이는 중간총화이니 마음을 놓으라고, 자기 누나에게 말을 하여 한포기를 주겠다며 열포기 다 싹

틔웠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대답할 차례가 된 해별이는 일어서서 보고하려다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 사실대로 말하고말았답니다.

찬성이는 해별이한테서 따돌리운것 같아 씨근덕거렸으나 친구인 해별이를 도와주고싶어 누나에게로 데리고갔답니다.

이야기를 듣고난 찬성이 누나는 머리를 가볍게 끄덕이면서 분공받은 해바라기 한포기때문에 애쓰는 꼬마들이 여간 사랑스럽지 않아 한포기를 주었답니다.

해바라기 한포기를 받아안은 해별이는 참 미안했답니다.

그러는 해별이를 보며 찬성이 누나는 우리는 한집안식구나 같아, 다같은 소년단원들이니까, 그러니 내가 주는 이 한포기가 너의 집에 옮겨져도 다른 일은 없어, 그저 소년단조직이라는 큰 집안에서 해바라기가 이사를 간셈이거든 하며 생긋 웃으며 말했답니다.

순간 해별이는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상 식

해바라기는 왜 해를 따라 돕니까?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돌기때문에 해바라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식물은 일반적으로 해빛을 받으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온 해바라기는 자기 집에 옮겨심는다고 해도 새로 생기는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빈 자리로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제힘으로 분공을 해낼 생각을 못하는 자신이 민망스러워졌답니다.

그래 누나에게 해바라기를 뜨지 말라고, 자기는 꼭 제힘으로, 제손으로 심어 키우겠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수머리 고집쟁이 해별이를 얄밉게 생각하며 찬성이는 해바라기 한포기를 들고 누나와 함께 해별이네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찬성이와 누나를 보며 해별이는 받은 분공은 제힘으로 해야 해, 누나걸 여기다 한포기 가져다 심어두 부러뜨린 한포긴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동생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찬성이 누나는 분공은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제힘으로 한번두번 분공을 해나가느라면 소년단조직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도 한층두층 자라게 되여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될수 있

그런데 해바라기는 어느 식물보다도 이런 성질이 더 강합니다.

때문에 아침이면 해가 솟는 동쪽으로 꽃대가 휘여듭니다.

이때 꽃대의 다른쪽은 그늘이 집니다.

그런데 그늘진 쪽의 꽃대가 더 빨리 자랍니다.

때문에 해바라기는 계속 해빛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돌고돌아 저녁이면 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다며 해별이를 칭찬해주었답니다.

누나와 해별이를 번갈아 바라보던 찬성이는 가슴이 찌르르— 해왔습니다.

자기 손으로 심었다간 죽을것만 같아 할머니에게 심어달라고 한 일, 그리고도 선생님에게 싹이 다 나왔다고 보고를 한 일, 누나와 해별이를 속인 자신, 아니 조직을 속인 자신의 행동으로 머리를 들수가 없었답니다.

찬성이는 자신을 뉘우치며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싹보다 먼저 파아랗게 움트고 싱싱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 하늘의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아름다운 꽃송이로 활짝 피워갈 굳은 결심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그대로 해바라기씨앗에 옮겨 움튼답니다.

소년단원동무들, 우린 해별이와 같은 소년단원이 되여야 합니다. 분공을 제힘으로 무조건 수행하며 조직에 자기의 모든것을 솔직히 터놓는 소년단원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잘못을 저질렀으면 찬성이처럼 제때에 뉘우칠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장군님께 충직한 소년단원으로 자라날수 있답니다.

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을 존엄있게 대하는 그 마음은 분공수행을 통해 하나하나 자라게 됩니다.

분공을 제힘으로 꼭꼭 수행하며 그것을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며 한걸음한걸음 내짚읍시다.

그러면 자신도모르게 조직을 위하는 마음도 키도 쑥쑥 자라게 됩니다.

우리모두 늘 분공속에서 삽시다.

비판속에 흐르는 사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비판은 결함을 고치고 집단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동무들, 동무들은 비판을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무엇때문에, 왜 받게 되였는가요?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구요.

그래 비판을 받아보니 어떻습니까?

예? 처음엔 기분이 나쁘다구요.

그다음엔요.

한잠자고 일어나니 생각이 많아진다구요.

호호호…

정말 솔직한 대답이예요.

비판이란 처음에 받을 때에는 싫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매 소년단원동무에게 있어서 매우 좋은 보약이예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쓴약이 보약이라구요.

우리 여기서 아버지장군님께서 소년단위원장으로 사업하시던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어느날 어느 한 분단에서는 아버지장군님의 지도밑에 분단총회가 열리게 되였습니다.

분단총회는 가장 말썽이 많던 최동무가 저지른 잘못을 가지고 진행되였습니다. 토론에 참가한 동무들은 한결

같이 최동무의 학습과 소년단생활에서 나타난 결함을 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윽고 토론이 끝나자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최동무가 일상적으로 분단조직생활을 잘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엄중한 결함을 범하였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을 깔보는 이런 학생은 소년단원의 자격이 없다고 날카롭게 비판하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며 분단동무들은 이제 틀림없이 최동무에게 책벌을 내리시는 말씀이 계속될것이라고 짐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책벌을 주자고 제기한 분단동무들에게 최동무가 가지고있는 결함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엄격히 비판하여야 하지만 그 동무자체는 아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고 책벌부터 주려는것은 옳지 않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정 고쳐줄 생각이 없다면 자신께서 그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분단열성자들을 따로 학교소년단실로 부르시여 뒤떨어진 동무를 교양하자면 그의 성격과 취미는 물론 그의 생활에서 걸리고있는 점, 그에게 있는 좋은 점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에 맞게 교양하여야 한다, 사람에 대한 교양을 생나무꺾듯 할수는 없다, 동무들에 대한 교양은 언제나 뜨거운 사랑이 안받침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분단총회가 있은 그날 저녁이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오늘은 최동무와 함께 가고싶다고 하시면서 그를 기다리시였다가 같이 학교문을 나서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그의 어깨를 다정히 잡으시고 《난 동무가 꼭 고치리라고 믿기때문에 아프지만 비판한것이야. 자, 이제부터 새 출발이다. 네가 남보다 못할게 뭐니. 한번 보란듯이 해보자꾸나.》라고 힘있게 고무해주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최동무와 함께 탁구도 치시면서 그가 비판에 눌리워 우울해지지 않고 자기 결함을 고쳐나가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모범소년단원으로 자라나게 되였습니다.

말썽꾸러기소년이 모범소년단원으로!

이 이야기는 뒤떨어졌던 한 소년단원을 조직적인 비판속에 어엿하게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신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남을 비판하려면 그의 잘못을 사상적으로 깊이 분석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폭로하는 식으로, 욕설하고 모욕하는 식으로 비판하여서는 안됩니다.

동무들속에는 친한 동무들끼리는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비판하려 하지 않거나 남학생들은 녀학생들만을, 또 녀학생들은 그들대로 남학생들만을 비판하고 분단열성자라고 하여 비판을 하기 꺼려하는 현상은 없는지.

또 비판을 받으면 마치 몹쓸 학생으로 인정받은것만 같아 몹시 기분이 나빠하고 지어는 벼르다가 복수적으로 비판한다든가 비판을 받았다고 앵돌아져 비판한 동무와 말도 하지 않고 조직과 집단에 속을 주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이런 현상들은 동무의 큰 결함을 감싸주는것으로 될뿐아니라 자기도 그런 결함을 범하겠다는것과 같으며 조

직과 집단의 단합을 약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우리 동화《가재미와 넙치》를 되새겨봅시다.

바다밑 모래불에 나란히 누워 날마다 재미나는 이야기를 나누는 가재미와 넙치는 서로 딱친구랍니다.

가재미는 무엇이 하나 생겨도 넙치를 생각했고 넙치 역시 가재미를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가재미는 넙치의 눈이 왼쪽으로 삐뚤어지는것을 발견하게 되였답니다.

가재미는 안타까왔습니다.

좀해서 좋지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사실을 안 넙치가 가슴아파할 일을 생각하니 선뜻 말하려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답니다.

그래 하루하루 세월만 보냈답니다.

며칠후 넙치에게도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딱친구인 가재미의 눈이 오른쪽으로 조금조금 삐뚤어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넙치는 점점 삐뚤어지는 가재미의 눈을 보면서도 그에게 말해주고싶은 용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가재미가 알면 속상해할가봐 말이예요.

이렇게 날이 가고 해가 바뀌는 속에 가재미와 넙치의 눈은 아예 삐뚤어지고말았답니다.

얼마나 우리 소년단원들에게 교훈적인것을 안겨줍니까.

그렇습니다.

비판은 참다운 우정의 표시이고 뜨거운 동지적사랑입니다.

우리는 비판속에 흐르는 동무들의 그 뜨거운 사랑, 진심을 잘 알아야 하며 동무들의 작은 결함도 제때에 고쳐주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분단은 화목한 분단으로 될것입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지으신 동요

공 화 국 기 발

우리 나라 기발
공화국기발
푸른 하늘 높이
펄펄 날려요

아름다운 우리 나라
가는 곳마다
지붕우에 공화국기
휘날리며 살아요

우리에겐 언제나
참 좋은 기발
원쑤놈들한테는
눈에 든 가시

우리모두 지키자
공화국기발
우리 나라 만세!
공화국 만만세!

3. 우리앞에 서있는 소년영웅들

영웅!

영웅들의 모습은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여도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영웅!

어릴적부터 얼마나 외워보던 말이였습니까.

얼마나 영웅이 될 꿈을 꾸며 자랐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웅인지도 모르고 또 영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영웅이 될 아름다운 꿈을 꿉니다.

소년단원 누구나 다 영웅이 되고싶어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영웅이 될가요?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면 힘이 센 사람.

아닙니다.

영웅은 결코 특수한 사람만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아버지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사람, 조국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며 당과 혁명을 위해 자기의 한몸을 다 바쳐 투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빛나는 우리 혁명의 력사속에는 우리 나이또래의 소년, 소녀들이 영웅적위훈을 발휘하여 조국과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소년영웅들이 많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가 따라배워야 할 소년영웅들에 대하여 되새겨보기로 합시다.

항일의 소년영웅 김기송선생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그이의 동생이신 김기송선생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시였습니다.

《단 한점의 살붙이로 남아있던 동생 기송이마저 부암동에서 삼도만유격구로 이동해가는 장재촌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동단신호나팔로 적 〈토벌대〉를 유인해가다가 적의 흉탄에 맞아 최후를 마치였다.》

온 유격구가 사랑하는 아동단나팔수, 아동단분단장으로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하였으며 학습과 조직생활, 연예선전대활동과 적구정찰 등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인 김기송선생님은 아동단원들의 참다운 귀감이시였습니다.

김기송선생님에게는 세상에 태여났을 때부터 집이라고 이름지을만한 보금자리가 없었습니다.

김기송선생님이 태여난 곳은 남의 집 웃방을 빌려 곁방살이로 살아가는 집이였고 연길현 북구에서 살던 집은 남이 살다 버린 오막살이 빈집을 손질하여 든 집이였습니다.

연길현 8도구 서산리의 집도 산같은 빚더미에 눌려 온 가족이 죽지 못해 거처하고있던 쪼그라든 집이였습니다.

주체17(1928)년 봄 김기송선생님은 학교갈 나이가 되셨

지만 너무도 가난하여 돈이 없어 학교에 갈수가 없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려운 생활난을 겪으시면서도 동생만은 학교에 보내기 위하여 이악하게 일해나가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의 이러한 노력에 의해 김기송선생님은 8도구 보통학교에 입학하신 후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하여 해마다 학습에서 학교적으로 1등을 하군 하시였습니다.

그러던 주체18(1929)년 어느날 병석에 누워계시던 아버님이 그만 세상을 떠나시였습니다.

《이젠 뜻을 이루지 못한채 이역땅에 묻히게 되였으니 분하고 원통하구나! 왜놈들을 몰아내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이 망국노의 치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너희들은 독립혈전에 몸바쳐 나서서 어떻게 해서라도 기어이 조국을 찾아야 한다. 독립의 날 내 넋이라도 너희들을 따라 두만강건너 기어이 조국으로 가겠다.》

김기송선생님은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을 가슴깊이 새기시며 기어이 나라를 찾는 성스러운 싸움의 길에 나서리라 굳게 맹세다지시였습니다.

그해 6월 연길현 부암동 하촌으로 일가분들과 이사오신 김기송선생님은 부암사립학교에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시면서부터 **김일성**장군님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시였습니다.

어느날 국어시간에 《금수강산 내 나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짓게 되였는데 교원은 김기송선생님의 글이 제일 잘 되였다고 하면서 그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금수강산 내 나라 참 좋은 나라.

산은 산마다 그림처럼 아름답고 강은 강마다 고기떼 욱

실거리며 은금보화가 가득한 나라, 그러나 왜놈들이 주인 행세를 하니 우리모두 힘을 합쳐 하루빨리 왜놈들을 내쫓고 내 나라, 내 고향을 다시 찾자.

참으로 짧으면서도 뜻이 깊은 글이였습니다.

김기송선생님은 산수공부도 아주 잘하시였으며 토론시간이면 토론도 제일 잘하시였습니다.

한번은 황금이냐 지식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두편으로 갈라져 론쟁을 벌린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황금편의 한 소년이 토론하였습니다.

《황금은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입는것도 이렇게 헌것은 안입을것이며 먹는것도 겨우 보리밥이나 감자를 먹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오막살이신세도 면할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이때 김기송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서시였습니다.

《지식이 제일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도 모든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모르기때문에 왜놈들에게 짓눌리여 살면서도 왜 눌리워야 하는지, 눌리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알아야 일제놈들을 때려부시고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다시 찾을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김기송선생님은 지난날 우리 인민들이 세상리치를 모르기때문에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사실이며 지주놈들의 구박을 받으며 속아 살아온 사실들을 실지생활과 결부하여 이야기하시였습니다.

김기송선생님의 토론은 학생들에게 참말로 커다란 감명을 안겨주었습니다.

김기송선생님은 이렇듯 학습에서 남달리 뛰여나시였을뿐아니라 동무들을 적극 도와주고 잘못은 제때에 타일러주군 하시였습니다.

그러나 김기송선생님은 사립학교도 오래 다니지 못하시였습니다.

일제놈들이 만주에 있는 조선인사립학교들에서 민족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모저모로 압력을 가하였기때문이였습니다.

학교에 다닐수 없게 되자 김기송선생님은 알아야 혁명을 하고 배워야 나라를 찾을수 있다고 생각하며 누님이신 김정숙어머님을 따라 야학에 다니시였는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제놈들의 《토벌》로 사랑하는 어머님과 형수님을 잃으시였던것입니다.

주체21(1932)년 11월 김기송선생님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부암유격구마을로 자리를 옮기시였습니다.

유격구에 온 김기송선생님은 아동단원들의 한결같은 지지로 아동단분단장으로 선출되시였습니다.

어느날 휴식시간이였습니다.

김기송선생님은 아동단원들에게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였습니다.

김기송선생님은 **김일성**장군님은 하늘이 낸분이시라고, 일찌기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신 장군님께서는 그날의 맹세대로 지금 군사를 일으켜 왜놈들을 쳐물리치고계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였습니다.

《지난해에 있은 추수투쟁과 올봄에 벌어진 춘황투쟁도

다 장군님의 지도밑에 조직진행된 투쟁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점차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올리시다가 드디여 금년 4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앞으로 우리는 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야 왜놈들을 쳐없애고 독립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

김기송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동단원들은 한결같이 **김일성**장군님의 나어린 전사된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것을 굳게 결의다지였습니다.

김기송선생님은 김정숙어머님의 지도밑에 아동단원들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하도록 교양하는 한편 그들을 높은 계급적자각과 혁명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힘쓰시였으며 아동단에서 진행하는 생활총화모임이나 성격검토회를 높은 수준에서 조직하시여 아동단원들이 조선혁명의 참된 후비대로 자라나도록 하시였습니다.

김기송선생님은 유격구를 지켜싸운 나날에 가지가지의 잊지 못할 이야기들을 남기시였습니다.

어느날 김기송선생님은 아동단원 택만이와 함께 통신련락을 떠나시였습니다.

적들의 동기《토벌》에 대처하여 8도구관내 여러 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소집에 대한 통신이였습니다.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 높고낮은 산발을 타고 걷는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통신쪽지를 신발창밑에 든든히 감추고 길을 떠난 김기송선생님은 앞장서 걸으시면서 눈길을 헤쳐주고 바람을 막아주군 하였는데 추위가 더욱 심하여지자 자신의

목도리를 택만이의 목에 감아주시며 이야기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통신쪽지를 빨리 전달해야 해. 그래야 혁명군중을 동원하여 놈들의 동기〈토벌〉공세를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어.》
《알겠다. 그런데 목도리를 나에게 주면 너는 춥지 않니?》
《나야 자주 다니던 눈길인데 너보다는 덜 얼었으니 어서 감아라.》
김기송선생님은 목도리를 택만이의 목에 감아주시고야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추위도 참아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유격대원이 될수 없다. 유격대원들은 온 겨울 산속에서 살면서 매일 왜놈들과 싸우고있는데 우리는 이런 추위쯤은 얼마든지 뚫고나갈수 있다.》
택만이는 힘과 용기를 내여 걸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갈림길에 들어설 때였습니다.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마주 걸어오는 발자국소리가 났습니다.
김기송선생님은 밤에 다니는것으로 보아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시였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택만이를 길옆에 숨게 하시고 자신은 그놈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반대쪽 길을 따라 부지런히 걸으시였습니다.
김기송선생님은 낮은 산굽인돌이를 돌아 냅다 달리여 길옆 낭떠러지로 내려가서는 가지고있던 백포를 쓰고 납작 엎드리시였습니다.
얼마후 길쪽에서 발자국소리가 가까이 들려오더니 《이상한데…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빨리 쫓아가자구.》하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적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적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김기송선생님은 눈무지속에서 일어나 택만이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시였습니다.

이날밤 김기송선생님은 아슬아슬한 고비를 여러번 넘기시며 통신련락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시였습니다.

주체22(1933)년 가을 김기송선생님은 형님이 계시는 풍덕골을 거쳐 8도구광산조직책임자인 윤병화선생님에게 통신을 전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또다시 맡게 되시였습니다.

김기송선생님은 지난 시기 누님이신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자주 형님이 계시는 풍덕골과 8도구광산조직책임자인 윤병화선생님에게 통신련락임무를 다녔으므로 그곳 실정을 잘 알고계시였습니다.

이날 김기송선생님은 풍덕골에 있는 김기준형님에게 갔다가 형님과 함께 혁명조직을 탄압하려고 날뛰는 적들의 추격을 받게 되시였습니다.

형님은 자리를 옮기시면서 김기송선생님에게 8도구광산조직책임자인 윤병화선생님을 찾아가서 8도구당조직에서 받은 임무와 함께 풍덕골에서 변절자의 밀고로 놈들의 대대적인 탄압이 벌어져 조직이 위험에 처하였다는것도 알리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김기송선생님은 맡은 임무를 급히 윤병화선생님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상무봉촌으로 단숨에 달려가시였습니다.

상무봉촌에는 8도구광산로동자들의 합숙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윤병화선생님이 지하공작을 하고있었던것입니다.

김기송선생님께서 윤병화선생님이 있는가 하여 살그머니

합숙문을 여는 순간이였습니다.

누구의 손인지 김기송선생님의 덜미를 움켜잡았습니다.

김기송선생님은 로동자합숙을 은밀히 포위하고있다가 불의에 덤벼든 놈들에게 20여명의 로동자들과 함께 체포되시였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시는 김기송선생님은 조직의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고 잡힌 무거운 죄책감으로 하여 가슴이 터지는것 같으시였습니다.

김기송선생님은 기회를 보아 달아나려고 하다가 생각을 고쳐하시였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된바치고는 경찰서안에 들어가 체포된 로동자들속에서 윤병화선생님을 찾아보자고 결심하시였습니다.

김기송선생님은 류치장안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윤병화선생님의 옆으로 다가가시여 자신이 맡은 임무와 잡혀온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시였습니다.

윤병화선생님은 김기송선생님의 손바닥에 변절자의 이름을 써준 다음 자기는 이제 더 살것 같지 못하다고 하면서 무조건 경찰서를 빠져나가 조직에 이곳 소식을 알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장놈은 김기송선생님에게 공산당통신련락을 다니는가고 물었습니다.

김기송선생님은 이미 조직에서 대준대로 자기는 서산리에 살던 김두만의 아들인데 아버지는 지하조직성원들을 밀고한 죄로 처단되였다는것, 아버지가 죽은 후 어머니는 자기를 버리고 다른 곳에 도망쳐 집도 부모도 없이 혼자서 떠돌아다니는데 8도구광산에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왔

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고 하시였습니다.

더는 어쩔수가 없게 된 서장놈은 김기송선생님을 경찰서에서 내보내고말았습니다.

장재촌유격구에서는 긴급회의를 열고 그 이튿날로 변절자놈을 처단하고 류치장안에 갇혀있는 로동자들을 다 구원하였습니다.

그후 유격구인민들과 유격대원들은 신심이 넘쳐나고 굳센 의지를 지니신 김기송선생님을 강철이라고 하며 높이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던 주체22(1933)년 12월 하순 어느날 아침이였습니다.

이날 장재촌마을의 혁명군중들은 삼도만쪽으로 가려고 마을의 서쪽산으로 오르고있었습니다.

다른 아동단원들은 이미 삼도만쪽으로 이동하였지만 김기송선생님은 인민들이 다 빠질 때까지 적정을 감시할 임무를 받고 택만이와 함께 남아서 장재촌에서 서북쪽으로 높이 솟은 사슴페봉우리에 오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추위를 무릅쓰시고 적정을 계속 감시하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지러진 총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사태는 위급하였습니다.

김기송선생님의 눈에서는 불이 이는듯 하였습니다.

(…내 한목숨 바쳐서라도 기어이 저 인민들을 구원해야한다.)

김기송선생님은 재빨리 옆구리에 찬 나팔을 잡았습니다.

《기송아, 너 어쩌자구 그러니.》

택만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 아버지, 어머니들을 구원해

야 해.》

김기송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재빨리 달려가 신호나팔을 힘있게 불기 시작하시였습니다.

순간 어지럽게 짖어대던 적기관총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놈들은 유격대가 갑자기 나타난줄 알고 잔뜩 겁이 나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피였습니다. 까투리처럼 대가리를 눈속에 처박은 놈들도 있었고 비실비실 뒤걸음치는 놈들도 있었습니다.

적들이 일시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인민들은 산마루로 톺아올랐습니다.

적들은 뒤늦게야 사슴페봉우리에서 돌격나팔을 불어대는 두 소년을 발견하고 방향을 바꾸어 몰려올라왔습니다.

김기송선생님은 재빨리 자리를 옮기시며 계속 나팔을 부시였습니다.

적들을 유인하고있는 사이에 인민들은 서쪽산마루를 넘어가 깊은 수림속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택만이는 급히 김기송선생님에게 《기송아, 인민들이 다 넘어간것 같애. 이젠 우리도 빨리 산을 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기송선생님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더 힘껏 나팔을 부시였습니다.

(좀더 불자. … 그들이 다음령을 넘어갈 때까지…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김기송선생님은 돌격나팔을 불고 또 부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악에 받친 놈들의 총탄에 맞아 김기송선생님은 눈우에 쓰러지시였습니다.

뜨거운 피가 흘러 주변의 흰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김기송선생님은 곁에 있는 참나무를 꽉 부둥켜안으신채 서쪽산마루를 바라보시였습니다. 인민들이 한명도 보이지 않는 수림속을 바라보신 김기송선생님은 안도의 숨을 쉬며 눈우에 쓰러지시였습니다.

《기송아!》

택만이는 눈물을 삼키며 다급히 자기의 속적삼을 찢어 김기송선생님의 가슴을 싸매고는 김기송선생님을 업고 적들이 기여오르는 산릉선 반대방향으로 내달리다 양지쪽기슭에 조심히 내려놓고 애타게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도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흰눈우에 반듯이 누워있는 항일의 소년영웅 김기송선생님의 얼굴에는 임무를 수행하고 혁명군중을 구원했다는 안도의 마음이런듯 한없이 순결한 빛이 어려있었습니다.

이렇듯 불굴의 소년혁명가 김기송선생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한 아동단원답게 혁명을 위하여 짧으나 보람있는 한생을 마치고 장렬히 전사하시였습니다.

아동단원 김금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김금순은 9살을 살고 영생을 얻은 소녀였다. 9살이면 꽁다리연필처럼 짤막한 생애이다. 그러나 번개의 섬

광과도 같이 번뜩거리다가 사라진 이 어린 나이에 그는 인생이 도달할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높이에 도달하였으며 사람이 사람으로 태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산모범으로 똑똑히 가르쳐주었다. 세상에는 100살을 살 때까지 민족앞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가버린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그는 9살에 후대들의 추억속에 영생할 위훈의 창조자가 되였다.》

아동단원 김금순은 8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유격구로 들어오게 되였습니다.

혁명을 하겠다고 어린 나이에 어른들이나 신고다니는 지하족을 발에 걸치고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막대기로 덤불길을 헤치며 찾아온 금순이일행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였습니다.

《누가 너희들을 소왕청으로 보내더냐?》

《윤병도선생님이 보냈습니다.》

그들은 치마말기에 두손을 가져다붙이고 몸가짐을 가다듬으며 기운차게 대답했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얼굴과 종다리에 긁힌 자리가 여러군데 나있는 금순이의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우시여 다시금 물으시였습니다.

《먼길을 오느라고 수고했다. 큰 령이랑 많았겠는데 넘기가 힘들지 않더냐?》

《발이 부르터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데리구온 아저씨가 왕우구로 되돌아가라고 할가봐 힘들지 않은체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부모님들곁에 있으면 더 좋지 않니.》

《좋기야 좋지요 뭐. 그런데 언제 어른이 되겠나요. 어른이 되자면 고생을 많이 해봐야 한다구 아동단지도원선생님도 말씀해주셨는데… 난 고생을 많이 해서 빨리 어른이 되구싶어요.》

《어른이 그렇게 빨리 되여선 뭘하니?》

《조선을 독립해야지요. 김대장아저씨, 무슨 일이 있어두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금순이의 대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였습니다.

《응, 그건 걱정말아라. 간도에서 세손가락안에 꼽히는 재간둥이들이 굴러들어왔는데 왜 돌려보낸단 말이냐. 이제부터는 우리하고 같이 왕청에 있자. 여기서 아동단생활을 하는게 괜찮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금순이는 너무도 기뻐서 손벽을 마주쳤습니다.

금순이를 만나주신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아동단학교 아이들을 불러 그들의 생활형편을 료해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금순이의 넥타이를 만져주시며 배고프지 않느냐고 물으시였습니다.

금순이는 배고프지 않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겨울날차비에 대하여 더 물어보시고나서 아동단원들의 배낭을 하나하나 보아주시였습니다.

원래 아동단원들은 배낭속에 한주일분의 식량을 항상 가지고다니게 되여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배낭검열을 해보시니 아동단원들속에는 학교에서 내준 미시가루를 먹어버린 아이들

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순이만은 한숟갈도 다치지 않고 한주일분을 그대로 고스란히 간수하고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먹어버렸는데 우리 막내가 참 용케 참아냈구나. 금순이가 제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엄지손가락을 쳐들어보이시며 금순이를 크게 칭찬하시였습니다.

금순이는 수집은듯이 웃기만 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리였습니다.

《나두 미시가루주머니를 몇번이나 꺼냈다넣었다 했는지 몰라요. 먹고싶은걸 겨우 참았지요 뭐.》

《어떻게 참았느냐?》

《다른 애들이 미시가루를 먹을 때 난 눈을 꾹 감구있었어요. 그래두 먹구싶으면 밖으로 나가지요. 밖에 나가두 먹구싶으면 우물에 가서 물을 한드레박 마시고 오군 했어요. 그럼 미시가루를 먹은것만치나 배가 불렀거든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금순이의 류창한 대답을 듣고 다시한번 탄복하시였습니다.

금순이의 천진하고 깨끗한 대답속에는 유격구인민들이 당하고있는 어려운 생활난이 그대로 담겨져있었으며 이와 함께 그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혁명의 길을 헤쳐나가는 나어린 불사조들의 강의한 의지가 담겨져있었던것입니다.

왕청사람들은 금순이를 보고 깜장금순이라고 불렀습니다. 눈동자가 까맣다고 유격구인민들이 그런 별호를 지어 붙이였던것입니다.

금순이를 비롯한 아동단원들을 만나주신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열고뿌의 미시가루와 강냥떡을 나

누어주시고 배낭속에 성냥도 넣어주시고 며칠후에는 새 솜옷과 솜이불에 신발, 학습장, 연필까지 합치여 두 달구지나 되는 필수품들을 아동단학교에 보내주시였습니다.

어느날 박길송아동국장선생님이 아동단학교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김대장선생님께서 우리를 친자식처럼 끔찍이 사랑해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사랑을 받기만 하고 보답하지 못하고있다. 김대장선생님에게 우리의 성의를 조금이라도 표시해야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들 해보아라.》

박길송선생님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금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은 옷을 해드리자요. 대장선생님은 글쎄 추운 겨울에도 홑옷을 입고계신다지 않아요.》

박길송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순이가 방금 좋은 옷을 해드리자고 했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아동단원들은 일제히 《좋습니다!》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좋다면 됐다. 나도 금순이처럼 두툼한 옷을 해드리자고 생각했다. 천을 구해다가 부녀회원들에게 부탁하든가 재봉대에 부탁해서 멋들어지게 옷을 만들자꾸나.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할것은 천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지 않는다는것이다.》

《버섯을 뜯어다가 말려서 팔면 돼요. 버섯값이 비싸다구 했어요. 돈만 있으면 천이야 못구하겠나요.》

금순이가 또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 말했습니다.

《옳아요! 옳아요! 버섯을 뜯어다가 지주들에게 팔자요!》

다른 아동단원들도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동단원들은 박길송선생님과 함께 광주리를 들고 산으로 돌아다니였습니다.

얼마후에는 정성담아 따고딴 버섯이 돈으로 되고 옷으로 되였습니다.

금순이를 비롯한 아동단원들은 기쁨에 넘쳐 경애하는 장군님을 찾아갔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홑옷을 입고계시는 대장선생님께서 입으시라고 저희들은 옷 한벌을 지어가지고 왔습니다. 사양마시고 꼭 받아주십시오.》

금순이는 아동단경례를 맵시있게 붙이고나서 까만눈을 반짝이며 경애하는 장군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였습니다.

금순이를 비롯한 아동단원들의 지성이 오리오리 깃든 한벌의 옷을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속으로 눈물이 나시였습니다.

뜨거운 격정을 누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아동단원들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얘들아, 나는 비록 홑옷을 입고 지내지만 혈기왕성한 사람이다. 너희들의 성의는 평생 잊지 않겠다. 그러나 이 옷은 소왕청에서 년세가 제일 높은 할아버지에게 드리려고 하니 섭섭해들 말아라.》

금순이를 비롯한 모든 아동단원들이 울상이 되여 못내 서운해하였습니다. 이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두세번 더 타이르시여서야 아동단원들은 마지못해 웃음을 지었습니다.

금순이에게는 깜장금순이라는 별호말고도 마촌콩새라는 별호가 또 있었습니다.

콩새처럼 몸집이 작고 귀염성스러운 어린이라는 뜻에서

달아놓은 애칭이였습니다.

항상 명랑하고 쾌활한 금순이는 사람들이 《깜장금순이!》하고 불러도 《예!》하였고 《마촌콩새!》하고 불러도 《예!》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별호를 열번이상 들어도 절대로 노여움을 타는 성미가 아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동단학교의 대렬합창에서 금순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대렬선창은 금순이가 떼군 하였는데 그날 금순이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채 타박타박 걷기만 하였습니다.

저녁무렵에야 금순이의 가족들이 적들의 《토벌》에 희생되였다는것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알게 되시였습니다.

금순이는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 무릎에 엎드려 기절할 지경으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동생도 죽었다는데 나혼자 살아서는 무엇하나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슬픔에 잠겨있는 금순이를 따뜻이 위로해주시였습니다.

《금순아, 마음을 굳게 먹어라. 네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원쑤들은 너까지도 이 세상에서 없애치우려 할것이다. 왜놈들은 지금 이 간도땅에서 조선사람들을 멸족시키려 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조선민족이 그렇게 쉽사리 놈들에게 생명을 내줄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하나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서 원쑤를 천백배로 갚아야 한다.》

금순이는 그때에야 비로소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씻으면서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원쑤를 꼭 갚겠습니다!》

그후부터 금순이는 웃음이 적고 말수더구가 적은 소녀로 변하였습니다.

금순이는 원쑤 일제놈들에 대한 복수심을 안고 아동단생활과 유희대활동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한 구국군부대에서의 공연은 금순이가 무대에 나와 연설하는것으로써 시작하였습니다. 150명에 달하는 구국군장병들은 금순이가 연설을 마치자 《밤알만한 처녀애가 어쩌면 저렇게도 말을 잘할가! 저애를 봐서라도 우리가 항일을 잘 해야겠다.》고 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금순이는 유희대활동만 잘한것이 아니라 아동단원으로서 해야 할 임무수행에서도 항상 모범적이였고 충실하였습니다.

주체23(1934)년 가을 요영구유격구에 있던 금순이는 놈들에게 학살되였다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기적같은 소문을 듣게 되였습니다.

9살난 금순이는 너무 기뻐 머리에 들국화송이들을 여러개 꽂고 요영구골안이 좁다하게 나비처럼 팔랑팔랑 날아다니였습니다.

그때 금순이네 유희대는 원정대원들을 전송하기 위한 특별공연을 하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유희대원들이 식사하고있는 집을 돌아보고 나오실 때 금순이는 먹던 음식그릇을 밀어놓고 장군님곁으로 바삐 다가가 귀속말로 소곤소곤 말씀드리였습니다.

《장군님, 우리 엄마가 살아계신대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못내 기뻐하시였습니다.

《오냐, 유격대아저씨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들 기뻐한다. 나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난 오늘 너무 기뻐서 독창을 세번이나 했어요. 그런데두 또 부르고싶었지요 뭐.》

《그럼 자꾸 부르려무나.》

금순이는 어리광이라도 부리듯이 장군님의 팔에 마구 휘감기였습니다.

《그럼 인차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구나. 네가 떠날 때 나는 너를 바래줄것 같지 못하다. 북만에 가야 하니까.》

이것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금순이에게 하신 마지막말씀이였습니다.

금순이가 유희대활동을 마치고 아동단학교로 돌아오니 조직에서는 적구에 보내는 극비문건을 전달할 련락원을 고르던중 금순이를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어린 금순이는 혁명조직이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 중요한 련락임무를 자기에게 주었다는것을 알고는 그것을 최대의 믿음으로 고맙게 받아들이였습니다.

그날 아동단원들은 동구밖까지 따라나가 금순이를 바래주었습니다.

금순이는 조직이 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한 다음 어머니가 계신다는 곳으로 발길을 돌리다가 그만 일본헌병대놈들에게 체포되였습니다. 놈들은 중요한 정보자료를 게워놓을수 있는 《새끼공산당》이 굴러들었다고 타산하면서 금순이에게서 귀맛이 당기는 정보자료들을 있는 힘껏 비틀어짜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들을 가져다놓고 달콤한 말로 그를 달래였고 다음에는 위협도 하고 고문도 하였습니다.

금순이는 항일혁명의 풍랑속에서 강철로 단련된 불굴의 어린 투사였습니다.

금순이는 놈들에게 살점이 떨어지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을 연것은 오직 놈들을 욕하고 저주할 때뿐이였습니다.

《만약 네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를 죽일것이다!》

금순이를 취조하던 헌병장교놈의 말이였습니다.

《더럽다! 너같은 강도놈들과는 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금순이의 대답이였습니다.

악착한 교형리들은 혁명군의 비밀을 불지 않는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어린 금순이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여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나어린 아동단원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가 이를 갈며 치를 떨었습니다.

사형장으로 설정된 들판은 눈물의 바다가 되였습니다.

그러나 금순이는 오히려 자기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들을 향해 이렇게 웨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 왜 우십니까. 울지들 마세요. 혁명군아저씨들이 꼭 원쑤를 쳐없앱니다.

조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굳세게 싸워주십시오!》

불을 토하는것 같은 이 최후의 웨침에는 9살밖에 되지 않는 그의 생애가 짤막하게 함축되여있었습니다.

사형장에서는 《일제놈들을 타도하자!》, 《조선혁명 만세!》를 부르짖는 금순이의 애된 목소리가 맵짜게 울리였습니다.

금순이의 최후에 대한 비통한 소식은 왕청일대의 혁

명군중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요영구골안에서는 금순이의 추도식이 엄숙히 거행되였으며 동만의 각 현에서는 격분한 수십명의 남녀청년들이 금순이의 복수를 다짐하며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였습니다.

한뽐도 채 되지 않는 자그마한 발로 사품치는 강물과 산봉우리들을 쉴새없이 넘고넘으며 혁명의 노래를 열정적으로 부르던 유격구의 종달새 금순이는 이처럼 9살나이에 세계가 다 아는 사람으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아동단원

1. 목에다 두른것은 붉은넥타이
   등에다 짐을 지고서 훈련을 나간다
   후렴: 장하다 그의 이름 아동단 아동단 아동단
   세상이 모두다 칭찬한다 아동단 아동단

2. 바지는 짧아서 무릎에 닿으나
   등에다 짐을 지고서 탐험을 떠난다
   후렴:

3. 나이는 어려서 아이지마는
   굳센 마음으로 용감히 싸운다
   후렴:

소년빨찌산 서강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42(1953)년 12월 17일 소년빨찌산 서강렴소년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서강렴동무는 어린 나이에 미국놈들과 용감히 싸워 조선소년단원의 영예를 끝까지 빛내인 소년애국자입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인 1950년 마가을 어느 음산한 아침이였습니다.

고원군 군내면 사창중학교(당시)를 다니던 서강렴은 정든 고향의 덕지강언덕에 서서 먼 부래산마루를 바라보고있었습니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가슴에 정답게 안겨오는 고향의 산이였습니다.

며칠동안 후퇴하는 대렬들로 꽉 메워져 왁작 들끓던 고원땅의 거리도 이제는 쥐죽은듯 고요하였습니다.

강렴이는 불현듯 땅우에 풀썩 주저앉으며 마른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 입으로 마구 물어뜯었습니다.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며칠째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생각하니 설음은 더욱 북받쳐올랐습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득 가슴우의 소년단넥타이가 바람에 흩날리며 뺨을 어루만져주었습니다.

강렵이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조선소년단원이 아닌가! **김일성**장군님의 소년단원이 왜 이렇게 약한 생각만 하고있을가?)

강렵이는 눈물만 흘리며 속을 태울것이 아니라 소년단원으로서 가야 할 그길을 걸어야 하겠다고 다짐하며 집으로 힘있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득 그의 귀가에는 며칠전 소년단지도원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쟁쟁히 들려오는듯 하였습니다.

《미제승냥이놈들을 쳐물리치기 전에는 우리가 다시 행복한 교실에서 공부할수 없다.

그래서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 고원땅의 로동당원들과 민청원들은 손에 총을 잡고 싸우기로 결심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원땅에도 유격대가 조직된다.

인민군대아저씨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유격대는 고향땅을 지켜싸울것이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이 있는 한 미제승냥이놈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소멸되고야말것이다.》

강렵이의 아버지는 고원군 군내면 사창리의 당세포위원장이였습니다.

놈들은 매일 달려들어 아버지가 아직 안돌아왔는가고 따지며 행패질을 하였습니다.

어느날 밤 아버지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강렵이가 함께 외가로 피신가라며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렵아, 우리는 싸운다. 로동당원들은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싸움의 길에 나섰다. 우리 로

동당원들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 모든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 **김일성**장군님과 그이께서 창건해주시고 친히 이끌어주시는 당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우는것보다 더 큰 영예, 더 큰 행복은 없다. 그러니 너도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답게, **김일성**장군님의 소년단원답게 똑바로 살아야 한다.》

아버지는 강렴이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이 **김일성**장군님을 위하여 싸운것처럼 우리 로동당원들도 이 준엄한 시각에 장군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련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미제승냥이놈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미국놈들이 우리의 행복을 짓밟고 우리를 제놈들의 노예로 삼고 우리 나라를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자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이것을 용서할수 있겠니?》

아버지가 유격대에서 싸운다는 이야기는 강렴이에게 새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강렴이는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받들고 눈보라를 헤치며 용감히 싸운 항일유격대원들과 아동단원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조국이 시련을 겪고있는 준엄한 시기에 나도 항일아동단원들처럼 싸우리라 결심하며 강렴이는 투쟁의 길에 나섰습니다.

키도 작고 얼굴도 갸름하고 귀엽게만 보이는 강렴이였지만 원쑤에 대한 증오로 이글거리는 눈길로 자기의 정든 집을 한번 돌아본 다음 마당을 나섰습니다.

외가집이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올랐던 강렴이는 며칠후에 첫 임

무를 받고 다시 고향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첫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강렴이에게 유격대지휘관은 앞으로도 조선소년단원의 영예를 잊지 말고 용감히 싸워야 한다고 힘있게 고무해주며 두번째 임무를 주었습니다.

두번째 임무를 받은 강렴은 우선 나어린 소년애국자들과 함께 유격대에서 보내온 삐라를 고원읍거리의 골목골목에 뿌렸습니다.

그들이 뿌리는 삐라에는 이런 글발들이 씌여있었습니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영웅적조선인민군 만세!》, 《원쑤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공화국기발은 다시 우리들의 머리우에 휘날린다!》, 《미제승냥이놈들에게 백배천배의 복수의 죽음을 주자!》

인민들은 이 삐라를 보고 힘을 얻고 승리의 신심을 가지게 되였으며 원쑤놈들은 겁을 먹고 제멋대로 날치지 못하게 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린 애국자들의 용감한 투쟁에 대한 이야기는 인민들속에 널리 퍼지게 되였으며 그들은 인민유격대 대원들속에서도 커다란 자랑으로 되여 높이 떠받들리우게 되였습니다.

어느날 밤 소년들은 원쑤놈들이 차지하고있는 그전날 군당청사의 옥상우에 공화국기발을 꽂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적들이 욱실거리는 거리의 중심에 있는 건물에 공화국기발을 꽂는것은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더욱 높여주고 원쑤놈들에게는 더 큰 공포를 안겨줄수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고향땅 하늘높이 공화국기를 힘있게 날리는 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영원히 존재하며 그 어떤 원쑤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고향땅 하늘높이 공화국기발이 펄펄 휘날리자 온 거리는 환희로 들끓었습니다.

인민들은 람홍색공화국기를 바라보며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새삼스럽게 느끼였고 그것을 지켜나갈 결심을 굳건히 다지였습니다.

적구에서 이처럼 용감하게 투쟁하고있는 소년들에게 유격근거지로부터 기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기다리고기다리던 우리의 인민군대가 남으로 재진격을 개시하였다는 소식이였습니다.

어린 애국자들은 투쟁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갔습니다.

강렵이는 그이후 동무들과 함께 인민의 원쑤들을 처단하였고 놈들의 집 대문짝에는 경고문을 크게 써붙이였습니다.

그러나 투쟁이 순탄하게만 흘러간것은 아니였습니다.

원쑤놈들에게 공포와 죽음을 안기며 용감히 투쟁하던 강렵이는 그만 덕지교에서 원쑤놈들에게 체포되게 되였습니다.

계급적원쑤들은 그의 아버지가 《빨갱이》라고 하면서 강렵이를 미국놈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미제승냥이놈들은 나어린 강렵이에게 첫날부터 고문을 들이대였습니다.

채찍과 몽둥이찜질 그리고 전기고문… 그의 몸에서는 검붉은 피가 쉬임없이 흘러내렸고 눈보라가 고문실안에까지 휘몰아쳐 온몸은 돌처럼 얼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고문은 계속되였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오늘 그것을 대지 않으면 너를 죽일테다. …》

《나는 공화국에서 지금 살고있다!》

《공화국? 공화국이 어디냐?》

《제일 높은 산이다!》

《제일 높은 산은 어디냐?》

《백두산이다! 조선사람들모두의 가슴속에는 백두산이 새겨져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요 건방진 놈의 새끼… 요 빨갱이놈의 새끼…》

《그렇다. 나는 빨갱이다. 빨갱이가 얼마나 위대하며 아름다운가를 너희들은 알게 될것이다!》

《연설은 집어치워! 그래 빨찌산이 어데 있으며 얼마나 되는가? 어떤 무기를 쓰고있는가? 그것만 대면 당장 놓아주마.》

《그건 비밀이다!》

다시 무서운 고문이 시작되였습니다.

련일 계속되는 고문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미제승냥이놈들은 덕지강기슭으로 강렵이를 끌어냈습니다.

세찬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나무가지들도 몸부림치는 스산한 아침이였습니다.

아침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어린 애국자는 웨쳤습니다.

《개놈들아! 나는 오늘 죽는다. 그러나 이 땅에는 네놈들의 가슴팍에 복수의 총창을 꽂을 수천수만의 영웅적인민이 있다. 그 선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서계신다. 조선로동당이 있다. …》

요란한 총성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덕지강 얼음장우로 붉은피가 기폭처럼 서서히 퍼져갔습니다. 쓰러졌던 강렴이는 온몸의 힘을 모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저는 갑니다. 장군님, **김일성**장군님, 나는 조선소년단원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강렴이는 이렇게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꽃나이생명을 서슴없이 바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어머니조국은 자기의 장한 아들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소년빨찌산의 노래

1. 산에 들에 꽃이 피여 종달새 노래하던
나서자란 우리들의 마을을 보아라
깊은밤 어둠속에 신음소리 흐른다
아 나어린 심장에 붉은피는 끓어
나섰다 싸움의 길로 고향을 위하여

2. 푸른 언덕 올라서서 배움에 즐겁던
자랑스런 우리들의 학교를 보아라
타다남은 담벽에 동무의 피 어려있다
아 나어린 가슴에 증오의 불은 일어
나섰다 복수의 길로 동무를 위하여

3. 하늘 푸르고 시내 맑은 우리 조국땅에서

피에 주린 침략자 모조리 쳐부시자
부모형제 피자국은 우릴 보고 웨친다
아 나어린 어깨에 복수의 총을 메고
나섰다 승리의 길로 조국을 위하여

고향산천을 사랑한 리창도

애국심은 자기가 사는 고향산천이 제일이라는 마음을 지니고 아름답게 꾸려나가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자그마한 행동에서부터 표현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이고 온 나라를 숲이 우거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한대의 나무라도 더 심고 아끼고 가꾸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량강도 풍서군 신명중학교(당시) 분단위원장인 창도는 나무가 많은 두메산골에서 살았지만 무성하게 우거진 푸른 숲을 무심히 대하지 않았으며 한그루의 나무도 조국의 귀중한 한 부분으로 보고 잘 가꾸었습니다.

그는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라고 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기고 분단동무들이 한포기의 풀, 한그루의 나무라도 아끼고 사랑하도록 하였으며 고향산천을 꾸려나가는데서 언제나 모범이 되게 하였습니다.

한번은 창도가 공부를 마치고 동무들과 함께 마을로 돌

아오다가 땔나무를 한짐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한 할아버지를 보게 되였습니다.

동무들과 함께 그 할아버지에게 달려간 창도는 나무짐을 받아들고 묶어놓은 나무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큰 나무를 집어든 창도는 할아버지에게 이런 나무로는 책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아쉬운 심정으로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도의 말에 아무 생각없이 책상뿐아니라 잘 켜기만 하면 양복장도 만들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창도는 할아버지에게 그런 귀중한 나무를 왜 땔나무로 쓰는가고 물었습니다.

나무가 흔한 고장이여서 아무 나무나 다 땔감으로 가져오군 하던 할아버지는 그제야 창도의 물음에 비낀 큰뜻을 느끼였습니다.

창도는 할아버지에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량강도를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여 경제건설에 많이 쓰는 나무를 잘 가꿀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내용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언제나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만 살려는 창도를 감동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한대의 나무라도 조국의 귀중한 재부로 생각한 창도였기에 학교가 새로 일떠섰을 때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 주변에 매지나무를 정성껏 심고 가꾸었으며 어느해 장마철에는 떠내려가는 어린 나무모들을 지키기 위해 억수로 퍼붓는 비바람속에서 2시간동안이나 전투를 벌려 끝내 나무모가 한대도 상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창도는 또한 분단동무들이 뜨거운 향토애를 지니고 자

기가 사는 마을과 거리, 학교를 잘 꾸리고 언제나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도록 늘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이렇듯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대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만 살아온 창도는 주체59(1970)년 5월 따스한 봄별이 내려쪼이던 어느날 오전공부를 끝내고 동무들과 함께 샘물터에 모여앉아 점심을 먹고있었습니다.

창도는 식사를 하면서 동무들과 같이 다음날에 떠나기로 계획한 등산야영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푸른 숲이 우거진 고향의 산발들을 이윽토록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는 우리 고향산천보다 아름다운 곳은 없을거야. 아버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해마다 봄, 가을이면 나무를 많이 심고 정성다해 가꾸었기때문에 더 정이 드는것 같애.》

아름다운 고향에 대한 긍지감이 넘쳐있는 동무들에게 창도는 조국을 받드는 마음을 안고 고향의 산들을 보물산으로 더 잘 가꾸어가자고 호소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산불이다!》하고 웨쳤습니다.

창도와 그의 동무들은 후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가까운 앞산숲속에 흰 연기가 피여오르는것이 보였습니다.

더 생각할 사이도 없이 창도는 동무들과 함께 산으로 냅다 달리였습니다.

그들이 나무가 빼곡이 들어찬 경사심한 산중턱에 다달으니 산불은 퍼그나 번져가고있었습니다.

창도는 동무들과 함께 웃옷을 벗어들고 불길을 후려치기도 하고 불찌가 튀여나는 곳을 발로 비벼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은 불길을 점점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재빨리 정황을 판단한 창도는 동무들에게 빨리 산우로 10m 올라가서 불막이선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동무들이 산릉선에 올라가 불막이선을 치려고 다급히 서둘렀으나 불길은 사정없이 그들을 향해 무섭게 돌진해왔습니다. 이제는 불막이선도 소용이 없다는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 순간 창도의 머리속에는 한가지 생각이 피뜩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잔디밭에 불이 붙었을 때 뒹굴면 인차 꺼지군 하던 현상이였습니다.

창도는 동무들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뒹굴라! 우리가 줄을 지어 뒹굴면 불을 빨리 끌수 있어.》

창도가 먼저 사나운 불길 한복판에 뛰여들어 몸을 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동무들도 주저없이 뛰여들어 뒹굴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숨을 콱콱 막았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옷과 신발이 타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눈섭과 머리칼까지 타들어왔으나 그들은 모든것을 참고 자꾸만 굴고 또 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나라의 귀중한 산림을 빨리 구원해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뿐이였습니다.

11명 소년단원들의 필사적인 투쟁에 의하여 기승을 부

리던 불길은 어느덧 수그러들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는 바싹 마른 락엽이 두텁게 쌓여있었는데 바람에 날려온 불찌가 새로운 불길을 일으켰던것입니다.

불길은 마치 화약을 만난듯 무섭게 사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불길을 보는 순간 창도의 얼굴에는 비장한 각오가 어리였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항일의 피어린 투쟁으로 찾아주시고 그처럼 귀중히 여기시는 조국의 푸른 숲을 목숨으로 구원하리라, 조국을 위해 한목숨 바치리라고 생각한 창도는 《동무들, 조국을 위하여 아동단원들처럼 한목숨 바치자!》라고 웨치며 무섭게 번져가는 불길을 맞받아 산아래로 굴러내려갔습니다.

그뒤를 따라 남동무들도 육탄이 되여 굴러내려갔습니다.

녀동무들은 서로 어깨를 겯고 몸으로 큰 불더미들을 덮었습니다. 산불과 싸우는 그들의 팔과 다리, 얼굴은 심한 화상으로 말이 아니였습니다.

산불과 결사전을 벌리고있는 때에 창도는 《오빠야, 철옥이와 경화가 없어.》 하는 녀동생의 안타까운 웨침소리를 들었습니다.

허나 창도는 이미 몸을 가눔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심한 화상으로 의식이 가물가물 흐려지고있었던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어린 동무들을 불속에 그냥 둘수도 없는 일이였습니다.

창도가 불속을 헤치며 기다싶이하여 한곳에 다가가보니 거기에는 어린 두 동무가 불무지를 덮은채 쓰러져있었습니다.

창도는 그들을 안아 량팔에 한명씩 낀 다음 최후의 힘을 다하여 불속을 간신히 헤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쓰러지고말았습니다.

얼마후 마을사람들이 산중턱으로 달려올라와 그를 안아 일으켰으나 그는 종시 눈을 뜨지 못하였습니다.

그처럼 정열적이고 꿈도 희망도 많았던 그는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구원하기 위해 꽃다운 나이를 서슴없이 바쳤던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60(1971)년 5월 중순 청년동맹의 한 일군으로부터 풍서군 신명중학교(당시) 분단위원장이였던 리창도동무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그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영웅보다 더 높은 칭호를 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나라에는 아직 그런 칭호가 없다고 하시면서 조국을 위하여 아동단원들처럼 한목숨 바치자고 웨치며 불더미를 몸으로 덮어 끈것도 영웅적이고 불길속에 뛰여들어 어린 동무들을 업고 나온것도 영웅적입니다, 산림 몇정보를 구원한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이 귀중한것입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리창도동무에게 공화국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였습니다.

나어린 소년단원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한 사실

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되는 일이였습니다.

본받아요 소년영웅 그 모범

…
우리 가꾼 푸른 숲 찾아가며는
나무마다 설레며 이야기해요
푸른 숲 구원하고 한목숨 다 바친
소년영웅 리창도 잊지 말라고
아 이야기해요

5점꽃을 피우며 공부할 때도
그 언제나 못잊을 소년영웅들
빛나는 그 모범 모두 따르며
영웅으로 우리는 자라나지요
아 자라나지요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품속에서 혁명가로 자라난 소년영웅들이 지녔던 혁명정신은 오늘 우리 소년단원들에 의하여 대를 이어 계승되여 더욱 활짝 꽃피고있습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소년영웅들의 그 모범을 따라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의 참된 소년근위대로,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는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더욱 억세게 자라나야 할것입니다.

4.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학습이 첫째

우리는 학생입니다.

학생의 첫째가는 임무는 학습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습은 소년단원들의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우리는 왜 소년단원이 되였습니까.

앞날의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가 되기 위해 소년단원이 되였습니다.

훌륭한 혁명가가 되려면 지식의 탑을 쌓아야 합니다.

지식은 광명이요, 무식은 암흑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앞이 캄캄하여 어둠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모르고서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지식의 등불이 밝히는 길을 따라 자신만만하게 전진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거나 어렴풋하게밖에 보이지 않아 주춤주춤하면서 인생의 길을 제

대로 걸어나가지 못합니다.

지식!

지식은 어려서부터 쌓아야 합니다.

우리 소년단시절은 바로 지식의 탑을 쌓는 시절입니다.

지식의 탑을 쌓는 학생시절에는 소학교, 중학교시절도 있고 대학, 전문학교시절도 있습니다.

이 나날에 우리의 소년단시절과 청년동맹시절이 흘러갑니다.

이러한 배움의 시절들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소년단시절입니다.

우리의 소년단시절은 지식의 기초를 다지는 시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식을 쌓는 학생시절중에서도 우리 소년단시절의 귀중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년단시절을 놓쳐버리면, 소년단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식의 기초를 든든히 다질수 없습니다.

든든하지 못한 기초우에 큰 집을 지을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단조직은 어렸을 때 앞으로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올릴수 있는 기초를 든든히 다지라고 학습을 첫째가는 임무로 내세우는것입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매일 학교에 들어서는 첫순간에 눈에 띄우는 큼직한 구호를 보게 됩니다.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이 구호는 우리의 가슴속에 조선을 빛내여갈 앞날의 주인공이 되자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자각을 깊이 심어줍니다.

학교에 들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쿵— 울려줍니다.
우리는 오늘 학교에 무엇을 위하여 왔는가.
우리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내 나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거연히 솟아오르는 선군조선의 미래를 위하여, 내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해나가는 믿음직한 역군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울 결심을 안고 매일 학교로 온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목적입니다.
목적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잘될수 없습니다.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는 바로 우리의 학습목적을 밝혀주고있습니다.
오늘 온 나라 학교들에 빛나는 이 구호는 바로 아버지장군님께서 내놓으신 구호입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소년단시절에 이 구호를 내놓으시였습니다.
이 구호에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와 같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였는가 하는것이 그대로 어리여 빛나고있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주체42(1953)년 1월 어느날 분단총회에서 연설하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연설에서 오늘 분단총회에서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는 구호를 제시한다고 하시면서 이 구호에는 우리모두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고 조선혁명에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소유하여 나라의 참된 역군이 되자는 뜻이 담겨져있다고 열정에 넘쳐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12살의 어리신 나이에 제 나라를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지 3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모든 소년단원들이 30년전 대원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높은 뜻을 가슴에 새기고 조선의 참된 역군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나가자고 호소하시였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

소년단조직생활을 하며 우리는 이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주체42(1953)년 11월 12일 오후였습니다.

운동장에 나선 아래학년의 한 학생이 가방에서 큼직한 사과 두알을 꺼내여 동무들에게 자랑하며 사과를 크게 만들고싶으면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싶으면 작게 만들며 더 맛있게 만들고싶으면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의 주위에 몰켜섰던 아이들은 저저마다 엉터리라느니, 요술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못한다느니, 거름을 많이 주면 커질수도 있다느니 하면서 옥신각신하였습니다.

이때 아버지장군님께서 다가오시여 무슨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씨름을 하느냐고 다정히 물으시였습니다.

학생들은 저저마다 방금 싱갱이질을 하던 문제를 말씀올리며 사과를 마음먹은대로 만들수 있다는것이 사실인가고 물었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그에 대한 대답으

로 세계적으로 이름난 한 식물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시였습니다.

…

외국의 그 식물학자는 어린시절부터 과수원을 몹시 사랑하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과수원에서 일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무척 공부하고싶었지만 돈이 없어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과수원에서 일하게 되였습니다.

학교에는 다닐수 없었으나 그는 불타는 탐구심을 가지고 더운 지방의 과일나무를 추운 지방에서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지방의 종자와 과일나무모들을 얻어다 과수원에 심고 정성다해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지대가 춥다나니 모두 얼어죽고말았습니다.

맥을 놓지 않고 연구사업을 계속하여 제일 크고 훌륭한 열매를 따서 그것을 종자로 과일나무를 가꾸었지만 거기에 달린 사과는 이전 사과나무에 달린것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실패하자 마을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바보》,《미치광이》라고 부르며 무엇때문에 저렇게 애를 쓴담, 그 일이 도대체 누구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자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북방품종에 남방품종을 섞붙임하여 끝내 새로운 품종의 과일을 만들어냈습니다.

10년후에 나무에서 첫 열매가 달리자 그는 만족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하여 수많은 품종을 새로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이 과정에 얻어낸것이 그 학자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과인데 그 사과는 열매가 크고 맛이 좋으며 나무는 추운 지방에서도 얼어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의 전생애를 과수업발전에 바쳤습니다.

…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높은 과학지식과 기술을 소유하려면 어려서부터 피타는 노력으로 열심히 공부하여야 하며 모두가 우리 나라를 살기 좋은 락원으로 꽃피워나가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가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이처럼 하나의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학생들의 가슴가슴에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에 대하여 깊이 심어주시였습니다.

지금은 21세기, 과학기술의 시대입니다.

지식전, 두뇌전의 시대입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지식전의 시대에 맞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지식을 사랑하고 지식의 넓고 깊은 세계에 푹 잠기도록 하기 위한 경쟁이 일고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이 경쟁의 앞장에 우리 선군조선의 소년단원들이 서있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이 세계의 앞장에 섰다고 생각하니 공부가 막 신바람납니다.

공부하는것이 즐겁지 않으면 공부한다고 할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높은 학습열의를 소유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무엇이나 일단 파고들면 끝장을 볼 때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차례차례 하나하나 점령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높은 고지도 드디여 점령되여 자신의 소유물로 될것입니다.

단편소설 《바람개비》에서 나오는 솔직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때는 주인공이 중학교 1학년, 전후복구건설이 한창이던 그때였습니다.

공부가 끝나기바쁘게 딱친구인 강영수와 주인공은 자주 공원풀밭에 나가 굴렁쇠를 가지고 놀군 하였답니다.

그러다 강건너 료양소에 료양을 온 한 아저씨와 알게 되였답니다.

아저씨는 굴렁쇠를 가지고 노는 그들에게 놀음을 놀아도 머리가 트고 지혜가 자라는 그런 놀음을 놀라며 참대비행기감을 그들에게 주었답니다.

참대비행기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조립을 하였는데도 비행기는 잘 날지 않았답니다.

주인공은 방게잡이나 하자며 아저씨가 준 과제를 집어치웠으나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다음날 그들은 아저씨를 찾아갔답니다.

주인공은 아저씨를 만나는 순간 골살을 찌프리며 다른 놀이감을 달라고 했답니다.

아저씨는 첫 실패에 물러서서 의지가 약해져 한걸음 한걸음 후퇴하면 영원히 전진할수 없다며 오직 전진만을 생각하라고 깨우쳐주었습니다.

이때 영수는 도톰한 입술을 삐죽 내밀며 바람개비만 다

른것으로 교체하면 씽씽 날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연구과제로 주겠으니 잘 생각해보라고 했답니다.

허나 아무리 신고해도 비행기는 잘 날지 않았답니다.

주인공은 괜히 생고생을 한다며 아예 집어치웠으나 영수는 지꿎게 계속 달라붙었답니다. 드디여 성공의 날이 왔답니다.

영수는 이 소식을 아저씨에게 알려주고싶었답니다. 주산알을 끼워넣으면 바람개비가 잘 돈다는 내용을 말입니다.

료양소를 찾아간 영수는 아저씨는 만나지 못하고 그가 놀이감공장에 다닌다는 소식만을 안고왔습니다. 그래 편지를 띄웠으나 보름이 지나도 영 무소식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주인공은 울상이 되여온 영수의 손에서 편지봉투를 받아보았습니다.

아저씨의 편지가 아니라 그의 아들의 편지였습니다.

…

아버지는 소학교 교원이였다는것, 전선에서 부상당하여 교단에 설수 없게 되자 놀이감공장 완구준비실에서 후대교육에 모든것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는것, 새로운 완구설계가 떠오르자 그것을 생산에 물리자고 공장에 왔다가 그만…

주인공은 더는 읽을수가 없었습니다.

영수가 마지막으로 아저씨가 남기고간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이 이제 큰일을 하자면 막히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란다. 그때마다 그렇게 머리를 쓰고 연

구를 해야 한다. 그러는데서 지식이 늘고 의지가 강해진단다. 그 지식과 의지는 힘이 된다. 그 힘으로 바람개비를 순간도 멈추지 말고 희망을 향해 줄기차게 날려야 한다!

바람개비가 멎으면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단다. 너희들이 제자리걸음을 하면 조국의 전진이 그만큼 떠진다는것을 명심해라. …》

그날 그들은 물리소조에 들었답니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영수는 헛눈 한번 팔지 않고 꾸준히 정신을 쏟아부어 솜씨전람회에서 1등을 하였고 이제는 머리가 허옇게 된 로공학박사가 되였답니다.

허나 주인공은 놀음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여 아저씨의 과제를 아예 집어던지고야말았답니다.

사회에 진출하여서도 전공학과도 없지, 학창시절에 생긴 꼬리가 좀해서 떨어지지 않아 여러번 직종을 바꾸어 생활하는 결과를 빚어냈답니다.

귀밑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이 주인공이 어린 독자들에게 자기가 걸어온 길을 즐겁게 들려주지 못하고 괴롭게 추억하는것은 무엇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심하긴 쉬워도 실천하기 어렵다, 실패앞에서 뉘우치는것도 필요하나 뉘우침에서 찾은 교훈과 결심을 실천하는것이 더 중요하다, 실천이란 완강한 의지와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그 바람개비와 같이 순간도 멈추지 말고 쉽없이 그리고 억세게 돌고돌아야 한다는것을 자기의 교훈적인 이야기로, 우리 소년단원들이 자기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솔직한 고백을 하였던것입니다.

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한갖 단편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로 여기여서는 안됩니다.

나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던가. 선생님이 내준 숙제, 과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은적이 몇번 있었으며 그 과제를 어김없이 끝까지 풀기 위해 자신들이 새운 밤은 그 몇밤이고 보낸 시간은 결코 몇시간인가를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소년단원동무들!

우리앞에 배움의 꽃대문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우리의 소년단원들이 공부를 잘하라고 계속 떠밀어줍니다.

공부를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온 나라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라고 모든것을 아낌없이 보장해주고있습니다.

온 나라의 관심속에 기쁨넘쳐, 희망에 넘쳐 즐겁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세상에 우리 조선소년단원들뿐일것입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대오속에 학습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운 우리 나어린 소년단원들이 서있습니다.

세계를 딛고 오르는 우리 조국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의 소년단조직이 학습열풍에 휩싸여있습니다.

5점꽃

소년단원동무들, 동무들은 5점꽃속에 방긋 웃고있겠지요.

5점꽃이 많은 동무도 있고 5점꽃이 딱 한송이밖에 없는 동무도 있습니다.

예? 동무는 5점꽃이 몇개라구요?

알겠습니다.

혹시 5점꽃을 한번도 피워보지 못한 동무도 있는지.

5점꽃을 아직 피워보지 못한 동무가 있다해도 맥을 놓지 마세요. 꾸준히 노력하면 될것입니다.

아직 동무의 꽃씨앗이 5점꽃으로 피여나려면 정성을 더 기울여야 하는가봐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머리는 좋고 나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사람마다 결심하는 정도가 다르고 학습방법이 다르기때문에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을 공부하여도 학습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동무는 학습장에 갈매기가 훨훨 날아다녀 속상하고 오리가 박박거려 누가 학습장을 볼가봐 덮어놓기만 합니다.

속상한 마음,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분발해야 합니다.

학습장의 갈매기와 오리를 다 쫓아버리고말테다.

생각은 이렇게 단단히 했습니다. 창피를 벗어던지기 위해서.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안돼요.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놀고싶을 때 놀지 말고 애써 공부해보세요.

5점꽃속에 있는 공부 잘하는 동무들을 보세요. 어떻게 공부하나.

열심히 공부합니다.

갈매기와 오리풍년을 맞이한 동무도 분발할 결심을 했으니 도와주세요.

5점꽃이 피여나지 않아 속상해하는 동무들을 도와주세요.

놀려주거나 흉보지 말고.

너랑나랑 서로 도와 다같이 공부 잘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 분단 모든 동무들이 5점꽃속에 묻히면 최우등분단이 될것입니다.

5점꽃은 저절로 피여나지 않습니다.

5점꽃, 그것은 마음의 꽃이랍니다.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굳건하면 꼭 피워낼수 있습니다. 마음먹기탓입니다.

5점꽃만 피우는 동무들 말해보세요.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였지요.

어떤 땐 졸음이 눈섭에 대롱대롱 매달리는것도 참고 그 졸음을 다 물리치고 공부한 밤도 있고 또 송골송골 땀방울이 돋아나도록 낑낑 애쓴 때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기에 막힘없이 사각사각 글줄이 씌여지는것입니다.

5점꽃을 피우려면 45분수업규률을 잘 지키고 복습도 잘하고 예습도 잘해야 한답니다.

어느 하나라도 잘 안하면 5점꽃을 피울수 없답니다. 학습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혁명적학습기풍으로 학습열의가 높고 해야 한다는 각오정신은 좋으나 수업시간에만 공부를 하고 복습과 예습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낮은 학년에서는 그럭저럭 배워주는 내용을 따라갈수 있지만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우는 내용이 리해하기 힘들고 나중에는 학습하기 싫어집니다.

참, 동무들은 학교생활과정에 흔히 복습, 예습, 숙제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어떤 때에는 복습이라고 하면서 과제를 주고 어떤 때에는 숙제라고 하면서 과제를 주고 또 《예습해오십시오.》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자주 듣군 하는데 동무들은 복습, 예습, 숙제를 정확히 가려볼수 있습니까?

우리 잘 모르는 동무들을 위해 새겨봅시다.

우선 예습이라고 할 때에는 미리 익혀둔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배워야 할 내용을 미리 익혀가지고 45분수업에 참가하여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 듣는 과정에 미리 익혔던것들중에서 잘못 리해하였거나 새로 알게 되는것, 또 자그마한 범위에서 익혔던것을 더 큰 범위에서 알게 되는 등 새로운것을 알게 됩니다.

일찌기 백두밀림에서 일제강도놈들을 쳐부시는 총소리를 들으시며 자라나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미제와 판가리싸움을 벌리는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밤마다 등불을 켜놓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였습니다. 손수 짜놓으신 학

습일과표대로 복습과 예습도 하고 숙제도 하시였습니다.
어느날 한 일군이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 아버지장군님께 건강이 걱정되여 어서 주무셔야겠다고 말씀올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깊은 밤에도 미국놈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전선을 지휘하고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일찌기 잘수 있겠습니까, 나도 아버님처럼 훌륭한 일군이 되라고 하신 어머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그날 배운것은 언제나 그날로 알고 넘어가시였으며 다음날 배울 문제까지도 미리 학습하여 환히 꿰드시였습니다.
하여 다른 아이들이 며칠이 걸려서야 학습할 내용을 단 몇시간동안에 익히군 하시였답니다.
예습을 하면 배울 때에도 재미있고 선생님이 배워주는 수업내용을 그대로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예습하지 않고 45분수업에 참가하면 쉽게 리해할수 있는 문제도 힘들어지고 또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도 못찾게 됩니다.
예습하면서 모를 문제 즉 소수점 하나, 문장부호 하나라도 따로 적어넣었다가 45분수업시간에 선생님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날 배운것은 100% 알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우주비행사가 유인우주비행에서 성공한 기쁨을 안고 기지로 돌아오고있던중 갑자기 기관고장으로

하여 자기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순간과 접하게 되였답니다.

이제 10분이면 자기는 이 세상밖의 사람이라는것을 알게 된 그는 사랑하는 안해와 어머니, 딸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고 그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허나 그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송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있는 전국의 학생동무들에게 남기고싶은 말이 있다.

어린 학생동무들, 공부를 할 때 문장부호 하나하나, 소수점 한개한개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오늘 ××에서 발생한 사고는 발사장에서 비행선을 검사할 때 하나의 미세한 결함을 스쳐보낸 결과 발생한것입니다. 돌이킬수 없는 비극들은 극히 작은 실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것을 전국의 어린 동무들, 가슴깊이 새겨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미세한 결함을 스쳐보낸 자기의 실수를 늦게나마 뉘우치며 사랑하는 부모처자보다 앞날의 조국을 위해 《과학 만세!》, 《조국 만세!》를 불렀던것입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의 세부를 소홀히 하고 하나의 물음표를 소홀히 하면 어떤 결과가 차례지는가를 잘 알고 예습에 힘을 넣고 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되겠다는 굳은 각오와 비상한 열성으로 예습을 잘해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복습이라고 할 때에는 다시 익힌다는 뜻으로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학습하는것입니다.

45분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잊지 않는 사람이란 거의 없기때문에 복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45분수업시간에는 알것 같다가도 2～3일만 지나면 배울

때만큼 알수 없게 됩니다.

허나 배운 내용을 그날로 복습하면 그것은 그대로 자기의 지식으로 되여 공고화되게 됩니다.

복습을 한번 즉 그날만 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다시 복습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에 다니실 때 늘 자그마한 수첩을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시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학생은 그 수첩이 뚜껑에 보풀이 인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가지고다니시는것 같아 그것이 무슨 수첩인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호기심에 가득찬 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이 수첩은 내가 참고할것을 적어넣는 수첩이다, 나는 이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기도 하고 산수문제풀이도 해보군 한단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할 때 의문되는것이나 꼭 새겨두어야 할것도 적어넣군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은 그 수첩을 받아들고 한장한장 번져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첩의 첫장 웃부분에는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자!》**라는 구호가 곱게 씌여져있었고 다음장들에는 시구절들, 뜻풀이, 력사상식, 수학문제풀이공식, 우리 나라의 강과 산들의 이름,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과 같은 흥미있고 알아야 할 여러가지 내용들이 씌여져있었습니다.

그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수첩이 학습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나는 이 수첩을 학원에 오기 전부터 리용하는데 짬이 있을 때마다 펼쳐보군 한다고 하시

면서 학습을 많이 하자면 정해진 수업시간이나 복습시간뿐아니라 여가시간을 잘 리용해야 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공부를 잘하자면 우선 공부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들으면서 그 시간에 배운 내용은 그 시간에 머리속에 넣는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배운것을 자주 응용해보면서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어야 해. 지금 어떤 동무들이 학습하는것을 보면 학습장에 써넣기만 하면 자기 지식이 다된것처럼 생각하는데 학습장에 자꾸 써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배운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자면 무슨 문제든지 리치적으로 아는것이 중요하다고, 리치를 모르면 자기의 산지식으로 만들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공부를 잘해나가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은 아버지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면서 꼭 그렇게 공부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그이후에도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늘 작은 수첩을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면서 자주 꺼내보군 하시였습니다.

여기에 복습을 왜 해야 하는가 하는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유명한 인물은 어렸을 때 비상한 속도로 숙제를 해치우군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그의 아버지는 자주 놀라군 하였습니다.

책을 펼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담겨있는 페지도 조금도 주저없이 한번 슬쩍 읽어보는것으로 넘어가는것이였습니다.

(확실히 저애는 남다른 천재적기억력을 가지고있구나!)

하고 그의 아버지는 생각하였습니다.

이렇듯 그의 기억력은 참말로 비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기억력이 비상한때문만이 아니였음을 그후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알게 되였답니다.

그가 수업중에 남다른 주의력을 집중한다는것,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거의 수업중에 기억하고 넘어가며 집에서는 교실에서 설명한것을 한번 상기만 한다는것이였습니다.

그후 그의 학습에서 특징적인것은 학습장이나 책의 여백에다 그때그때 떠오르거나 의견이 있는것들을 간단히 적어넣으면서 반복하여 익혀나가는 진지한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붉은 연필로, 다음은 푸른 연필로 중요하다는 대목마다에 밑줄을 그어나가며 주의력을 집중하였으므로 그의 학습장이나 읽은 책은 글간격이 거의 없는것이였습니다.

후에 그는 자주 《반복은 학습의 어머니이다.》라고 말하면서 집중력과 반복하여 익히는 진지한 노력이 없이 그 많은것들을 다 기억하겠다는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노릇이라고 사람들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복습할 때 배운것을 한번 읽어보는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단어 하나, 술어 하나라도 따지고 파고들면서 모르는것이 있으면 간단히 적어놓거나 사전이나 참고서를 보아서라도 제때에 알고 넘어가야 그것이 그대로 지식으로 공고화되여 잊어버리지도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습과 복습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숙제란 무엇일가요?

옳습니다.

예습과 복습으로 주는 과제랍니다.

숙제를 어김없이 해오는것은 학생의 초보적인 의무입니다.

하고싶으면 하고 말면 마는게 숙제가 아닙니다.

숙제란 그날 배운것을 그날로 완전히 익히기 위한 중요한 과제랍니다.

그러므로 숙제는 제힘으로 그날 배운것을 그날로 해야지만이 공고한 자기의 지식이 됩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시절에 그날 숙제는 그날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김없이 해야 한다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습니다.

주체42(1953)년 4월말 어느날에 있은 일입니다.

그날은 숙제가 많았습니다.

국어숙제만 하여도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제4장을 다 외우는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오후에는 축구경기를 하였고 밤에는 재미나는 영화까지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시간이 없어서 숙제를 못하는것은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잠자리에 눕고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장군님께서만은 숙제를 다하시기 위해 눕지 않으시고 운동장으로 나가시였습니다.

기숙사호실을 돌아보던 선생은 아버지장군님의 자리가 비여있는것을 보고 깜짝 놀라 한 학생과 함께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실이며 휴계실을 다 돌아보고 운동장으로 나온 그

들은 바깥등밀에서 공부하고계시는 아버지장군님을 보고 발자국소리를 죽여가며 곁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시를 읊고계시던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그들을 알아보시고는 반가와하시였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쉬지 않습니까?》

선생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것을 애써 참으며 그러시다가 감기에 들면 어떻게 하려고 추운데 밖에서 공부하시는가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직 숙제를 다 못했습니다. 어서 들어가 쉬십시오. 저도 인차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조용히 웃으시였답니다.

이튿날 국어시간에 선생은 숙제를 검열하였는데 시를 외우는 학생은 몇명 되지 않았습니다.

녀학생 몇명이 일어났으나 그들도 다 외우지 못했습니다.

선생은 자신있는 학생이 없는가고 물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선생님,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장군님께서 일어나시여 시를 읊으시였습니다.

초병들도 긴 하품에
눈시울 아파질무렵
빨찌산부대 깊은 잠 들다
…

그런데 한분만이 잠못들고
우등불옆에 비스듬히 앉아
밤가는줄 모르네—

이런 밤엔 그이는 책을 보았다—
…

아버지장군님께서 시를 다 읊으시자 선생은 시를 대단히 잘 읊으시였다고 하였습니다.

선생은 이날 학생들에게 아버지장군님의 모범을 따라 모든 학생들이 그날 숙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로 어김없이 해야 한다고 하였답니다.

이렇게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그날 숙제는 그날로 해야 훌륭한 소년단원이 될수 있다는 참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시였답니다.

숙제를 동무들과 모여서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서로 모르는것을 배워주고 토론도 할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토론한다고 하면서 암기한것을 졸졸 외워서는 안되고 모르면서도 머리를 끄덕끄덕하는 현상을 없애야 합니다.

모르면 알 때까지 파고들고 그 문제와 비슷한 생활, 물건 등을 례를 들어가면서 토론하여야 이미 학습한것을 공

상 식

달의 모양이 왜 달라질가요

달이 자체로 빛을 내지 못하고 해빛을 받아 되비쳐지는 부분만 우리 눈에 보이기때문입니다.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거의 같으므로 지구에서

고화할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지 않았다거나 학교에서 배워서 안다고 하여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매일 꼭꼭 학습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동무들!

동무들은 예습과 복습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옳바른 건물을 일떠세울수 있듯이, 뿌리가 든든해야 억센 나무로 자라날수 있듯이 예습과 복습을 매일 꼭꼭 진행하여 자기의것으로 만들 때만이 우리는 아버지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강성대국건설에 실지 써먹을수 있는 자신의 지식의 탑을 한계단한계단 쌓아나갈수 있습니다.

숙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내는 습관을 붙입시다.

자기의 힘으로 하나의 문제를 풀었을 때 동무들은 최우등으로 오르는 한단한단의 주추돌을 쌓았다는 기쁨, 한송이한송이 고운 5점꽃을 피웠다는 기쁨을 느끼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5점꽃이 계속계속 피여날것입니다.

나의 학습장에도, 너의 학습장에도…

달의 뒤면을 볼수 없기때문에 우리는 달의 한쪽면만을 보게 됩니다.

달은 초생달, 초생반달, 둥근달, 그믐반달, 그믐쪼각달, 그믐달을 거쳐 보이지 않다가 다시 초생달로 됩니다.

달의 모양이 달라져서 다시 제 모양이 될 때까지는 29.5일이 걸립니다.

글　　씨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글씨를 씁니다.

너도나도 곱게 앉아 또박또박 씁니다.

그런데 저기 앉아있는 저 동무!

왜 저렇게 글을 쓸가요?

감탕판에 찍혀진 오리발자국같이 글을 마구 씁니다.

곁의 동무들이 보는데도 가리우지 않고 냅다 써나갑니다.

동무들이 소곤소곤 물어보는데도 뒤에서 범이 따라오는지 부리나케 써갈겨나갑니다.

참, 한심하지요.

너도나도 한자한자 곱게 쓰는데 글씨를 마구 쓰는 저 동무가 말이예요.

우린 함께 글씨를 곱게 써야 해요. 글씨를 마구 쓰는 저 동무도 함께 말이예요.

소년단시절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곁에 앉은 동무의 국어학습장을 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글씨를 좀 곱게 써버릇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씨를 곱게 써버릇해야 이다음에 커서도 글씨를 잘 쓸수 있습니다.

글씨를 잘 쓰는가 못쓰는가 하는것은 손재간에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어릴적부터 마음먹고 곱게 써버릇하면 누구든지 글씨를 곱게 쓸수 있습니다.

우리는 글씨를 곱게 써야 합니다.

글자크기가 하나같고 글자들이 똑바로 정결하게 써야 합니다.

어떤 동무들은 이렇게 쓸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구 씁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앞으로 공부를 잘하여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의 편지를 올리자고 해도 글씨가 고르지 못한 편지를 어떻게 올릴수 있겠습니까.

어릴적부터 고운 마음을 먹고 한획한획, 한자한자 써버릇하면 능히 글씨를 곱게 쓸수 있습니다.

달랑달랑 토끼가방 메고다니던 승국이가 어깨에 파란 멜가방을 멘 어엿한 학생이 되여 아버지장군님께 기쁨드린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집안에서 막내동이로, 장난꾸러기로 애먹던 승국이가 아버지장군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학교에서 공부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습니다.

얼마후에는 공부도 잘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다며 선생님은 누구나가 다 앉아보고싶어하는 그 자리, 아버지장군님께서 앉아보신 자리에 승국이를 앉혀주었답니다.

아버지도 칭찬, 어머니도 칭찬, 잔등에 손가락총을 쏴주던 누나도 칭찬 또 칭찬을 해주었답니다.

장난꾸러기, 애꾸러기가 이젠 아니라고 말이예요.

승국이는 으쓱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칭찬해주니 말이예요.

그럴수록 어린 마음에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학교에 또 오시였으면, 그럼 참 좋겠는데 하는 엉뚱한 생각이.

그러던 어느날 엉뚱한 생각이 도수를 넘게 되였습니다.

승국이는 옆방에 있는 누나에게 뽀르르 달려갔습니다.

《누나, 나 편지쓸래.》

《편지? 누구한테?》

《음… 아버지장군님께!》

순간 누나는 눈이 올롱해지더니 조금후에는 웃음을 쏟아놓았습니다.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그래 편지를 쓰면 뭐라고 쓰겠는가 하면서 말이예요.

말을 받아주는 누나를 보며 승국이는 사기가 나서 동무들이 부러워하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앉아보신 자리에서 공부하게 된거랑, 장군님을 뵙고싶다는거랑, 꼭 학교에 오시였으면 좋겠다는거랑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누나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호호, 넌 엉터리야. 글씨두 삐뚤삐뚤하게 쓰면서.》

그 말에 승국이의 입이 꼭 다물어졌습니다.

(맞아. 선생님도 내가 글씨련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셨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아버지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부터 무슨 말씨름들을 하는가고 말이예요.

누나는 아버지장군님께 편지를 쓰겠다는 승국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승국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더니 생각은 기

특한데 공부도 글씨공부도 부지런히 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승국의 마음속엔 콩알만 하던 편지생각이 자꾸만 커졌답니다.

알사탕만큼, 사과만큼, 아니 참외, 수박만큼 그이상으로 커졌답니다.

편지생각이 클수록 승국의 학습성적은 더욱더 높아졌고 글씨련습을 부지런히 한 그의 글씨는 다람다람 줄지어선 고운 글씨로 되였답니다.

승국이는 아버지장군님께 편지를 올렸답니다.

한획한획, 한자한자 정성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곱게곱게 쓴 승국의 편지를 보아주시고 천진란만한 동심을 펼쳐놓은것을 보니 마음이 즐거워지고 새힘이 솟는다 하시며 회답서한도 보내주시였답니다.

그렇습니다.

글씨는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달라붙었는가에 따라 글씨를 잘 쓸수 있고 못쓸수 있는것입니다.

소년단원동무들!

우리는 자기들이 한자한자 쓰는 고운 글씨에 아버지장군님께 바치는 충실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비껴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찌그러진 글자, 삐뚤어진 글자에는 충실성이, 조국애가 있을수 없습니다.

충실성이 높을수록, 조국애가 뜨거울수록 우리들의 글씨는 더더욱 고와질것입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지으신 시

우리의 수령

나는요 오늘도 생각했지요
거룩하신 원수님을 생각했지요
어쩌면 그렇게 용감하실가요
백두산줄기 타고 눈보라 휘날려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우셨답니다

나는요 어제저녁 보았답니다
원수님이 심으신 두그루 나무
4월에도 아담한 원수님의 배움터
그렇대요 그 집은 력사의 집이래요
원수님이 다니시던 배움터예요

나는요 어제저녁 귀담아 들었어요
인민을 싸움에로 불러일으켜
조국을 찾기 위해 싸우신 이야기
조국을 빼앗긴 원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가요

나는요 지금도 배우고있지요
아버지원수님을 본받으려고

오늘도 래일도 배우고배워
위대하신 원수님을 배워갈래요

나는요 지금도 다짐을 하지요
온갖 원쑤들 모두 물리치고
인민의 행복 찾기 위하여
힘차게 끝까지 싸워갈래요

원수님 높은 뜻 받들고받들어
나라의 기둥으로 자라날래요

돌부처는 왜 징검다리가 되였나

이렇게 물으면 소년단원동무들은 무엇무엇때문이라고 말은 다 합니다.

말은 잘하지만 실천하기는 힘들어합니다.

다시말해서 리론은 다 머리속에 있지만 현실에 나가 그것을 써먹을 때에는 그렇게 잘 알던 모든것 즉 머리속에 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장군님께서 몸소 들려주신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먼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큰 절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절간에 돌부처가 살고있었는데 그는 하는일없이 늘 불경만 외웠습니다.

돌부처는 해솟는 아침부터 별이 뜨는 저녁까지 잠시

도 그치지 않고 불경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불경을 얼마나 외웠던지 돌부처는 베개통만한 불경책을 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 글자 한자 안틀리고 뜬금으로 뜨르르 외울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부터 돌부처는 책장을 번지기가 시끄러워 두 눈을 딱 감고앉아 외운것을 중얼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절간에서는 돌부처의 불경 외우는 소리가 비오는 날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절간앞산 숲속에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사는 여러 짐승들이 흥겹게 일하며 노래부르는 소리가 돌부처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돌부처는 버럭 화를 내면서 무식한것들, 남이 불경을 외우는데 노래를 부르다니, 경만 잘 외우면 소원이 다 이루어질텐데 저렇게 땀흘리며 일할게 뭔가고 하며 눈을 지르르 감은채 또 불경을 외워댔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돌부처가 올방자를 틀고 앉아있는 바로 그 돌방석밑에 둥지를 틀고사는 부덕쥐가 새끼들과 함께 기여나와 제단우에 차려놓은 불공음식을 훔쳐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부덕쥐는 원래 산아래마을에서 살다가 절간에 먹을것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전에 새끼들을 거느리고 이사왔습니다.

부덕쥐는 돌부처가 아는것이 많고 못부리는 조화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때문에 처음엔 그를 몹시 어려워하였습니다.

그래 새끼들에게 부처님앞에서 절대로 경망하게 놀지 말라고 소곤소곤 타일러주고 행동도 몹시 조심스럽게 하

였습니다.

그러나 새끼쥐들은 큰쥐의 말을 듣지 않고 찍찍, 짹짹하며 감히 부처님앞에서 장난을 하는가 하면 지어는 무릎우에 기여올라가 오줌똥까지 쌌습니다.

그런데도 돌부처는 불경을 외우느라고 이런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야 큰쥐도 마음을 놓고 새끼쥐들과 함께 제단에 가득 차려놓은 불공음식을 배불리 훔쳐먹고 나머지는 몽땅 제 굴로 날라갔습니다.

이렇게 한달 지나고 두달이 지나자 큰쥐는 점점 배심이 커져서 정신없이 불경만 외워대는 돌부처를 한번 건드려볼 생각이 났습니다.

부덕쥐는 처마끝으로 빠르르 올라가 돌부처가 어쩌나 보려고 추녀에 매달린 풍경 하나를 떼내여 그의 앞에다가 살짝 떨구었습니다.

풍경은 퇴마루돌에 부딪치자 딸랑딸랑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였습니다.

그런데도 돌부처는 들었는지말았는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부덕쥐는 부처가 혹시 귀가 먼것이 아닌가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생각다못해 부덕쥐는 돌부처의 무릎우에 올라가 큰소리로 부처님, 부처님 하고 부르면서 풍경이 떨어졌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돌부처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덕쥐는 돌부처어깨우에 기여올라가 두발을 번디디고 서서 귀에 대고 처마밑에 풍경이 떨어졌다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돌부처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돌부처는 자기 어깨우에 기여올라온 쥐를 보고 천하에 버르장머리없는 놈이라고 하면서 노발대발하였습니다.

그바람에 부덕쥐는 돌부처의 어깨에서 떨어졌습니다.

돌부처는 부덕쥐에게 경은 외우지 않고 이게 무슨짓이냐, 념불할줄도 모르는 무지한 건달군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자기 굴에 들어가 숨으려고 달아나던 부덕쥐는 걸음을 멈추고 홱 돌아서더니 난딱 앞발을 허리에 짚고 일어나 이 절간에 풍경이 없으면 무슨 꼴이 되겠는가, 그래도 이 절간에서 일하는거야 자기밖에 더 있는가고 종알댔습니다.

부덕쥐는 불공음식을 훔쳐먹는것도 일이라고 생각했던것입니다.

하긴 가만 앉아서 불경만 외우는 돌부처보다는 부덕쥐가 퍽 부지런한 축이였습니다.

부덕쥐가 사라지자 돌부처는 정말 절간에 풍경이 없으면 안되겠는데 어떻게 저 풍경을 매달아놓겠는가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불경을 외우는것밖에 모르는 돌부처는 어떻게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웅장한 대웅전 추녀 한귀에서 풍경이 떨어졌으니 다시 올라붙게 해주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경을 외우며 빌기 시작하였습니다.

큰쥐는 정말 풍경이 저절로 다시 올라가붙나 해서 지켜보았습니다. 돌부처가 아무리 경을 외워도 풍경은 까딱않고 그자리에 그냥 놓여있었습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돌부처는 풍경이 추녀끝에 올

라붙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으나 풍경은 그냥 그자리에 놓여있었습니다.

굴안에 들어앉아 돌부처가 불경 외우는 모양을 내다보고 있던 부덕쥐는 아무래도 안되겠다고 생각했던지 가만히 풍경을 입에 물고 올라가 다시 추녀끝에 매달아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에 달랑달랑하고 아름다운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돌부처는 처마를 올려다보고 눈이 휘둥그래지더니 두손을 하늘에 대고 맞비비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소이다, 고맙소이다, 아미타불께서 베푸신 그 은혜 망극망극하오이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돌부처는 어찌나 좋았던지 움쭉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간만에 절간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절간앞 밤나무그늘밑에서는 때마침 일하던 짐승들이 쉬고있었습니다.

돌부처는 짐승들에게 임자네들도 힘들게 일을 하지 말고 경을 외우라, 그러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극락세계에 갈수 있다고 하면서 념불을 외웠더니 떨어졌던 풍경이 방금 다시 처마에 올라가붙었다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돌부처는 여느때없이 몹시 기분이 좋아서 저것 보게, 저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는가고 너스레를 피웠습니다.

짐승들은 이상하다는듯 서로 마주보며 눈을 껌벅거렸습니다.

이때 노루가 자기네는 밭갈고 씨뿌리고 열매를 거둬들이는것이 소원이니 부처님이나 경을 외워 극락세계에 가서 잘사시라고 하였습니다.

돌부처는 일하는게 소원이라니 무식한것들은 할수 없군,

일만 하며 고생하다가 죽을 팔자를 타고난것들이니 별수 없다고 비웃으면서 절간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뒤 돌부처는 더 극성스럽게 경을 외웠습니다.

그럴수록 절간안은 쥐들의 세상이 되고 마당엔 풀들이 돋아 무릎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마밑에선 거미들이 서로 승벽내기로 얼기설기 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착한 짐승들이 여름내 땀흘리며 가꾼 보람으로 앞산에선 산열매들의 향긋한 냄새가 물씬물씬 풍겨왔습니다.

념불로 세월을 보내던 돌부처는 과일향기를 맡자 저도모르게 머리를 번쩍 들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산은 온통 울긋불긋 단풍이 들었는데 뒤뜰안의 돌배나무는 금시 떨어질듯 열매가 주렁진 가지를 내리드리우고 바람에 오락가락 그네를 뛰였습니다.

돌부처는 절간문을 열고보니 단풍이 들어 가을인줄 아노라고 흥에 겨워 중얼거렸습니다.

돌부처는 머리우에 드리운 돌배가 먹고싶었습니다. 언젠가 제단앞에 놓여있던 돌배를 먹어본 생각이 나서 군침까지 꿀꺽 삼키였습니다.

돌부처는 두눈을 감고앉아 심산속에 홀로 사는 이 외로운 놈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돌배알을 내앞에 떨구어주옵소서 하고 또 념불을 외워댔습니다.

이때 마침 소슬바람에 무르익은 돌배들이 후두두 떨어졌습니다. 진한 향기가 풍기여 눈을 번쩍 뜬 돌부처는 자기앞에 돌배가 한바가지나 떨어진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어쩔줄 몰라하였습니다.

경만 외우면 그 어떤 소원도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돌

부처는 더 극성스레 불경을 외웠습니다.

중얼중얼 경을 외우는 속에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꽃피는 봄이 오더니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되였습니다.

돌부처는 연신 목으로 흘러내리는 땀을 씻으며 열심히 경을 외웠습니다.

이때 갑자기 어디선가 탁탁 나무타는 소리와 함께 숨막힐듯한 매캐한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돌부처는 벌떡 일어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앞산 고목이 벼락을 맞아 숲에서 불이 일어났는데 삼단같은 불길이 널름거리며 절간을 향해 다가오고있었습니다.

돌부처는 덴겁을 하여 뛰쳐일어나 절간밖으로 나오면서 불이야, 불이야 하고 고래고래 소리질렀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쩔쩔매며 돌아가던 돌부처는 불을 꺼주옵소서, 꺼주옵소서, 요망한 마귀의 장난으로 대웅전이 타오니 대자대비하신 아미타불께서 구원해주옵소서 하고 념불을 외우며 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마침 멀리 일하러 갔던 짐승들이 달려와 개울과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불을 끄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길이 잦아들자 눈을 번쩍 뜬 돌부처는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살펴보았습니다.

짐승들이 물을 길어다가 불을 죽이는것을 보고 돌부처는 물이 불을 죽이누나 하고는 눈이 퀭해서 그자리에 굳어진듯 꼼짝하지 않고 서있었습니다.

돌부처는 물로 불을 끄는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도 신기해서 멍하니 바라보며 옳거니, 책에 씌여있기를 수화상극이라 했겠다, 물과 불은 서로 반대란 말이지라고 중얼

거렸습니다.

돌부처는 토끼가 길어온 물을 가져다 자기가 직접 불길에 끼얹어보았습니다.

칙칙하며 불이 단번에 꺼졌습니다.

돌부처는 볼수록 신기하여 수화상극이라, 수화상극이라 하고 자꾸만 중얼거렸습니다.

귀밝은 토끼가 이 말을 듣고 모여선 짐승들에게 자기만 아는체 하면서 념불만 외우더니 실은 제가 바보였다고 한마디 하였습니다.

짐승들은 모두 입을 싸쥐고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돌부처는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살펴보았습니다. 불길은 절간을 절반나마 태워버렸습니다.

돌부처는 불에 타서 기둥만이 앙상하게 서있는 한쪽 절반을 보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돌부처는 자기가 념불을 외웠더니 아미타불님께서 노루와 토끼, 너구리들에게 불을 끄게 해주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입이 닳도록 또 나무아미타불만 외워댔습니다. 돌부처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소이다, 고맙소이다, 떨어졌던 풍경도 달아주시고 불까지 꺼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소이다, 자비하신 아미타불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망극망극하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짐승들은 너무나 기가 차서 아무말도 못하였습니다.

돌부처가 불경만 외우더니 아주 미쳐버린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념불소리를 듣고 부덕쥐는 혼자소리로 돌부처가 밤낮 념불만 외우면서 저 혼자 안다고 하더니 저렇게야 바볼가, 불공음식이라도 얻어먹기에 그러지 그렇지만 않

다면야 왼눈으로도 안볼테다, 내가 아무리 못났기로서니 미물같은 돌부처보다야 못하겠는가고 중얼거렸습니다.

부덕쥐는 그때부터 돌부처를 몹시 깔보게 되였습니다.

돌부처는 자기가 불경을 더 극성스럽게 외웠더라면 절간을 하나도 태우지 않았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후부터 골짜기가 울리게 목이 쉬도록 더 소리를 높여 념불을 외워댔습니다.

그러는 사이 달이 가고 해가 바뀌더니 어느덧 세월은 퍼그나 흘렀습니다. 울긋불긋 고운 단청을 했던 절간은 불에 타서 볼품이 없게 되고 마당에 돋았던 풀은 길길이 자라 퇴마루까지 덮어버렸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텅빈 절간같았습니다.

돌부처는 절간이 불에 타는 바람에 얼이 나갔던지 그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뜩이나 게으른 돌부처는 병까지 들자 오금쓰기가 싫어져서 세면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돌부처의 얼굴엔 때가 끼다못해 이끼가 덮이였습니다.

지어는 벌레들이 돌부처의 귀와 눈과 코에 둥지를 틀고 알을 쓸었습니다.

그러나 돌부처는 념불만 외우면서 극락세계로 갈 얼빠진 생각을 하였습니다.

병이 점점 심해진 돌부처는 끙끙 앓음소리를 내였습니다.

돌부처의 신음소리를 듣고 돌방석밑에 사는 부덕쥐가 수염을 쪼빗거리며 달려나왔습니다.

돌부처가 잘못되면 자기네 숱한 식솔이 큰일난다고 생각한 부덕쥐는 돌부처에게 어디가 아파 그러는가고 제

법 걱정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부처는 열이 너무 올라 대답도 못하고 헛소리를 쳤습니다. 그 헛소리 역시 념불이였습니다.

부덕쥐는 돌부처의 어깨우로 기여올라가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이마가 불덩어리같았습니다.

부덕쥐는 에크하고 발이라도 덴것처럼 흠칫 놀라더니 뽀르르 기여내려와 소문난 의사인 령너머 사슴한테로 찾아가 부처님이 몹시 앓는데 좀 가봐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슴이 달려와보니 정말 심하게 앓고있었습니다.

사슴은 여기저기 맥을 짚어보고나서 가만히 앉아 오금을 쓰지 않고 념불만 외우더니 골병이 들었는데 이젠 병이 심해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부덕쥐는 그럼 우리 부처님을 구원할수 없단 말인가, 그게 무슨 끔찍한 말씀인가고 눈물을 똘랑똘랑 떨구며 어떻게 해서라도 병이 낫게 해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부덕쥐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사슴은 한참 생각하더니 저기 북쪽 산발을 타고 열두고개를 넘으면 구름우에 높이 솟은 눈산이 있는데 그 바위츠렁에는 1년내내 고드름이 달려있다, 그걸 가져다가 찜질을 하면 단박에 나을게라고 처방을 대주었습니다.

사슴이 가자 부덕쥐는 돌부처를 흔들며 고드름을 따다 찜질을 하면 병이 낫는다는데 어서 고드름을 따오라고 안타깝게 소리쳤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던 돌부처는 얼음찜질을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앉으며 그래도 부덕쥐가 자기를 생각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부덕쥐는 어서 고드름을 따다 치료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돌부처는 자기가 어떻게 고드름을 따온다고 그러는가, 념불만 외우면 다된다고 하고는 무더운 여름에 고드름이 달리게 해달라고 또 념불을 외웠습니다.
그러는 사이 돌부처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날 돌부처는 념불을 외우다가 끝내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말았습니다.
부덕쥐와 그 식솔들이 오구구 달려나와 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돌부처를 흔들어깨우며 울고불고하였습니다.
부덕쥐는 안달이 나서 어쩔줄 몰라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먼곳에 고드름을 따러 가기도 싫었습니다.
할수없이 부덕쥐는 제가 돌부처처럼 념불을 외워보았습니다. 부덕쥐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병을 낫게 해주옵소서, 고드름이 절간처마에 달리게 해주옵소서, 부처님의 병을 낫게 해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부덕쥐는 새끼쥐들과 함께 앞발을 싹싹 비비며 애걸복걸하여보았습니다.
그러나 고드름도 달리지 않았고 돌부처가 움쩍않고 가만히 누워있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이마가 싸늘하게 식어있었습니다.
부덕쥐는 그사이 열이 내렸는가고 머리를 기웃거리며 돌부처의 입과 코에 앞발을 가져다 대보았습니다. 조금도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덕쥐는 부처님이 돌아가셨다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

였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누워있던 돌부처가 움쭉거렸습니다.

부덕쥐는 새끼들과 함께 돌부처의 얼굴에 기여올라가 귀에다 대고 부처님, 돌부처님 하면서 애타게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 소리에 돌부처는 겨우 눈을 뜨더니 내 죽는다고 슬퍼말아, 난 극락세계로 간다라고 한마디하고는 영영 숨을 거두고말았습니다.

부덕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숨을 거두면서도 념불을 외운덕에 극락세계로 간다고 생각하는 돌부처를 보니 서글픈 웃음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부덕쥐의 눈에선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불공음식을 더는 얻어먹지 못하게 되였으니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흘리는 눈물이였습니다.

부덕쥐가 아무리아무리 가슴을 치며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고 곡을 하였으나 돌부처의 입은 더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후 돌부처가 어떻게 되였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듣는 말에는 어느해인가 큰물에 사태가 져서 타다남은 절간은 몽땅 허물어지고 돌부처는 개울까지 밀려내려와 징검다리가 되였다고 합니다.

절간에서 더는 살수 없게 된 부덕쥐는 새끼들을 거느리고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부덕쥐는 징검다리가 된 돌부처를 딛고 개울을 건너 이사를 가면서 절간에서 념불만 외울 땐 바보같더니 그런대로 돌다리로는 괜찮군 하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책을 들여다보는 동무들속에도 돌부처와 같

이 졸졸 외우는 동무들이 있을겁니다.

어떤 동무들은 수업시간에 배워주는 물리, 화학공식은 곧잘 외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라고 하면 곧잘 외우던 동무들도 한동안 어리둥절해있다가 해내는 동무가 있는가하면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동무가 있습니다.

소년단원동무들, 동무들은 결코 글뒤주가 되여서는 안됩니다.

참, 동무들은 글뒤주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저기서 머리를 긁적거리고있는 동무를 위해서, 알수 없다는듯 기웃기웃거리고있는 동무를 위해서 한번 되새겨봅시다.

원래 뒤주라고 하면 옷이나 곡식 같은것을 넣어두는 궤를 말합니다.

글뒤주라는것은 책을 읽어 머리속에 지식은 많이 넣었는데 그것을 써먹을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웃어주었던 돌부처가 바로 글뒤주입니다.

졸졸졸 앉아서 외우기만 하고 현실을 잘 모르는 그런 글뒤주!

우리는 결코 글을 보관하는 뒤주가 되여서는 안됩니다.

혁명과 건설 즉 아버지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그길에서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책상에만 마주앉아서는 안됩니다.

답사, 견학을 자주 조직하여 공장, 기업소, 건설장에도 나가보고 농촌과 명승지들에도 가보아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에 가서는 어느 한 공정도 놓치지 말고 모든 생산공정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거나 앞으로 배울 수학, 물리, 화학의 기초적인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술을 발전시켜 생산을 늘이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군 합니다.

건설장에 나가보아야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는 참된 역군으로 자라날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자란 학생들은 농촌에 나가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밀과 보리를 갈라볼수 있고 락화생이 나무가지에 달리는 열매가 아니라는것도 알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학생들은 농촌으로, 농촌에서 자란 학생들은 도시에로, 동해에서 서해, 서해에서 동해로 엇바꾸어가면서 답사, 견학, 수학려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험, 실습도 자주 조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숭엄하게 앉아 책만 보던 돌부처처럼 징검다리신세는 될래야 될수 없게 됩니다.

소년단원동무들, 우리모두 현실속에 깊이 들어갑시다.

속 담

-부지런한 농사군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

논밭을 직심스레 가꾸면 나쁜 땅도 좋은 땅으로 만들어 많은 소출을 낼수 있으므로 부지런히 학습하면 성공할수 있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남의 말을 되받아 졸졸 외우는 앵무새가 아니라, 현실을 모르는 돌부처가 아니라 강성대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해나갑시다.

말없는 스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책을 많이 읽지 않고서는 자연과 사회에 대하여 잘 알수 없으며 미래에 대한 포부와 희망도 크게 가질수 없습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어려서부터 책읽기에 버릇되여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할수 있고 또 앞날에 대한 포부도 가질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자신을 위한 량식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먹을 량식이 없으면 험난한 길을 헤쳐나갈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풍부한 지식이 없으면 발전하는 현시대에 따라설수 없으며 마지막에는 포부와 희망도 가질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면서 그림책이나 만화책, 소설책이나 읽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정치도서들은 전혀 읽지 않는 즉 흥미본위적으로, 심심풀이로 책을 읽는 소년단원들이 우리들속

에 더러 있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10대에 정치, 군사, 경제, 문학예술은 물론 기계공학, 우주학 등 자연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 대한 책들을 탐독하시여 막히는데가 없으시였으며 그것도 전문가들이 무색해질 지경으로 완벽한것이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의 독서범위와 속도, 실력은 오직 신비하다는 말로밖에는 표현할수 없습니다.

어느날 학생들이 전쟁과 예술에 대한 문제를 두고 론쟁을 벌린적이 있었습니다.

제나름의 해석을 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대교향악을 련상해보라고 하시면서 교향악은 서로 다른 여러가지 악기들의 조화로운 연주로 이루어진다, 이때 많은 악기들중에서 어느 한 악기가 한음만 잘못내도 안되는것이다, 고도의 조직성과 정밀성, 섬세한 조화, 최대의 정력과 긴장, 이 모든것이 집대성되여 하나의 음악을 이루는것이다, 전쟁도 마찬가지이다, 전쟁에서는 모든것 즉 인적, 물적력량이 고도로 집대성되는것이다, 여기에는 치밀하게 째인 전략과 전술이 적용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 등이 다 동원되여 그 어느 하나도 빈틈없이 섬세하고 정밀하게 맞물려야 한다, 만약 어느 한 고리만 튀여도 전쟁에서 패할수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전쟁을 예술이라고 하는것이다, 여기로부터 군사예술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것이라고 명철한 해명을 주시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장군님께서 지니신 군사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에 대한 자그마한 실례에 불과합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보여주신 혁명적인 독서기풍을 따

라배워 소년단원들이 장자산학습터에로의 독서행군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진행하고있습니다.

장자산학습터에로의 독서행군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 학습방법을 따라배워 학생청소년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함으로써 어려서부터 책읽는 습관을 붙여주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대중독서운동입니다.

소년단원들은 독서기풍은 학교에서부터 세워야 한다고 하신 아버지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독서행군의 목적과 단계별로 읽어야 할 책, 형식과 방법 등 독서행군계획을 세워놓고 매일 10～20페지, 1년에 3 000～5 000페지이상의 책을 읽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고 있습니다.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독서기풍을 세워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무들속에서는 환경과 조건을 따져가면서 다방면적으로 책을 읽지 않아 골탕먹는 경우도 있답니다.

여기서 우리 소년단원동무들에게 교훈을 주는 《달님의 답안》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철님이와 달님이는 한날한시에 태여난 쌍둥이형제랍니다.

철님이는 오빠, 달님이는 동생.

학교적으로 소문난 최우등생인 그들은 며칠이면 군에서 진행하는 알아맞추기경연에 나가게 된답니다.

그래 마당에 앉아 철님이는 책을 보고 달님이는 선생님이 써준 그 많은 답안을 졸졸 외운답니다.

철님이는 앵무새처럼 졸졸 외우는 달님이에게 충고를 준

답니다.

다른 참고서적들을 좀 보라고 말이예요.

허나 달님이는 막무가내였답니다.

선생님이 써준 답안이면 그만이니까요.

드디여 군적인 경연을 며칠 앞두고 학교에서 마지막 경연을 진행하였답니다.

두개 조로 나누어 진행하는 경연은 정말 치렬한 공격전이였답니다.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며 두 조의 점수가 서로 같아지고말았답니다.

그런데 이런…

신통히도 처녀애들 조에서는 달님이가, 총각애들 조에서는 철님이가 남게 되였답니다.

심사원선생님의 부름에 철님이가 먼저 무대에 올라갔답니다.

철님이는 두 문제를 잘 대답하여 10점에 보충질문까지 손시늉을 해가면서 많은 실례를 들어 잘 대답하여 12점을 받고 내려왔답니다.

좌석에 앉아있던 아이들은 철님이의 그 행동에 재미있다고 박수까지 짜락짜락 쳐주었답니다.

달님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언제 저 많은 책을 읽었을가? 아니, 저렇게 언제 다 외웠을가? 아니야, 오빤 머리가 원래 좋았지 하며 새삼스레 놀란 눈으로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리달님.》하는 선생님의 부름소리가 강당안에 조용히 울렸어요.

달님이는 자신있게 무대에 올라가 두 문제를 다 대답했

습니다.

처녀애들은 너무 좋아 《야!》하고 발까지 동동 굴렀어요.

다음은 보충질문이였어요.

남학생 한명이 일어나 달님이에게 비는 어떻게 내리는가를 대답하라고 야무지게 말했답니다.

순간 달님이의 눈앞에는 《알아맞추기》책을 보던 오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분명 그 책에 비에 대해서 있었던것 같은데 왜 책을 읽지 않았을가 하는 후회가 머리속에서 맴돌았답니다.

달님이의 입이 좀처럼 열릴줄 모르자 심사원선생님이 재촉했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앉아있던 처녀애들이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달님이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리고는 어물어물하며 자기도모르게 툭 내쏘았어요.

《구름은 비에서 내립니다.》

《와하하하－》

갑자기 웃음소리가 온 강당안에 터져올랐답니다.

아차! 이게 무슨 망신이람. 구름이 비에서 내리다니…

달님이는 얼굴을 감싸쥐였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 그안으로 막 들어가고싶었답니다.

최우등생이라고 우쭐대던 자신이 오늘은 정말 민망스러웠답니다.

어떻게 학교정문을 나서서 집으로 들어섰는지도 몰랐답니다.

뒤따라 들어서던 철님이가 한마디 내뱉았어요.

《집안망신만 시키면서…》

책을 읽지 않던 달님이를 꾸짖는 말이였어요.

방안에 오도카니 앉아있는 달님이의 눈앞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경연장면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어요.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달님이는 저도모르게 책상우에서 《독서일지》라고 쓴 책을 집어들었어요.

책을 펼친 달님이의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거기에는 오빠가 지금까지 읽은 책제목과 페지수, 간단한 내용들이 적혀있었는데 맨 뒤 석장을 내놓고 벌써 다 썼던것입니다.

아마 읽은 책이 몇천페지 잘되였을것 같았습니다.

달님이는 알았답니다.

오빠의 막힘없는 박사주머니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는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달님이는 밤늦게까지 읽었어요.

속 담

—굴으는 돌은 이끼가 안낀다.

가만히 박혀있지 않고 굴러가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뒤떨어지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병에 찬 물은 저어도 소리가 안난다.

실지로 많이 아는 사람은 아는 티를 내지 않고 겸손함을 이르는 말.

책과 함께 하늘을 훨훨 날아 달나라에로 가기도 했고 바다속에 들어가 금은보석을 보기도 하면서 말이예요.

소년단원동무들, 그후 이야기는 더 전개하지 않겠어요.

자신을 뉘우친 달님이가 경연에서 어떻게 되였겠는가 하는것은 소년단원동무들 생각에 맡겨두겠어요.

아마 달님이와 같은 경우를 당해본 소년단원동무들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예요.

달님이의 모습에서 동무들은 무엇을 느꼈는가요?

아마 소년단원동무들은 한결같이 대답할것입니다.

책은 말없는 스승이며 참된 삶의 귀중한 벗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책은 우리들의 스승이며 길동무입니다.

스승을 존경하듯이, 친구를 사랑하듯이 우리 책을 더 많이 읽읍시다.

5.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따르는 마음

《따르는 마음이 간절해 봄에도 열매가 달렸습니다.》

이 말은 모범소년단원이 된 ○○가 그 비결을 묻는 동무들에게 웃으며 던진 말이랍니다.

봄에도 열매가 달리니?

꽃이 지면 그자리에 열매가 달리는데 꽃은 봄에 피여나지 않니?

혹시 가을열매를 봄열매라고 잘못 듣지 않았을가? 봄에 꽃이 지는 식물도 있니?

이런 물음을 던지며 서로들 의아해하며 마주봅니다.

그래 동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봄열매가 틀린다구요.

동무들의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

자연계에서의 열매는 가을에 달립니다. 즉 꽃이 지면 그자리에 열매가 생기는데 가을이 되여야 열매는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봄열매라는건 어떻게 달리는걸가요?

자연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수한 열매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드는데서는 언제나 변심이 없어야 합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어릴적부터 어머니란 말과 함께 《아버지장군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장군님의 어린시절을 따라배우며 자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건강과 안녕부터, 좋은것은 먼저 웃어른들부터, 자신보다 먼저 동무부터,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어린시절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여기서 잠간 꺼꾸로 돌리신 시계바늘에 대한 아버지장군님의 어린시절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어느날 점심시간이였습니다.

며칠째 집무실에서 밤을 새우시며 일하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점심시간에 댁에 들어오시여 식사를 하신 후 너무도 피곤이 몰려와 탁상시계를 맞춰놓으시고 걸상등받이에 기대신채 잠간 쪽잠에 드시였습니다.

시간이 한초한초 사정없이 흘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으시여 아버님께서 쉬시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시였습니다.

아버님곁을 조심히 지나 책상앞으로 다가가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얼마동안 망설이다가 탁상시계를 집어드시였습니다.

어느새 종이 울릴 때가 가까와오고있었습니다.

어느 하루 편히 주무시지 못하시는 아버님, 이날 낮만이라도 조금이나마 더 쉬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이께서는 1시간나마 시계바늘을 돌려놓으시고 조용히 밖에 나오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께서 현관문을 나서시여 조용히 차에 오르시였습니다.

방에 들어오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시계바늘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간것을 보시였습니다.

이때 김정숙어머님께서 방에 들어오시여 어리신 장군님께 왜 시계바늘을 돌려놓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 물으심이 하도 엄하시여 잠시 망설이시던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아버님께서 너무 피곤해하시는것 같아 다문 한시간이라도 더 주무시도록 하기 위하여 시계바늘을 돌려놓았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리시였습니다.

뜻밖의 대답을 들으신 어머님께서는 시계바늘을 꺼꾸로 돌려놓은것이 한갖 장난이 아니라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 하신 일임을 아시고 한품에 안으시고 격정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머니가 네 마음을 몰랐구나!》

하지만 어리신 장군님의 머리속에는 여전히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휴식을 보장해드리시지 못한 안타까움이 남아있었습니다.

그후 주체43(1954)년 11월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동시 **《한초가 한시간 되여줄수 없을가》**를 지으시였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하루는 스물네시간
시간의 흐름에는
변함이 없건만

아버님 주무시는 방
책상우에 놓인 시계
무엇에 쫓기우는가
바늘은 급히도 달아나네

밤은 깊었으나 아직도
들어오시지 않는 아버님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가니
아버님 쉬실 시간
한초한초 줄어만 드는구나

안타까운 이 마음
그 누가 알아주랴
시계야 너라도 좀 더디게 가다오
아버님 쉬실 때만이라도
한초가 한시간 되여줄수 없을가…

참으로 자자구구 깊이 새길수록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동시에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절절한 마음이 비껴있는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야 합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도덕의리적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아침일찍 일어나면 잊지 않고 꼭꼭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아버지장군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는 사업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붙여야 합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 이 사업에서도 모범을 보이시였습니다.

주체43(1954)년 2월 어느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하얀 종이장을 꺼내 경애하는 원수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학생에게 보드라운 닭털에 물감을 들여 만든 자그마한 먼지털개와 빨간 비로도천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먼지닦개를 내주시며 이제부터는 이것을 가지고 원수님의 초상화를 더 밝고 깨끗하게 모시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초상화를 잘 모시는것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구나 본분으로 여기고 해야 할 영예로운 일이라고, 우리의 하루일과는 원수님의 초상화를 더 밝고 정중하게 모시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의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높은 뜻이 가득 담긴 이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분단안의 모든 동무들이 떨쳐나 이 사업에 앞장섰습니다.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활동연구실도 정중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곧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력사와 위대성, 불멸의 혁명업적, 고매한 풍모를 깊이 체득하는것으로 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아버지장군님을 따라배우는 길이며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충정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국경도시 신의주시의 세 소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충실성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주체85(1996)년 6월 22일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 가시던 아버지장군님께서는 티 한점 앉을세라 닦고 또 닦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지지도표식비앞에서 문득 차를 멈추시였습니다.

현지지도표식비앞에 놓인 한송이, 두송이 아름답고 생신한 들꽃을 꺾어만든 자그마한 꽃다발들을 눈물겹도록 바라보시던 아버지장군님께서는 표식비에 아로새겨진 현지지도날자에 눈길을 주시였습니다.

이날이 바로 44년전 주체41(1952)년 6월 22일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아버지장군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날이였습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그 누군가가 가져다놓은 꽃다발이 분명했습니다.

그 소행이 너무도 기특하고 대견하시여 한동안 꽃다발의 한송이한송이 꽃들을 일별해보시던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감동어린 목소리로 이 꽃다발에는 말그대로 진심이 어려있다고, 조직하거나 시켜서는 이렇게 못한다고 하시며 기특한 소행의 주인공들을 꼭 찾으라고 하시였습니다.

며칠만에 그 주인공들을 찾아냈는데 그들은 연하고등중학교(당시)의 11살, 9살, 8살짜리 철부지소녀들이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어린 녀학생들의 소행이 기특하다고,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

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수령결사옹위의 소년단원전형으로 내세워주신 9살난 유향림소녀의 이야기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습니다.

주체92(2003)년 2월 어느날 평양미산소학교(당시) 1학년 학생인 유향림은 자기 집에서 숙제공부를 하던 도중 집에서 불이 일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아버지장군님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시려고 책상우에 올라섰으나 키가 자라지 않자 걸상까지 올려놓고 초상화를 내리워 모포로 싼 다음 초상화를 몸으로 덮은채로 숨지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이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그를 수령결사옹위의 소년단원전형으로 내세워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하도록 하시고 그가 다니던 학교를 유향림소학교로 명명하고 학교에 나어린 그의 반신상까지 세우도록 크나큰 은정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소년단원동무들, 우리 어려서부터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아버지장군님의 참된 아들딸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선군혁명의 씩씩한 소년근위대, 소년혁명가로 억세게 자라납시다.

그러면 계절을 앞당겨 열매는 달리게 됩니다.

아버지장군님 가까이 가는 길은 더 빨라지게 됩니다.

마음속의 봄열매가 많이많이, 더 많이 달리게 서로서로 노력합시다.

모두가 모범소년단원이 됩시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지으신 동시

초 상 화

평양을 멀리 떠나
장군님 그리울 때면
하루에도 그 몇번
바라보는 초상화

오늘은 처음 보는
원수복 입으신 새 초상화
너무 기뻐 인사했더니
원수님은 환히 웃고계셔요

하루빨리 보고싶어하는
우리 마음 다 아시는듯
승리의 날은 다가왔다고
열심히 공부를 잘하래요

그 말씀 가슴에 새기노라면
척— 척— 승리의 광장에서
원수님 우러러 만세를 부를
그날에로 마음은 달려만 가요

그날에도 아버지장군님은
원수복 입고 주석단에 서시여
영웅들의 보고를 받으실거예요
인민들의 환호에 답례하실거예요

축복의 노래

어둡던 강산에 봄을 주시고
조선을 빛내신 아버지장군님
저 멀리 하늘가 포연이 서리면
인민은 안녕을 축복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아버지장군님 인민의 수령님
준엄한 전선길 안녕하심은
온 나라 가정의 행복입니다

미제를 쳐부신 영웅의 땅에
락원을 펼치실 아버지장군님
찬란한 조선의 미래를 위해
인민은 안녕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움은 어디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말도 겸손하고 례절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됨됨은 얼굴이나 외모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웃사람들을 존경하는것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사랑하는데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고상한 도덕품성을 잘 지켜야 합니다.

례절은 소년단원들의 한마디의 말과 하나의 행동, 몸가짐에서 표현됩니다.

말은 아름답게 하지만 몸가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 몸가짐은 바로하는데 웃사람이나 동생들에게 말을 고상하게 하지 못하면 총체적으로 그 소년단원은 례절이 없는 학생으로 되고맙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말과 행동, 몸가짐이 례절을 지키는데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데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 고상한 품격을 지니신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감동시키시였습니다.

사람들을 대하시면 언제나 다정하고 상냥하게 지으시는 웃음, 누구라없이 깍듯이 존대해주시는 인사말씀, 의젓하고 준수하신 몸가짐…

아버지장군님의 이러하신 품격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연히 마음이 끌리였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만경대의 리보익증조할머님께서 댁에 와 며칠간 계실 때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아침이면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시여 단정히 몸가짐을 하고 증조할머님방에 가시여 《할머님, 편히 주무시였습니까?》하고 아침인사를 드리시였습니다.

저녁에는 또 증조할머님께서 밤중에라도 물을 드실수 있게 물그릇을 가져다드리시고 《할머님, 안녕히 주무십시오.》라고 인사를 드린 후에야 잠자리에 드시였습니다.

그리고 어데 놀러 나가실 때에는 《할머님, 밖에 나가 놀다가 오겠습니다.》하고 나가군 하시였습니다.

리보익증조할머님께서는 너무도 기특하시여 《어쩌면 우리 어린 장군이 이렇게 례절바를가.》하시며 감동을 금치 못해하시였습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위인을 만나보았다는 려운형선생이나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 전통과 풍습, 례의범절을 통달하고있었다는 홍명희선생의 경우에도 아버지장군님의 정중하신 례의범절앞에서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려운형선생이 처음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저택을 방문한 날이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가방을 주십시오라고 손님에게 인사의 말씀을 건늬시고 뒤이어 곧 담배와 성냥, 재털이와 방석을 챙겨놓으시였습니다.

려운형선생은 어리신 장군님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 자기의 감동

된 마음을 이렇게 터놓았습니다.

《세상에 나서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인사는 처음 받는가봅니다. 자제분의 품격이자 장군님일가의 가풍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명희선생의 이야기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어느날 홍명희선생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저택에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날씨가 무더워 그의 이마에서는 송골송골 땀이 내솟았습니다.

이것을 보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물에 적신 수건을 접시에 받쳐 선생의 앞에 가져다놓으시고 따뜻이 인사를 하시며 부채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조용히 말씀하시였습니다.

홍명희선생은 홀린듯한 눈길로 어리신 장군님의 얌전하고 점잖은 말과 행동을 지켜보다가 김정숙어머님께 말씀드리였습니다.

《지금 제가 선경에 왔는가싶습니다.》

주체37(1948)년 주보중(항일혁명전쟁시기 동북항일련군지휘관인 중국사람)의 부인이 어린 딸과 함께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저택에 와서 여러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그들 모녀를 극진히 대해주시였습니다.

이에 탄복한 부인은 말하였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의 아드님이 다르십니다. 정성도 지극하시고 마음도 넓으시고 인정도 많으시고… 정말 어린 위인이십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저택에 찾아온 사람들이면 누구나 아버지장군님의 고결한 성품에 매혹되여 진심으로

찬탄해마지않았답니다.

꽃은 향기로 하여 더욱 아름답듯이 인간의 아름다운 향기는 례의도덕입니다.

결코 외모나 겉치레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소년단원들은 웃사람을 대할 때 인사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인사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장 초보적인 도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동방례의지국인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인사받는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전해왔습니다.

인사례절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로 하는 인사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말로 하는 인사를 인사말이라고 하고 행동으로 하는 인사를 절이라고 합니다.

인사말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와야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학교와 길거리에서 웃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영수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철남이 어머니,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친근히 인사말을 해야 합니다.

절을 잘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절은 행동으로 하는 인사이기때문에 절을 할 때에는 몸가짐과 얼굴빛을 바로가지고 머리를 가볍게 숙이면서 깍듯이 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선생님과 웃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들앞에서 례절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스승입니다.

선생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선생님의 생일날이나 설명절날에는 축하장을 보내여 기쁘게 해주어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례절있게 대하며 만날 때마다 꼭꼭 인사해야 합니다.

예술영화 《녀교원》을 보아서 알겠지만 인민군장령을 비롯한 박사들과 당일군으로 자라난 제자들이 모교에 찾아와 어제날의 학생의 자세로 자기를 배워준 선생님을 존대하며 기쁘게 해드립니다.

소년단원들은 먼 후날 어엿한 일군이 되여도 절대로 허세를 부리거나 도덕없이 행동하는 현상이 없어야 하며 자기를 배워주고 훌륭한 혁명가로 키워준 선생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을 극진히 존경하는 착한 마음씨를 지녀야 하며 그들앞에서 버릇없이 행동하지 말아야 하며 웃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형님이나 누나, 오빠, 언니들은 아버지, 어머니 다음가

속 담

—물은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

사람의 품성이 좋아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말은 넌지시 하는 말이 비싸다.

일상생활에서 해발딱하게 말하는것보다 한마디를 해도 점잖고 깊이있게 넌지시 하는 말이 더 무게가 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는 웃사람인것만큼 이들에게도 례절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거리와 마을에서 웃어른들을 만나면 깍듯이 인사를 하고 묻는 말에 례절바르게 대답해야 하며 뻐스나 렬차안에서 웃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년단원동무들!

선생님과 웃어른들을 존경하고 어린 동생들을 사랑하는 고상한 도덕품성과 아름다운 언어례절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모두 선군시대의 아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합시다.

너는 내 동무, 나는 네 동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언제나 동무들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하며 동무들사이에 서로 돕고 배우며 뒤떨어진 동무를 힘을 합쳐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직이라는 화목한 집단에 들어와 생활하는 과정에 서로 동무들과 자기 이름들을 주고받습니다.

《내 이름은 철이야. 네 이름은?》

《난 옥이야.》

이렇게 얼굴을 익히기 전에 이름을 알고 동무들의 특이

한 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철이는 쌍가매야.》
《옥이는 깜장눈이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간 친한 동무들인 혁이와 훈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조용하던 혁이네 집이 갑자기 벅적 끓었습니다.
항상 사색에 잠겨있던 아버지의 입에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하던 할머니가 암닭의 뒤를 따라가지 않나.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 할머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할머니는 네 아버지의 송아지동무가 왔다고 했습니다.
(송아지동무? 참, 별난 별명도 다 있구나. 하필 많고많은 별명중에 왜 송아지일가?)
한동안 고개를 갸웃거리던 혁이는 인차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아마 훈이가 고양이를 고와하는것처럼 저 아저씨는 송아지를 고와했을거야.)
혁이의 눈앞에는 공부도 잘하고 재담도 솜씨있게 하여 언제나 주위에 오골오골 아이들이 묻어다니는 훈이의 모습이 떠올라 그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답니다.
그런데 이런…
훈이는 시원한 포도나무그늘아래서 땀까지 바질바질 흘리면서 낮잠을 자고있었습니다.
옆에는 노란 눈알을 대굴대굴 굴리는 고양이를 보초 세

워놓고.

맹랑하게 고양이쪽을 쳐다보던 혁이의 눈이 갑자기 반짝 빛났습니다.

동무들에게 재미있게 이야기해주던 그 《봉이 김선달》 책이 눈에 띄였던것입니다.

그래 살금살금 다가가 책을 뽑는데 그만 가방속에 있던 필갑이 묻어올라와 떨꺽소리를 내며 떨어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쿠, 들켰구나.)

혁이는 고양이옆에 온몸을 납죽이 붙이였습니다.

《음… 누구야?》

아닐세라 훈이의 잠기에 젖은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혁이는 얼결에 대답했습니다.

《나야— 고양이야.》

《으—응, 고양—이…》

다시 훈이의 쿨쿨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혁이는 후— 하고 한숨을 내쉬고 대문밖으로 뺑소니를 쳤습니다.

조금만 어물대다가는 훈이가 《엉? 고양이가 말을 하다니—》 하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날수 있으니까요.

집까지 달려온 혁이는 웃방에 올라가 정신없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훈이가 왔다는 소리에 책에서 눈길을 떼였답니다.

《혁이야… 너 아까 우리 집에 오지 않았댔니? 내 이야기책을 못보았니?》

《몰라. 이야기책이라니?》

연방 물어보는 훈이의 물음에 혁이는 시치미를 뻑 따고 도리질을 했습니다.

훈이는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무슨 생각이 났는지 다시 돌아서서 혁이에게 《…너 말하는 고양이가 있다는 소릴 들어봤니?》 하고 물었답니다.

훈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잘 알고있는 혁이가 웃음보를 터뜨리고야말았답니다.

혁이의 웃음을 제나름대로 해석한 훈이는 씩－ 웃더니 타박타박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터밭으로 나오던 할머니가 훈이의 뒤모습을 띄여보고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혁이야, 저 훈이가 왜 왔댔니?》

《왜 오다니요? 그앤 내 고양이동무가 아니나요?》

《뭐… 그건 무슨 소리냐?》

《참, 할머니두… 아까 그 아저씨가 아버지의 송아지동무인것처럼 훈이는 내 고양이동무예요. 그애는 고양이를 고와하니까요. …》

그제야 말뜻을 알아차린 할머니는 《호호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녀석, 사람 웃기지 말아. … 훈이도 네 송아지동무다.》

《아니란데요. 고양이예요.》

《…얘, 혁이야, 송아지동무라는건 너와 훈이처럼 어릴 때부터 다정하고 사이좋게 자라온 동무들사이를 두고 하는 말이란다.》

그러니까 송아지동무란 별명이 아니라 훈이와 나처럼 아

이적부터 허물없는 딱친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

혁이는 씽긋 웃으며 다시 훈이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교실에 들어서니 훈이가 동무들을 모아놓고 홍길동이야기를 한바탕 해대고있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동무들은 엉터리라고 하며 봉이 김선달 옛말을 하라고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겠습니까. 책을 잊어먹었으니.

훈이는 얼굴이 빨개져 어쩔바를 몰라하였습니다.

이때 혁이가 《그다음은 내가 해줄게. …》 하고 보란듯이 아이들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학급의 모든 아이들이 다 주위에 올망졸망 모여앉아 혁이의 이야기를 듣고있으나 훈이만은 뾰족한 눈을 해가지고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혁이는 훈이에게 마치 빌렸던것을 돌려주는듯 시치미를 뻭 따고 책을 주었습니다.

훈이는 책을 나꿔채듯 앗아가지고 저혼자 쌩쌩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서로 앵돌아져 혼자 다니군 하였습니다.

며칠후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되였습니다.

훈이가 밑도끝도 없이 나타나 당장 아버지의 호각을 내놓으라고 하는것이였습니다.

혁이는 억이 막혔습니다.

버선목이라고 뒤집어보일수도 없는 일이였습니다.

이러는 그들을 보며 할머니가 무슨 일이 있는가고 물었

습니다.
훈이가 먼저 토달토달 말했습니다.
《내가 숙제하다가 잠간 자리를 뜬 사이에 호각이 없어졌어요. 그건 틀림없이 혁이가 가져간거예요.》
《칫, 난 몰라요. 내가 왜 호각을 가져왔겠니?》
《그럼 전에 그 책은 왜 가져갔댔니?》
《그건 장난이야.》
《흥, 그럼 이번에두 장난이라고 좋게 생각해줄게 호각을 돌려달라.》
《몇번이나 말하라니? 난 너의 집에 가지도 않았기때문에 쪼끄만 호각은커녕 커다란 호박두 보지 못했단 말이야.》
훈이는 호각을 안주면 다시는 마주서지 않겠다고, 선생님에게 일러바치겠다고 을러메고는 휙—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답니다.
이에 지지 않고 혁이도 《내가 저런 애를 동무라고 여기고있는게…》하며 말하다 엄해진 할머니의 눈초리와 마주쳐 더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혁이는 할머니에게 억울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여느때처럼 늘 듣던 다정한 음성으로가 아니라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혁이야,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니? 네가 장난이든 뭐든 처음에 훈이도 모르게 책을 가져온거야 사실이 아니냐. 롱이였다고 해도 말이다. 그러니 훈이가 호각때문에 너에게 온건 응당한거구 또 네가 당한 일도 응당한 대접이다.》
혁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보니 할 소리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푹 수그린 혁이의 귀전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왔습니다.

《혁이야, 옛날부터 부모 팔아 동무 산다는 말이 있다. 그건 한생에 동무가 그렇게 귀중하다는 소리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너처럼 요런것쯤이야 하고 별치 않게 생각하며 망탕 놀면 동무들사이에 믿는 마음이 없어지고 아끼는 마음이 없어질게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이 먼 후날 서로 만날 때 어떻게 아버지들처럼 그렇게 두몸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정을 꽃피울수 있겠니? 아마 그때 가서 너는 오늘의 이 잘못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 없을거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언제인가 선생님이 아버지장군님께서 중학시절에 지으신 《우정에 대한 생각》이라는 시를 읊어주시면서 친한 동무들사이일수록 더 위해주고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혁이는 저도모르게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머리를 푹 수그린채 들어서는 훈이와 만나게 되였답니다.

훈이는 할머니와 혁이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 모든것은 다 내 잘못이라고, 고양이가 물어다 뒤울안 굴뚝뒤에다 내버린것두 모르구 괜히 해본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야 혁이는 훈이의 얼굴을 마주 바라볼수 있었습니다.

아— 내 동무.

얼마나 진실한 내 동무인가.

혁이는 그만 눈굽이 따끈해서 다시 머리를 푹 숙이였습니다.

《아니야. 훈이야, 그건 응당한 일이였어. 그때 내가 네 책을 몰래 가져오지만 않았어두… 내가 정말 나쁜 애였어.》

혁이는 훈이의 곁으로 더 바투 다가서며 그의 손을 억세게 잡았습니다.

소년단원동무들! 동무들은 동무들 호상간에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속담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주고받는 말이 고와야 합니다.

그래야 동무들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오고가게 되며 믿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말을 한마디 해도 《철호동무! 함께 가자.》, 《영옥동무, 아프다더니 좀 어떻니?》, 《내가 도울 일은 없겠니?》라고 말하면 얼마나 고상하고 듣기에도 좋습니까.

소년단원동무들은 이렇게 동무들과 말을 할 때 서로 존중하고 례절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 어릴 때부터 동무들을 깔보면서 저만 잘 났다고 우쭐거리면 어른이 되여서도 례의도덕을 제대로 지킬수 없게 되고 나중에는 당도 조국도 모르는 사람이 되여 대중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시절부터 동무들사이에 례의도덕을 잘 지키며 조직과 집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품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동무들사이에 롱담도 잘해야 합니다.

생활속에 웃음이 있듯이 동무들과 주고받는 말에도 롱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롱담을 한다고 하여 지나친 말을 하게 되면 상대편의 신

경을 자극하게 되고 나중에는 얼굴까지 붉히는 일이 생기게 되므로 우리는 롱담을 한마디 해도 앞뒤를 재여가면서 해야 하며 지나친 롱담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동무들사이에 가깝다고 하여 아무 행동이나 마구 하여 서로 의심을 사는 이러한것은 그저 스쳐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장군님의 뜻을 다같이 받들어나가는 진정한 동무로 여기는가 여기지 않는가, 또 집단을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만드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자면 동무들은 나, 나부터, 나만이라는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곧 너이고 너는 곧 나라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신처럼 생각하면 동무를 위해 자기의 목숨도 서슴없이 내댈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짧은 순간에 발휘될수는 없습니다.

평상시에 동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또 동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나라도 바칠 때만이 부닥친 정황에서도 아름다운 행동이 발휘될수 있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지으신 시

우정에 대한 생각

설사 그것이 크든작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나의 동무들을 나는 사랑한다

우정이란 무엇인가
의리의 동지
언제나 진실하고 뜨거워
남이 자기로 되는 그 세계던가

친근한 나의 동무여
지금쯤 무엇을 생각하고있느냐
믿음을 떠난 우정이란 없거니
그것을 버린 오늘의 일을
가슴아프게 뉘우치는가

만일 순간의 그 어떤 딱한 사정
리유며 조건이며를 용납한다면
인정에 져 번번이 두둔한다면
그것이 무슨 우정이랴
그늘속에 자라는건 곰팡이뿐이더라

오, 나의 충고를 넓게 받아다오
너는 결코 버릴수 없는 나

손잡고 세상끝이라도 가야 할
너는 귀중한 우리의 너

동무여, 참다운 우정이란 무엇이랴
가슴에 따로 둔 심장이 없는
비록 몸은 낱낱으로 되였어도
심장은 하나인 우리들의 넋이 아니랴

그렇다, 우리들의 넋이다, 우정은
조국을 떠나 가치없고
집단을 위해서만 의미가 있는
성스러운 위업에 향한 충실성
그것으로 맺어진 우리들의 넋이다

믿어다오 나의 우정은
생사운명 같이할
하나의 신념우에 피는 꽃
내 삶의 전부와도 같은것이여라

유모아

가만히 대준 비밀

《너 왜 네게만 가만히 알려준 비밀을 그한테 대주었니?》

《내가 언제 대주었니? 그저 그 일을 아는가고 물었지.》

자각적으로 지키자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정직하고 겸손하여야 하며 학교와 사회의 모든 생활질서와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소년단조직생활을 하는 과정에 자각적으로라는 말을 자주 듣군 합니다.

학습도 그 누구의 눈치를 봐가면서가 아니라 자각적으로, 조직생활도 그 누구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각적으로…

모든것을 소년단원들의 자각성에 맡기고 자각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학교와 사회의 모든 생활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학교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45분수업규률을 잘 지켜야 합니다.

45분수업시간에 몸자세를 바로하고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들으며 선생님의 물음에 정확히 일어나 대답을 하는것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며 우리 소년단원들이 지켜야 할 도덕입니다.

45분수업전 휴식시간에 벅적 떠들며 교실에 무질서를 조성하고 다른 동무들에게 방해를 주는것은 례절없는 표현입니다.

다른 동무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게 소곤소곤 이야기해야 합니다.

《휴식시간도 아껴가며 공부하자.》, 《다음 수업준비를 하자.》…

수업시작종이 울리면 학생들은 교과서와 학습장, 필기도구들을 책상우에 바로 올려놓고 단정히 앉아 선생님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학생들은 구령없이 모두 조용히 일어나 단정한 자세를 취하고있다가 선생님이 답례를 하면 조용히 앉아야 합니다.

선생님의 물음에는 바른 몸가짐을 하고 서서 똑똑한 대답을 하여야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교실에서 나가신 다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복도와 계단에서의 질서도 잘 지켜야 합니다.

복도와 계단에서는 조용히 오른쪽으로만 오가야 합니다.

복도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를 올린 다음 선생님이 지나가신 다음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소년단에 갓 입단한 소년단원동무들속에서는 아직도 유치원꼬마들의 티를 벗어던지지 못하고있습니다.

복도를 운동장처럼 여기면서 뛰여다니는가 하면 위생실에 간다고 하며 교실문을 나서기 바쁘게 롱질하는 현상, 한쪽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것이 아니라 옆으로 쭉 늘어서서 다니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학교에는 가끔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학교내에서 손님을 만나게 되면 걸음을 멈추고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를 하고 물음을 받는 경우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하며 례절바르게 말해야 합니다.

손님을 안내한 다음에는 《그럼 전 돌아가겠습니다.》하고 인사하고는 손님이 방에 들어간 다음 돌아서야 합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자기가 쓰는 책상을 비롯하여 학교의 모든 비품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모든 비품을 애호관리하는것은 학교질서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삼석소학교시절에 교구비품들을 애호관리하는데 앞장서시여 동무들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어느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소년단열성자들을 모여놓으시고 우리가 쓰고있는 책걸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두루 책걸상을 살펴보았으나 영문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열성자동무들이 끝내 깨닫지 못하자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더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책상과 걸상들에 무슨 부상을 이렇게 많이 입혔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제서야 책걸상들에 난 여러가지 흠집들이 그들의 눈에 띄였습니다.

청소할 때 막 다루고 장난질을 하면서 마구 밀고당겨 찌그덕거리는 책걸상도 있었습니다.

열성자들이 자책에 잠겨있는데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우리가 만일 자기가 쓰고있는 책상이나 걸상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있었더라면 누구도 거기에 함부로 흠집을 내지 않았을것이라고, 우리가 공부하고있는 이 학교와 교실, 책상과 걸상을 비롯한 모든 교구비품들이 어떻게 마련된것인

지 알고있는가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책상과 의자는 로동자아저씨들이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아버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훌륭한 학생으로 자라나라고 땀흘려 만들어준것이 아닙니까.

… …

앞으로 모든 동무들이 자기가 쓰는 책상과 의자를 잘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도 아버지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이 못쓰게 만든 걸상과 책상들을 두고 가슴아프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새 책상에다 금을 그으면 안된단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책상과 의자들은 아버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귀중한것들이야. 알겠니?

…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냐.

이 학교는 아버지원수님께서 미국놈을 때려부시는 어려운 나날에 이곳에 나오시여 터전까지 몸소 잡아주시고 세워주신 학교란다.

그리고 아버지원수님께서 우리들이 공부를 더 잘하라고 책상과 의자를 보내주셨단다.

그러니 우리가 책상을 망탕 다루어서야 되겠니?

여러 동무들이 심한 뉘우침으로 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는 그런짓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다지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모두 그렇게 나오니 정말 기쁘다고, 이제는 그 결심을 어떻게 행동에 옮기겠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이 사기가 나서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을 하고싶다고 하자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교실, 우리 학교를 우리 손으로 꾸리는 운동을 벌리자는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학교는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학교로, 공부하기가 정말 좋은 학교로 될것입니다.

우리 교실, 우리 학교를 우리 손으로 꾸립시다!

그러시면서 우리 교실, 우리 학교를 우리 손으로 꾸리는 운동으로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있는 책상과 걸상부터 새것처럼 고쳐놓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공부가 끝나자 학급에서는 아버지장군님을 모시고 책걸상을 고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날 반짝반짝 빛나는 새 책상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동무들에게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뜻깊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어제 일요일에 적지 않은 동무들이 목수공구를 가지고 나와 우리가 쓰는 책걸상을 말끔히 수리해놓았습니다.

보십시오. 책걸상을 이렇게 수리해놓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

우리는 책걸상을 수리해놓는데 그치지 말고 잘 관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장군님께서는 학교비품들을 애호관리하는데서 빛나는 모범을 보이시였습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사회질서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극장, 영화관, 경기장에 가서 관람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극장, 영화관, 경기장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군 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흥을 깨뜨리는 행동을 삼가하는 등 관람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공원, 유원지에서의 례절도 잘 지켜야 합니다.

공원, 유원지에서 소년단원동무들은 가끔 사람들로부터 물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때에는 몸자세를 바로하고 자기가 아는껏 대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공원이나 유원지에서 례절을 지키지 않으면 휴식을 즐기러 온 사람들의 기분을 잡쳐놓을수 있습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공원이나 유원지의 잔디를 밟거나 나무를 꺾지 말아야 하며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 책을 보아야 합니다.

역기다림칸이나 리발소 등 공중장소에서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수 있다는것을 예견하고 공부할 책을 가져와야 합니다.

빈손으로 와서 잡담을 하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리발소가 소란스럽고 또 책을 보는 다른 동무들에게도 방해가 됩니다.

소년단원동무들!

동무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례의도덕을 잘 지키는것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온 사회에 사회주의도덕기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갑시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지으신 동요

연아연아 올라라

연아연아 올라라
바람타고 올라라
연아연아 올라라
높이높이 올라라

연아연아 올라라
어느만큼 보이니
장군님 싸우시던
백두산이 보인다

연아연아 올라라
구름타고 올라라
연아연아 올라라
하늘높이 올라라

연아연아 올라라
어디까지 보이니
장군님 계시는
우리 평양 보인다

외모를 단정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외모가 단정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동무들, 동무들은 거울에 비추어진 자기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생김새가 다르듯 아마 거울에 비추어진 매 동무들의 모습도 다를것입니다.

소년단휘장이 삐뚤어진 학생이 있는가 하면 소년단넥타이도 바로 매지 못한 동무, 바지주름이 바로 잡혀있지 않은 학생, 신발이 맨 흙투성이로 되여있는 학생, 머리가 더부룩한 학생…

별의별 동무들이 다 있습니다.

동무들은 거울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에서 잘못되였다고 생각되는 점을 바로하고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보았던 모습과는 다른 판판 남같지 않은가요.

호호, 물어보나마나라구요.

그래 어느 모습이 더 으쓱해진 형님이라고, 누나라고, 언니라고, 오빠라고 동생들이 뒤따라올 모습인가요.

머리는 그만 수그리고 한번 다시 자기 모습을 보세요.

의젓하지요.

그렇습니다.

외모는 그 사람입니다.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수 있습니다.

공부는 잘하는지, 조직규률은 잘 지키고 생활에선 모범인지.

외모는 겉모양이나 옷차림새를 두고 말합니다.

즉 머리단장, 열성자표식, 옷차림새, 신발단장 등을 말합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다녀야 합니다.

동무들이 입고있는 교복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아버지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 옷입니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소년단원들은 혁명선렬들의 붉은피가 스며져있는 붉은넥타이가 구겨져도 다리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거나 그대로 매고다니는가 하면 단추가 떨어져도 달지 않고 바지주름, 치마주름도 잡지 않고 되는대로 다니고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든 새옷을 받아안고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마음이였지만 자기 부모들도 줄수 없었던 그 따사로운 사랑이 깃든 옷을 단순히 몸을 가리우는 옷으로가 아니라 자기들을 아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그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사는 고마운 은덕을 생각하였으며 아동단복을 언제나 깨끗하게 그리고 꼭꼭 주

름을 잡아 입군 하였습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다니는것이 단순히 외모와 관련된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며 사상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훌륭히 준비된 강성대국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준비해나가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교복을 맵시있고 단정하게 입고다녀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머리단장도 바로하여야 합니다.

머리를 더부룩하게 길게 하고 다니거나 류행을 따른다고 하면서 괴상한 머리형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남학생들은 패기나는 상고머리, 녀학생들은 한결 생기있게 보이는 단발머리, 민족적풍습을 옳게 살린 외태머리, 쌍태머리를 하고 다니는것이 제일 보기 좋습니다.

이것이 민족적정서가 깃든 우리 시대,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머리단장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신발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신고다니며 빗, 손거울, 손수건을 항상 가지고다니면서 몸단장을 잘하여야 합니다.

빗, 손거울, 손수건을 가지고다니는것을 멋부리기 위한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보물손가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체38(1949)년 6월 5일 김정숙어머님께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시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을 때였습니다.

저마끔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김정숙어머님의 곁에 앉겠

다고 자리다툼을 하는 어린 학생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보살펴주시고나서 우리모두 오락회를 하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김정숙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겨 원아들이 한창 오락회를 하고있을 때였습니다.

8살나는 꼬마학생이 어디서 장난을 하다 왔는지 바지는 온통 흙투성이이고 웃옷단추도 두개밖에 붙어있지 않는 옷차림으로 뒤늦게야 달려와서는 김정숙어머님의 옆자리에 비집고 들어오는것이였습니다.

그를 반갑게 맞아주신 어머님께서는 옷에 묻은 흙과 먼지도 털어주시고 회색손가방에서 흰 손수건을 꺼내시여서는 그의 얼굴을 닦아주시고 이어 실과 바늘을 꺼내시여 손수 그의 옷에 단추까지 달아주시였습니다.

꼬마는 어머님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해죽이 웃기만 하였습니다.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귀밑에 난 자그마한 상처를 보시고는 안색을 흐리시며 어서 약을 발라야겠다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가방에서 솜과 약병을 꺼내여 상처를 씻어내고 빨간약을 발라주시는 동안 꼬마학생은 어머님의

속 담

—꽃이 향기로우면 벌과 나비가 모인다.

품성이 좋고 외모가 아름다와야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다는 말.

자그마한 회색손가방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부쩍 호기심이 동한 꼬마는 김정숙어머님의 가방안을 살그머니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곡차곡 개여넣은 갖가지 천쪼박들과 학원제복단추들, 여러가지 약병들과 거울…

그제서야 꼬마는 김정숙어머님께서 학원에 나오실 때마다 들고오시는 회색손가방이 원아들에게 필요한것이 다 들어있는 보물손가방이라는것을 알게 되였으며 그 이야기는 온 학원에 퍼졌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의 회색손가방, 그것은 혁명가유자녀들을 경애하는 대원수님앞에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깨끗한 차림새로 내세워주시려는 김정숙어머님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는 보물손가방이였습니다.

소년단원동무들, 동무들은 겉모양이나 몸차림새가 단정하지 못하면 정신상태도 맑을수 없으며 나아가서 학습도 조직생활도 잘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것, 이것이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며 선군시대를 빛내여나가는 길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합시다.

6. 씩씩하라, 용감하라

나라의 보배

어떤 소년단원들이 나라의 보배라는것일가요?

옥이도 영남이도 두손을 턱에 고이고앉아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일가 아니면 좋은 일 잘하는 학생일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일도 잘하는 학생이 보배입니다.

그럼 또 어떤 보배가 있을가요?

이때 철이가 무릎을 치며 말합니다.

《옳아, 체육을 잘해야 해. 이런 말도 있지 않니. 튼튼한 몸은 나라의 보배라는 말!》

《흥, 거짓말. 튼튼한 몸이라고 했지 체육이라고 했니?》

옥이가 두눈이 올롱해서 대꾸합니다.

《하긴 체육을 잘해야만 몸이 튼튼해지니 철이의 말도 옳아.》

철이의 말에 호응하며 영남이가 한마디 던집니다.

철이의 말대로 정말 체육을 잘하는 학생을 나라의 보배라고 할가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몸을 튼튼히 단련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기둥으로 자라나고있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튼튼한 체력은 곧 나라의 힘입니다.

새 세대들인 우리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해야만 로동과 국방에 이바지할수 있으며 우리 나라가 그 어떤 강적도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강국, 번영하는 강성대국으로 될수 있습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학교에서 조직하는 집단달리기에 잘 참가해야 합니다.

아침체조시간과 업간체조시간에 하는 집단달리기는 소년단원들에게 집단주의정신과 강의한 의지를 키워주는 좋은 운동형태입니다.

집단달리기에 참가하기 싫어하는 소년단원은 의지가 약하고 집단주의정신이 부족한 소년단원입니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게 소년단원들은 수영을 장려하여 체력을 튼튼히 단련하여야 합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수영은 사람의 체력을 단련시키고 의지를 키워주는 좋은 체육종목의 하나이다, 수영은 온몸의 힘살을 고르롭게 발달시키고 몸매를 곱게 하며 심장피줄계통과 호흡기계통, 소화기계통의 활동에 좋은 영향을 준다, 수영을 정상적으로 하면 보통사람에 비하여 페활량이 커지고 심장의 기능도 현저히 높아진다, 수영은 사람들의 담과 굳센 의지를 키워주는 좋은 체육종목이라고, 수영을 할줄 모르면 유사시에 당에서 맡겨주는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없다고 하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북청군의 어느 한 농촌마을을 찾으시

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한 농촌마을과 그앞에 펼쳐진 드넓은 논밭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맑고 푸른 물줄기가 굽이굽이 감돌아 유유히 흘러내리는 강뚝에 올라서시였습니다.

이때 강뚝에서 경비를 서고있던 농장원청년이 아버지장군님을 뵈옵는 순간 몸가짐을 바로하고 그이앞에 달려가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습니다.

인사를 반갑게 받으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 청년은 스스럼없이 아이들이 강에 들어가 미역감는것을 단속하기 위해 경비를 서고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청년의 어깨우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며 강에서 아이들이 목욕을 하지 못하게 경비를 서지 말고 아이들에게 수영장을 만들어주어 마음껏 헤엄치며 놀게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세면이 바다인 우리 나라에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헤엄치는 법을 배워주어야 하며 어려서부터 수영을 많이 하면 몸도 균형적으로 발달시킬수 있고 해양국 청년답게 씩씩하게 자라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서부터 수영을 배워야 한다고 하신 아버지장군님의 말씀은 소년단원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가르치심이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이 몸을 튼튼히 단련하고 키를 크게 하는데서 아주 좋은 운동은 철봉운동입니다.

흔히 철봉운동은 키크기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철봉에서 기초는 현수입니다. 현수를 잘하자면 팔힘을 키워야 합니다.

여기에 아버지장군님께서 삼석소학교시절에 왜 철봉을 해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체42(1953)년 9월 어느날, 학생들이 철봉대에서 철봉을 하지 않고 봉대사이를 뱅글뱅글 맴돌면서 따라잡기놀이를 하는것을 보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로 다가가시여 그중 한 학생에게 현수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있게 철봉에 올랐으나 현수 한개도 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털썩 떨어져내렸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철봉대에서 별로 힘들지 않게 열번

상 식

키를 빨리 크게 하는 운동들

· 기계체조

철봉, 평행봉, 경사사다리들과 같은 체조기재에 매달려 흔들기운동을 할 때 몸의 무게와 흔들기운동에 의하여 생기는 원심력의 작용으로 팔, 몸통, 다리의 뼈마디들에서 중력의 작용을 더 세게 받게 된다.

다시말하여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의 작용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철봉, 평행봉과 같은 기계체조는 좋은 키크기운동의 하나이다.

나마 시범동작을 하시였습니다.

둘러섰던 학생들은 모두 손벽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가볍게 뛰여내리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철봉운동은 몸을 튼튼히 단련하고 키를 크게 하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중요한것은 놀음놀이식으로 철봉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철봉을 하여 힘을 키우는것이라고, 철봉운동은 꾸준히 진행해야지 한두번 해보는 식으로나 장난삼아 매달려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그후 학생들은 짬만 있으면 현수, 거꾸로오르기와 같은 운동을 하여 누구나 다 철봉운동을 잘하게 되였답니다.

이렇게 철봉운동은 꾸준히 해야지 한두번 해보는 식으로나 장난삼아 하여서는 안됩니다.

· 롱구와 배구

롱구와 배구는 뛰면서 몸을 펴는 운동을 많이 하는 종목의 하나로서 그것은 키크기운동의 기본형태로 된다.

곧추 뛰여오를 때 다리와 몸통의 근육들이 뼈에 대하여 끌어당기는 작용을 한다. 곧추 뛰여올랐다가 내리면서 땅에 발이 닿는 순간에는 다리와 등뼈의 매개 뼈마디에 있는 삭뼈를 충격하는 힘이 세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키크기를 다그치게 한다.

이밖에도 키를 빨리 크게 하는 운동들에는 달리기와 뛰여오르기, 수영, 예술체조 등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소년단원동무들은 철봉운동을 할 시간이면 수학문제 하나라도 풀겠다며 전혀 운동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최우등생인 광원이가 그런 소년단원들중의 한사람입니다.

학교길과 도서관 가는 길로만 다니면서 책에 파묻혀 공부, 공부밖에 모르던 광원이.

그러던 어느 여름날.

살짝 지나는 찬바람에도 못견뎌 광원이는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 온 집안이 법석 끓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친손자가 앓는다며 할머니는 병원으로 뛰여갔고 어머니는 불덩이같이 달아오른 광원이옆에서 한걸음도 못움직였답니다.

얼마후 할머니가 의사선생님을 앞세우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진찰을 하고난 의사선생님은 따끔한 주사바늘을 광원의 살에 찌르며 말했어요.

《학생은 영 몸단련을 안했군요. 미래의 박사감이라고 하던데 몸이 이래가지고는 그 꿈을 실현할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지니면 무얼 하겠나요. 침대우에서 썩는 지식이 나라에 필요할가요?》

순간 광원의 머리속에는 선생님이 늘 외우시던 하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덕체!

주사를 맞고난 광원이는 옆으로 돌아누우며 생각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례절도 바르고 몸도 튼튼히 단련해서 나라의 쓸모있는 인재가 되라신 아버지장군님의 그 깊은 뜻을 난 왜 새기지 못했을가. 그리고도 뭐 세계를 놀래우는 유명한 박사가 되겠다구?!)

광원이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만 잘해도 몸이 허약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몸단련에 힘을 넣어 폭넓은 지식과 함께 튼튼한 체력을 소유한 조국에 필요한 소년단원, 아버지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는 소년단원으로 자라나겠다는것을.

그후 광원이는 몸단련에 앞장섰습니다.

소년단원동무들!

이젠 누가 나라의 보배인가를 알겠지요?

옳습니다.

다방면적인 지식과 함께 건장한 체력을 가진 쓸모있는 인재가 나라의 보배, 아버지장군님께서 바라시는 보배인것입니다.

선군동이

선군시대에 나서자란 우리들을 선군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유치원시절부터 총을 메고 군사놀이를 자주 합니다.

비록 나무로 만든 총이지만 누구나 다 그 총을 옆구리에 차고 으쓱해합니다.

총의 의미를 잘 모르는 때지만 그래도 총을 사랑합니다.

소년단원이 되여서는 쪼꼬마하던 유치원때처럼 총을 메거나 가지고 다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총을 늘 차고 학교나 거리를 다니고 싶어합니다.

그래 총을 억세게 틀어잡고 훈련하는 인민군대아저씨들을 부러워합니다.

소년단시절은 총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는 시절입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도 소년단시절에 총대를 사랑하시였습니다.

주체41(1952)년에는 총과 혁명을 같이하겠다고 마음속으로 필생의 결의를 가다듬으시였고 주체43(1954)년에는 일생 군인으로 사실 결심을 경애하는 대원수님앞에서 다지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최고사령부에 오신 주체41(1952)년 7월 10일 저녁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지장군님을 작전실로 부르시고 자못 신중하신 어조로 조용히 물으시였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물으심을 받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몸가짐을 바로하시며 정중히 대답하시였습니다.

《오늘은 할아버님의 생신날입니다.》

《옳다. 너의 할아버지 생일 쉰여덟돐이 되는 날이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버지장군님께서는 《할아버님께서는 왜놈들때문에 너무도 일찌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라고 하시면서 할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올라 뒤말을 잇지 못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도 김형직선생님을 추억하시며 한동안 아무 말씀없이 창밖을 내다보시다가 젖어든 음성으로 조용히 말씀하시였습니다.

《너의 할아버지 한생은 비록 짧았어도 보람있게 사신 한생이였다. 너의 할아버지는 나라의 광복을 이룩하실 큰 뜻을 품으시고 한생을 반일애국성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참된 애국자이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지장군님께 할아버님께서 지으신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잊지 않고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잠시후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해나가시려는 굳센 의지를 담아 맑고도 청청한 목소리로 격조높이 시를 읊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시랑송을 마치신 아버지장군님의 상기된 얼굴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않으신채 이 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예. 〈지원〉의 사상이 담겨져있습니다. 〈지원〉이란 뜻을 멀리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리신 장군님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너의 할아버지가 평생 신조로 삼으신 뜻이였다, 할아버지는 그 뜻을 안으시고 자기 대에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지 못하면 아들대에 하고 아들대에 못하면 손자대에 가서라도 기어이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의 해방을 이

룩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실 때 나에게 지원의 뜻이 담겨져있는 권총 두자루를 유산으로 넘겨주시였다. 나는 그 권총 두자루를 밑천으로 삼아 첫 무장대오를 조직하고 반일대전을 선포했으며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나라의 통일독립을 이룩할 때까지, 전세계에서 제국주의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때까지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붉은 천에 싸여있는 한자루의 권총을 꺼내놓으시며 엄숙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권총을 오늘 너에게 준다. 혁명의 계주봉으로 알고 받는것이 좋겠다.》

뜻깊은 사연이 깃든 혁명의 총을 받아안으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한없이 숭엄한 격정에 휩싸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혁명가는 일생동안 손에서 총을 놓지 말아야 한다.

총은 혁명의 승리를 담보해주는 방조자이라는것을 꼭 명심해라.》

총대중시의 심원한 철리를 밝혀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무겁게 실린 만경대가문의 뜻이 어린 권총을 혁명의 계주봉으로 받으시며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아버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한평생이 총과 혁명을 같이하겠습니다.》라고 마음속결의를 다지시였습니다.

주체43(1954)년 7월 2일.

이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함께 함경북도를 돌아보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동항부두에 있는 렬차집무실에 오시였습니다.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는 인민들에게 무엇이든지 더 주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우신듯 오래도록 바다를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곁에 계시던 장군님께서는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모래먼지가 날리자 앞으로 달려가시여 모래바람을 막아드리시였습니다.

몇순간, 말없이 자신을 위하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충정에 마음뜨거워지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드님의 어깨우에 씌워진 모래를 털어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한평생 군인으로 살아왔다. 찬바람 더운바람 다 가리고서야 어떻게 혁명을 하겠느냐. 나는 이때까지 엄동설한에 몸을 녹일 사이가 없었고 삼복 뙤약볕에 그늘을 찾을새도 없었다.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할것 같다.

혁명을 하자니 한평생 군인으로 살수밖에 없구나.》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에서 언제나 군인의 격동상태로 살아가실 비장한 각오가 담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에서 아버지장군님은 더 똑똑히 알게 되시였습니다.

한생을 적과 싸우는 군인의 심정으로 살아야 하며 그 정신으로 모든 난관과 시련을 헤쳐야 한다는 대원수님의 심중한 뜻을 가슴에 받아안으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나도 앞으로 일생 군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엄숙히 다짐하시였습니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일생 군인으로 사실 굳은 각오를 다지신 아버지장군님의 이 맹세는 우리 혁명의 총대시원이 열린 백두산총대가문에서 태여나시여 백두산군인

생활을 터득하시며 다지신 심장의 맹세인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장군님처럼 일생 군인으로 사는 심정으로 마음속군복을 입고 모든 난관과 시련을 헤쳐갈 심장의 맹세를 다져야 합니다.

조국보위는 애국중의 최대의 애국입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나라를 지킬 소중한 꿈을 간직하는 한편 인민군대원호사업과 후방가족, 전쟁로병들을 돕기 위한 사업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이나 방학기간을 리용하여 편지나 기념품을 마련하는것도 좋지만 공연을 멋들어지게 준비하여가지고 인민군대아저씨들이나 후방가족, 전쟁로병들을 축하해주는것은 더욱 좋습니다.

그들은 우리 선군동이들의 노래와 춤을 더 좋아합니다.

노래와 춤을 추며 씩씩하게 자라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그들은 조국의 래일을 보기때문입니다.

총대를 이어받아 틀어쥐고 후대들의 행복을 지켜가고있는 앞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때문입니다.

이것이 세대를 이어가며 물려지는 총에 대한 사랑의 정신입니다.

선군동이들인 소년단원동무들, 우리 장군님처럼 총을 사랑합시다, 귀중히 여깁시다.

총에 대한 사랑의 정신과 조국보위의 희망과 포부를 소중히 간직합시다.

7. 나어린 참전자

《누구인가 보았더니…》

속보가 났습니다.

재미나는 제목이야 하며 호기심에 끌려 서로마다 읽어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좋은 일을 하는 동무, 누구인가 보았더니 ○○동무.》

동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뒤떨어졌던 동무가 모범생이 되였으니 동무들도 기뻤습니다. 속보판주변에는 그 동무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을가, ○○동무를 축하해주어야겠는데.

후에 동무들은 속보판에 난 ○○동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좋은 일을 왜 혼자서 했니. 왜 그런 좋은 일을 하고도 말하지 않았니.

그 동무는 뒤더수기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뭘 큰것이라구, 너희들앞에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소년단원동무들!

우리의 소년단조직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전에 뒤떨어진 생활을 하던 동무도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을 돕는 좋은 일을 찾아하였습니다.

아마 강성대국건설장에 더 많은 파철을 보내기 위해 남모르는 수고를 했는지…

우리 소년단원들은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는 책상에 조용히 앉아 공부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있습니다. 나라에 보탬을 주고있습니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대전에 참가하는 나어린 참전자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이 좋은 일을 한가지씩만 하여도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일은 어려서부터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거기에만 치우치면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하시면서 공부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고 념려해주십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며 로동을 사랑합니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배웁니다.

또 조금이나마 우리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대전에 이바지하고있다는 기쁨을 느끼며 어서 빨리 커서 일을 멋있게 해야겠다는 꿈도 키웁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이 벌리는 좋은일하기운동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우리 손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라

면 무엇이든 다 찾아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대전은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아름답게 꾸리는 투쟁입니다.

거리와 마을에 꽃과 나무를 심고 산림을 울창하게 하는 향토애호근위대활동에 떨쳐나섰습니다.

향토애호근위대활동은 거리와 마을, 학교를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학생소년들의 대중운동입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산에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며 도로와 철길, 토지를 보호하고 리로운 동식물을 보호증식시키며 여러가지 꽃을 심고 가꿉니다.

조국의 산과 들을 푸르게 하고 거리와 마을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는데 기여합니다.

꽃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은 해방직후부터 소년단원들이 좋은일하기운동의 하나로 전통적으로 해오고있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사람은 꽃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꽃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줄뿐아니라 정서를 주고 아름다움을 줍니다, 꽃을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정서가 메마릅니다, 사람은 정서가 있어야지 메말라서는 안됩니다라고 하시며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정서가 깊고 꽃을 좋아하기때문에 봉선화에 대한 노래도 지어불렀다고 하시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이 거리와 마을, 학교, 중요고속도로와 철길들에 꽃을 많이 심고 가꾸는 운동을 널리 벌리고있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어린 동생과 함께 장자산에 오르시여 심으신 두그루의 잣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소년단원들에게 있어서 빛나는 모범으로 되고있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장자산에서 생활하신지 얼마 안되던 주체39(1950)년 10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 아침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오늘은 10월 10일입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 뜻깊은 날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날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어제 보아둔 잣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떠다 당창건 5돐을 기념하여 심자고 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아버지장군님을 따라나섰습니다.

장자산골안으로 들어가니 장마비에 씻기워 뿌리가 드러난 애어린 두그루의 잣나무가 보였습니다.

그 어린 잣나무를 조심스럽게 뜨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동생과 함께 잣나무를 심겠다고 하시며 집옆의 양지바른 곳에 구뎅이를 파기 시작하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잣나무뿌리가 상할세라 구뎅이에 보드라운 흙을 펴놓으신 다음 흙과 부식토를 고루 덮어주시면서 동생에게 잣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절 잎이 푸른 나무이다, 잣나무는 우리 나라에 많으며 잣송이들이 많이 달린다고 알려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어머님께서는 백두산에서 왜놈들과 싸우실 때 식량이 떨어지면 이런 잣나무에서 잣을 따다가 끼니를 에우셨다고 이야기해주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이 잣나무는 지금은 작지만 이다음에 크면 잣이 많이 열릴것이다, 우리 그때 다시 여기 와보자고 동생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후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두그루의 잣나무에 매일 물을

주시면서 정성껏 가꾸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잣나무에 물을 주고나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마음은 이 푸른 잣나무처럼 변함이 없을것이다, 미국놈들이 우리 나라를 먹겠다고 덤벼들지만 절대로 안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미국놈들이 한그루의 나무를 불태우면 우리는 열그루, 백그루의 나무를 심어 우리의 산과 들을 더욱더 푸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 나무가 푸르싱싱 자랄 때 우리 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될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온 나라 소년단원들이 거리와 마을, 학교들에 꽃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는 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습니다.

꽃나무를 많이 심으면 보기에도 좋고 정서를 풍부히 하는데도 좋습니다.

계절마다, 지방마다 심어야 할 꽃나무의 종류도 있습니다.

꽃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면 어릴 때부터 정서가 풍부하고 다정다감한 혁명인재로 자랄수 있으며 주체의 우리 조국을 백화만발한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릴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토끼동산을 꾸려갑니다.

우리 집 토끼

1. 양지쪽 창문가에 우리 집 토끼
   잠만 깨면 오물오물 풀을 먹지요

아카시아잎사귀 걱정을 말고
어서야 큰 토끼 되여다오

2. 두귀를 뾰족 세운 새하얀 토끼
아침저녁 깡충깡충 즐거웁다오
검둥아 가까이 가지 말아라
뛰노는 토끼를 놀래겠다

3. 눈알이 새빨간 어미토끼야
열두형제 무럭무럭 잘도 자란다
네가 낳은 토끼가 어찌 크던지
소년단회의서 칭찬한다

소년단원들인 우리들은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토끼기르기로 소문난 소년단조직들도 있습니다.

또 한 학교안에서도 토끼를 잘 기르는 분단, 소년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소년단원이 토끼를 많이 길러 모범소년단원으로 이름떨친 동무도 있습니다.

토끼는 성질이 온순하고 번식이 빠르며 아무 풀이나 가리지 않고 잘 먹기때문에 기르기 쉬울뿐아니라 고기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으며 털가죽의 질이 좋아 경제적으로도 매우 유익합니다.

토끼기르기운동은 소년단원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을 통하여 다져나갈뿐아니라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는 매우 중요한 좋은일하기운동의 하나입니다.

소년단시절에 토끼의 특성에 대하여, 토끼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토끼에게 무엇을 먹이면 더 좋

은가 등 토끼기르기에 대한 상식을 잘 알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꼬마계획활동도 활발히 벌리고있습니다.

나어린 새 세대들이 부모들의 일손을 도와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이 운동은 우리 소년단원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는 운동입니다.

꼬마계획활동의 발단으로 된것은 주체46(1957)년 평양시 소년단원들속에서 일어난 소년호기증기헌납운동이였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 우리 인민이 안팎의 원쑤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제1차 5개년계획의 첫해과제를 수행하고있던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주체45(1956)년 12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시고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깊은 감

상 식

거리와 마을에 가로수를 심으면 왜 좋은가?

식물은 낮에 해빛을 받아 영양물을 만들며 나쁜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우리들이 숨을 쉬는데 필요한 산소를 내보냅니다.

그러므로 거리와 마을에 꽃과 나무를 많이 심으면 공기가 맑아지고 위생에 아주 좋습니다.

뿐만아니라 거리와 마을의 경치도 한결 아름답게 하여줍니다.

동을 받으시였습니다.

오직 경애하는 대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강선로동계급의 불타는 충성심을 뜨겁게 받아안으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소년단원들을 동원하여 파철을 비롯한 유휴자재들을 수집하여 《소년》호기중기를 만들어 평양시 주택건설장에 보낼것을 발기하시고 평양시 소년단원들속에서 《소년》호기중기헌납운동의 불길을 지펴올리시였습니다.

주체46(1957)년 2월에는 《소년》호기중기헌납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전체 소년단원들속에서 꼬마5개년계획활동을 전개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습니다.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힘찬 천리마진군에 발맞추어 꼬마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려는 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으며 꼬마계획활동은 대중적

상 식

토끼관리에서 주의할 몇가지

토끼는 조용한 곳에서 관리하며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토끼는 겁이 많기때문에 늘 조용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끼를 자주 다른 상자에 옮겨넣거나 한상자에 많이 넣지 말아야 합니다.

토끼를 붙들 때에는 두귀를 잡아들어서 발버둥치게 하지 말고 오른손으로는 어깨부위의 가죽을 쥐고 왼손으로는 엉뎅이 또는 뒤다리를 받들어주어야 합니다.

토끼관리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토끼의 상태를 항상 살피는것입니다.

운동으로 더욱 확대되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소년단원들이 나라에 선물한 뜨락또르나 자동차대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하여 그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참된 애국자로 키우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꼬마계획활동은 나라의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고 사회주의건설을 돕는 좋은일하기운동으로 실속있게 진행되게 되였으며 소년단원들은 실천과정을 통하여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수 있게 되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이끌어주신 꼬마계획활동!

이 운동은 소년단원들을 어려서부터 로동을 사랑하며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

토끼가 편안히 누워있거나 운동을 하며 먹이를 제대로 먹으면 건강한것입니다. 만약 한쪽에 쪼그리고앉아서 졸고있거나 먹이를 먹지 않을 때에는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토끼는 냄새를 잘 맡습니다.

토끼는 냄새를 맡아보고 오줌이나 오물에 덞은것은 잘 먹지 않으므로 먹이는 깨끗한것으로 주어야 합니다.

계절에 따라 추위와 더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토끼우리청소도 잘해야 합니다.

토끼우리는 늘 깨끗이 청소, 소독하며 병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과 국방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당의 참된 선군소년근위대, 열렬한 애국자로 키우는 대중운동으로 날이 갈수록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습니다.

《누구인가 보았더니…》

자그마한 소년단속보를 통하여 성장해가는 나어린 참전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대견합니까.

우리 소년단원들은 좋은일하기운동을 통하여 이렇게 자랍니다.

몸도 크고 지능이 높아지는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것은 나라를 위한 마음이 크는것입니다.

정말 기특한것은 일할줄 아는것입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속에는 일할줄 모르는 동무, 건달뱅이는 한명도 없습니다.

우리 조선민족은 원래 지혜롭고 근면한 민족이 아닙니까.

그 근면성이 최고로 발휘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시대입니다.

이 벅찬 투쟁에 우리 소년단원들도 나어린 참전자가 되여 구슬땀을 바치고있습니다.

우리의 소년단시절, 그것은 학습과 함께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로력적으로 이바지하는 나어린 참전자의 시절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가요.

동무들은 이다음 어른이 되여 혁신자로 이름 떨칠 때에 어렸을 때 좋은 일을 하는 자그마한 싹도 찾아내여 칭찬해주던 소년단조직, 혁명가의 첫걸음을 잘 떼여준 소년단조직을 고맙게 생각하게 될것이며 소박한 소년단속보 《누구인가 보았더니…》를 일생 잊지 못할것입니다.

나래를 펴라

소년단원 우리들은 꿈도 많습니다.

희망도 큽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것은 좋습니다.

너의 희망, 너의 꿈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니 앞날이 눈앞에 환히 안겨옵니다.

보다 중요한것은 크나큰 희망,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것입니다.

선군천리마를 타고 씽씽 달려야 합니다.

창공높이 나래치는 천리마.

강성대국건설대전참전자들은 선군천리마를 타고 날고있습니다.

희천속도도 오늘의 새로운 천리마속도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천리마를 타고 달린 천리마기수들이였고 오늘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오빠, 언니들도 천리마나래를 활짝 펴고 강성대국을 향하여 날고있습니다.

우리 조국은 천리마의 나라입니다.

우리 혁명의 전세대도, 오늘의 세대도 천리마를 타고 계속 달립니다.

우리도 창공높이 날으는 천리마를 탈수 있을가.

밤하늘에 날으는 황홀한 천리마를 나도 탈수 있을가.

하늘을 날으는 천리마는 우리 소년단원들을 어서 오라 부르고있습니다.

소년단시절의 리상을 실현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대답합니다.

천리마를 타야 한다고, 천리마의 나래를 활짝 펴야 한다고 말입니다.

비약의 시대, 폭풍의 시대에 모두가 천리마를 타고 달리는데 하늘소를 타고 뚜걱뚜걱해서야 언제 꿈을 실현하고 희망의 상상봉엔 언제 오르겠습니까.

닭은 아무리 날고 뛰여도 수리개가 되지 못합니다.

말은 아무리 잘 뛰여도 천리마는 못됩니다.

천리마는 전설속의 말입니다.

주체의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전설속의 천리마를 이 땅에 불러왔습니다.

우리 조국은 천리마를 타고 질풍처럼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천리마를 타고 최첨단을 돌파하고있습니다.

천리마, 이는 그 어떤 폭풍에도 드놀지 않고 우리의 식,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주체의 상징입니다.

꿈도 리상도 신념이 없이, 의지가 없이 실현할수 없습니다.

신념과 의지가 강한 혁명가들만이 참으로 아름다운 꿈, 높은 리상을 가질수 있습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과 다른 점이 바로 신념과 의지가 강하고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가진 아이들이라는데 있지 않습니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아동단원들의 신념이 얼마나 강했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쓰시였습니다.

《나는 전에 외국소설에서 어떤 섬마을의 어린애가 은시계에 유혹당하여 새초더미속에 숨어있는 사람의 행처를 대주었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처형당하는 이야기를 읽은 일이 있다. 그 소설을 보아도 알겠지만 사실 어린아이들을 구슬리는것은 간단한 일이다. 아이들은 물질에 유혹당할수도 있고 위협이나 고문앞에 굽어들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생활을 통해 정치적으로 단련된 아이들은 지조를 굽히지 않는 법이다. 우리의 아동단원들가운데는 자기의 정치적신념을 한푼의 돈과 바꾼 아이들이 한명도 없었다.》

우리 소년단원들이 지닌 지조, 불굴의 신념은 혁명의 미래에 대한 확신, 아름다운 리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것입니다.

항일아동단원 금순이에게도 해방된 조국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꽃피울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 그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죽음도 맞받아나갔던것입니다.

혁명은 간고합니다.

우리가 잘살기를 바라지 않는 원쑤들의 방해책동은 오늘 21세기에도 집요하게 감행되고있습니다.

우리 선군조선의 천리마, 이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제국주의반동들의 압살공세를 쳐갈기고 기어이 강성대국건설에로 나가는 철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의 상징입니다.

천리마의 정신이 없이는, 천리마를 타지 않고서는 그 어

면 꿈도, 리상도 실현할수 없습니다.

우리 조국은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우리 소년단원들에게 희망의 나래를 달아주었습니다.

룡마도 탈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래를 달아주어도 자기자신이 펼치지 못하면 훨훨 날수 없습니다.

소년단시절은 나래를 펴는 시절입니다.

소년단시절에 나래를 어떻게 펴는가에 따라 천리마를 탈수도 있고 하늘소를 탈수도 있습니다.

우리 소년단조직에는 꿈도 희망도 높이 가질줄 모르는 소년단원들은 한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우리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도록 모든 조건을 다 안겨줍니다.

하늘높이 날수 있는 나래를 다 달아주었습니다.

조선소년단원, 이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소년단시절은 꿈많은 시절, 희망이 나래치는 시절입니다.

천리마는 가장 빠른 전진속도의 상징입니다.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걸어야 하며 남들이 걸을 때 우리는 날아야 합니다.

우리 조국은 지금도 그렇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조국은 비약하고있습니다.

눈은 세계를 보라는 말은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나라로 일떠세우겠다는 야심과 배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은

아버지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을 일떠세운 기세드높이 경제강국건설에서도 세계를 굽어보며 최첨단을 돌파해나가고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정밀한 제품도 마음먹은대로 다 만들수 있으며 같은 시간에 손으로 돌리는 일반기계보다 수십배나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CNC공작기계를 우리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리고 지하핵시험에서 성공한데 이어 얼마전에는 우리 식의 독특한 방법으로 미래의 새로운 에네르기개발을 위한 돌파구로 되는 핵융합반응을 성공시키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도처에 최첨단을 자랑하는 현대적인 공장들이 수없이 일떠서 세계를 놀래우고있습니다.

남들같으면 세기를 두고도 이룩하지 못할 기적과 사변을 창조하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앞선 나라들을 따라갈것이 아니라 그들을 앞설것을 바라고계십니다.

오늘의 성과에 만족할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보며, 모든 면에서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며 계속 전진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새 세대 소년단원들의 리상이고 임무입니다.

지금 이 시각도 세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강성대국건설을 더욱 앞당겨나가기 위하여 불타는 정열을 안고 피타게 노력하여야 합니다.

노래에도 있듯이 지식경제시대, 정보산업의 시대인 오늘 과학기술의 패권을 쥐면 강자요, 떨어지면 남의 노

예로 됩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소년단원들은 마땅히 과학과 기술의 패권을 쥔 주인이 되여야 합니다.

누구는 나라를 튼튼히 지키는 최첨단무기를 만들어내는 군사과학자, 누구는 최첨단기계들을 척척 만들어내는 기계공학박사, 누구는 제일 많은 소출을 내는 농작물을 만들어내는 식물학자, 또 누구는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아무것이나 척척 만들어내는 화학자 등 모두가 강성대국건설에서 한몫씩 맡아 수행하는 혁명인재, 최첨단돌파의 패권을 쥔 주인이 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소년단시절부터 천리마정신을 배우고 전세대들의 창조기풍, 계속혁명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전설속의 천리마, 이는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선군천리마를 타고 달리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힘찬 발걸음에 제국주의반동들은 짱짱 나자빠지고있으며 이 땅에는 인민의 무릉도원이 일떠서고있습니다.

시대의 이 벅찬 발걸음에 맞추어 소년단원 우리들은 아름다운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펴고 천리마에 오릅시다.

천리마를 타고 씽씽 달립시다.

8. 《항상준비!》

이때까지 우리의 소년단시절에 대하여 여러모로 이야기했습니다.

소년단시절은 붉은넥타이를 날리며 영원히 향도의 우리 당을 받들어나갈 맹세를 다지는 시절입니다.

자연과 사회, 혁명에 대한 지식의 첫 돌기를 쌓고 사랑과 증오를 가슴에 차곡차곡 새겨안는 시절입니다.

모든것이 시작이고 첫걸음입니다.

첫출발에서부터 준비를 잘하고 떠나야 결승선에 남먼저 들어설수 있지 않습니까.

첫걸음의 준비를 잘하고 떠나야 인생의 먼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년단구호가 《항상준비》가 아닐가요.

우리의 소년단시절은 《항상준비》시절이라고 말할수 있지 않을가요.

《항상준비!》

우리의 앞가슴에 빛나는 소년단휘장에도 이 글발이 새겨져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소년단의 영광스러운 력사는 《항상준비》의 구호를 높이 들고 흘러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소년단의 첫 세대인 항일아동단, 그들의 구호도 《항상준비!》였습니다.

아동단은 《조선의 독립과 전세계 무산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는 구호밑에 투쟁했습니다.

아동단원들은 군중계몽, 연예활동, 보초근무, 통신련락, 적정탐지, 무기탈취, 유격구방위를 위한 투쟁에서 실로 어른들에게 못지 않은 위훈을 세웠습니다. 적의 《토벌》에 불타버린 귀틀집들을 다시 일떠세우는 속에서도 언제나 붉은넥타이를 휘날렸습니다. 근거지를 사수하는 방위전의 불바다속에서도 노래를 부르며 혁명군의 참호에 주먹밥을 들고 뛰여오던 어린 수리개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농사철이면 어른들의 일손을 도와 밭에서 김도 매고 가을걷이도 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산과실을 따다가 유격대병실에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을 일선에서 후원한 아동단원들과 소년선봉대원들은 모두가 우리 혁명의 1세들중에서 가장 어린 세대를 대표하는 영웅들이였습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자라난 우리 소년들이 자라서 우리 당을 세우는데서 기둥이 되였으며 인민의 나라, 공화국을 세우는데서 기둥이 되였습니다.

해방후 아동단의 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소년단이 창립되였으며 우리의 소년단원들은 《새 민주조선을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새 조선을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특히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때 우리의 슬기로운 소년단원들은 전선과 후방을 목숨바쳐 도왔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로동당원들의 뒤를 따라 소년빨찌산을 뭇고 원쑤들과 용감하게 싸워 조선소

년들의 용맹을 온 세상에 떨쳤습니다. 소년단생활을 거쳐 자라난 애젊은 청년들속에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수많은 영웅전사들이 나왔습니다.

당과 혁명에 언제나 충직한 우리 소년단원들은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는 구호밑에 꼬마계획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껏 도왔으며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일떠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우리의 소년단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는 소년단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속에는 조선소년단원들의 고귀한 투쟁업적이 깃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소년단원들은 당과 인민의 참된 아들딸로서, 나어린 혁명전사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숭고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로 믿음직하게 준비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나가는 소년단구호는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입니다.

이 구호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제정하여주신 구호입니다.

소년단휘장의 《항상준비》글발은 공화국기발을 배경으로 새겨져있습니다.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곧 아버지장군님품입니다.

아버지장군님은 우리 조국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소년단구호《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

비하자!》는 곧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입니다.

자나깨나 아버지장군님을 그리며 그이께서 바라시는 대로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애써 노력합니까.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그 이름도 영광스러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가맹합니다.

세상에 청년들의 조직이 많지만 우리 나라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처럼 성스럽고 존엄높은 청년조직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청년동맹에 가맹할 자격이 있는지, 항상 준비되여있는지 우리는 가맹준비를 착실히 하고있습니다.

소년단구호 《항상준비》대로 자신을 열렬한 혁명가로 준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을 때 소년단조직도 청년동맹조직도 우리를 어엿한 청년동맹원으로 추천해주고 받아주는것입니다.

소년단시절!

《항상준비》시절을 과연 어떻게 영예롭게 총화지을수 있겠는지요.

오늘이란 날은 한번 오지 두번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준비가 아니라 《항상준비》입니다.

항상 즉 언제나, 하루도 빠짐없이, 늘 준비하자는것입니다.

매일매일 총화해봅시다.

과연 내가 오늘도 《항상준비》구호대로 자신을 준비하였는가, 얼마나 준비하였는가.

청년동맹원이 될수 있게 준비하였는가.

조국과 혁명을 위해 한몸바칠 견결한 선군혁명투사로 준비하였는가.

오늘은 비록 나어린 소년단원이지만 앞으로 우리는 위훈의 탑을 쌓아올린 청춘들처럼 청춘을 빛내일수 있는가.

높은 리상을 안고 항상 준비해온 우리 소년단원들을 청년동맹은 받아줄것입니다.

너희들은 먼 후날까지 《항상준비》시절인 오늘의 소년단시절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게 될것이라고 로당원 할아버지가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씀하십니다.

꽃봉오리 방실 노래를 부르던 우리는 이제는 소년단시절을 마칩니다.

청춘의 노래를 높이 부르는 청년동맹시절을 맞이합니다.

《항상준비!》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항상 준비할것입니다.

향도의 당을 위해.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교실에 모셔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릅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몸소 지으신 동시 **《우리 교실》**을 마음속으로 읊어봅니다.

아름다운 교실
언제나 재미나는 교실
앞에는 원수님초상화
환하게 모셔져있지요

오늘아침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실에 들어서니
언제든지 반가운듯이
우리보고 공부 잘하라고 …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봄바람에 실버들 푸르렀네
우렁찬 건설의 노래와 함께
원수님을 우리는 받드네

노래하자! 원수님을 …
우리는 승리하였네
행복한 민주의 터전은 건설되네
노래하자! 우리의 원수님을…

우리의 교실은 알뜰한 교실
언제든지 책상에 앉으면
너그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네
새 나라 착한 아이들 되라고…

우리는 언제나 받드네 원수님을…
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 나라 일군이 되자!
항상 준비하자!

야! 우리 교실, 경애하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소년단시절에 그처럼 사랑하신 우리 교실.

우리도 아버지장군님처럼 우리 교실을 사랑합니다.

《항상준비》구호를 가슴에 새기던 정다운 교실입니다.

우리 교실창가에 해빛이 밝게 비쳐듭니다.

앞으로 항상준비해갈 맹세로 불타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행복한 미래를 축복해주는듯…

해빛 밝은 교실에서 우린 노래합니다.

아버지장군님을 위하여 항상준비해나갈 노래를 부릅니다.

김정일장군님 위하여 《항상준비》

1. 태여난 품도 장군님 그 품
   자라는 그 품도 장군님품이다
   후렴:
   소년단기앞에 맹세합니다
   우리는 나어린 소년근위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위하여
   《항상준비》

2. 오늘의 행복도 그 품에 있고
   희망찬 앞날도 그 품에 있다
   후렴:

3. 장군님품에서 지덕체다져
   주체의 미래를 떨쳐가리라
   후렴:

소년단시절

집 필 및 편 집 장옥영
심 사 김천일, 리철국, 강련화, 윤동선
장 정 손명희
편 성 정향애 교 정 김혜성

낸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0(2011)년 4월 5일
발 행 주체100(2011)년 4월 10일

ㄱ-15062ㄴ 값 65원